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해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5일)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꽃비없는 거리서 '마음 연등' 밝힙니다

다시 부처님오신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아득한 옛날에서 오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가슴 벅찬 날이다. 손에 손 연등 밝혀들고, 고운 노래 부르며 부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우리도 부처님 되는 날이다. 도량마다 종소리 북소리 염불소리 넘치고, 길에는 연꽃등 팔각등 장엄등 넘치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은 연등 밝혀들고 거리로 나갈 수도 없고, 얼굴 맞대고 부처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없는 이 수상한 시절서 부처님오신날을 맞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수상한 시절인연을 우리 모두의 오래된 과보로 받는다. 오늘을 아쉬워하는 대신 각자의 부처님 찾아 이 시절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부처님 이름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보내기로 한다. 아기부처님등 따라 거리를 걷고, 꽃비 맞으며 도반들과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오늘. 어수선한 마음 조용히 접고 작은 연등 하나 마음에 밝힌다. 오늘은 꽃비 없는 거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나무석가모니불.

글=박재완 기자/그래픽=노덕현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합니다.

●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 5월 30일(윤 4/8, 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192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2020년

#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전격 취소

**종단협 · 보존위 5월19일 발표**
**이태원發 코로나 확산 우려에**
**연등회 첫 '자발적 취소' 결정**
**"국민 건강 고려 대승적 판단"**
**5월30일 봉축법요식 예정대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전격 취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심사숙고 끝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5월 23~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의 연등회 취소 결정은 최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다. 연등회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1961년 4.19 계엄령과 1970년 계엄 상황 등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연등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 자발적인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처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교계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간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해왔다. 각종 법회와 행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했으며, 일부 주요 사찰에서는 산문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성금과 생수 지원, 사찰음식 도시락 지원 등 활발한 지원활동도 펼쳤다.

또한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윤사월로 변경했고, 4월 30일에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입재해 전국 종단협 소속 1만 5000여 사찰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금곡 스님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교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5월 23일 예정했던 '연등법회'와 '연등행렬'을, 24일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불교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변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위기가 하루 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기를 발원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결정이 더욱 의미 있게 우리 사회에 회향될 수 있도록 뭇 생명의 평화를 위한 정진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계의 대승적 결정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디 'ci****'는 "자기 종교의 이익보다 국민을 생각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자체가 참 불교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으며 'sy43****'는 "연등회 취소가 아쉽지만 너무나 잘하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자비로운 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사월 초파일인 5월 30일 봉행 예정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한달여 간 진행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회향하게 된다.

**연등회 취소 관련 SNS 반응들**

절 8년 넘게 다녀본 입장으로는 연등회 취소된 것이 아쉽기는 하다. 규모가 엄청나다보니 한참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취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참 안타깝다. 〈@Dan******〉

불교계 연등회 취소. 스님들 쿨하구나. 〈@caf*****〉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다니 감탄했다. 어러니 저러니 해도 불교는 정말 대단해. 〈@bax****〉

난 이래서 불교가 좋은가봐. 〈@xeHn*********〉

취소하는 것이 상황에서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네. 1년을 또 기다려야하는구나. 〈@rira******〉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A · B · C · D섹션 76면 발행

봉축 데스크 초대석 A5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봉축 특별 대담 A16 · 17
의정 · 각산 스님


리더에게 聽하다 C1 · 2
조태권 광주요 회장


봉축법어 · 봉축사 A13 · 14

봉축 연등 PHOTO C8 · 9


봉축특집
5.18민주화운동과 불교 A7 · 8 · 9 · 11


포스트 코로나와 불교
B1 · 2 · 6 · 7 · 8 · 9 · 11


봉축 시방세계 B13
성주사 코로나19 종식 기도회 현장



# "공불련 20주년, 성지순례로 구심점 구성을"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회장**

**전국 15개 지부 추가 계획**
**외국공무원 교류확대 추진**
**국내 성지순례 사업 모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조직으로 거듭난다. 손창동 신임회장<사진>은 5월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교계 기자들과 만나 공불련의 활동 재개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인 손 회장은 4월 22일부터 2년 동안의 제12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불련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월례법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 종식 후 조직 강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가장 먼저 손 회장은 15개 지부 구성과 지역법회를 통한 재개 계획을 밝혔다. 손 회장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공불련은 아쉽게도 전국에 지부가 없는 곳이 많다. 적극적으로 지역 조직 구성을 장려하여 전국 시도 15개 지부를 추가로 구성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법회 및 합동법회를 여는 한편, 해외성지 순례를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능한 국내 성지순례로도 전환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고향인 경북 도계지역은 신라불교 초전지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불교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지지 않은 국내 불교 성지를 찾는 순례는 그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공무원 불자들이 공부하고 함께 수행해가는 구심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화 단계에서 다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1965년 태어나 불교종립인 심인중학교를 나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삼보 스님, 월정사에 교육불사금 30억원 기탁

**5월 16일 37주기 다례재서… 은사 탄허 스님 유지 계승**

영월 법흥사 주지 삼보 스님<사진>이 은사 탄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해 월정사에 교육불사를 위한 30억원을 기탁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선지식 탄허 스님은 생전 승려교육과 불교인재양성에 대한 남다른 원력으로 평생 교육 불사에 매진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16일 탄허 대종사 37주기 추모다례재에 이어 삼보 스님의 교육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삼보 스님은 이날 "은사 스님의 정신을 현양하는 교육불사에 사용해 달라"며 30억원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월정사에 기탁한 30억원은 삼보 스님이 연금과 사찰 소임비를 수십년간 모아 마련한 금액이다.

삼보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겠다는 원력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추서 받은데 따른 연금을 수십년간 전액 저축했으며 소임비를 절약해 모은 금액 등을 더해 교육불사기금을 조성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 발원합니다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 상월선원 시즌2 '인도 만행' 본격화

**5월 21일 결사 계획 발표해**
**11월 17일~12월 31일 진행**
**인도 · 네팔 성지 도보로 순례**
**하루 30km… 1080km 걸어**
**사부대중 참가하는 '열린결사'**
**단원 25명 규모… 방부 접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겨울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인도 만행으로 새롭게 이어진다.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지객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Ⅱ 만행결사' 계획을 밝혔다.

호산 스님과 원명 스님에 따르면 '상월선원Ⅱ 만행결사'는 오는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도보로 순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순례 입재는 초전법륜지인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진행되며, 입재식 이후 도보로 사르나트를 거쳐 8일 간 부처님 정각지 부다가야로 걸어가게 된다. 부다가야에서 2일 간 머물면서 마하보디 대탑과 한국에서 건립 예정인 분황사를 순례한다. 라자기르로 이동한 결사 대중은 〈법화경〉이 설해진 영축산을 3보 1배로 오를 예정이다. 이후 세계평화탑이 있는 바이샬리와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 성지 룸비니를 도보 순례하고,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만행을 회향하게 된다. 도보로 도착하는 성지에서는 부처님 유적 등을 순례하며 정진하는 시간들도 가질 예정이다.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총 순례 거리는 1080km로, 하루 평균 30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대장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님들이 공개한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하루 일정은 빈틈없다. 결사 대중은 오전 3시 30분에 기상해 3시 40분 새벽 예불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예불 이후에는 오전 4~6시까지 휴식 없이 걸으며, 6~7시까지 아침공양과 휴식이 이뤄진다. 오전 7~11시까지 이뤄지는 걷기 정진은 50분 걷기 정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오전 걷기 정진을 마치면 오후 2시까지 점심공양과 휴식이 이뤄지며 휴식이 끝난 후 오후 5시까지는 걷기 수행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예불 후에는 9시까지 개인 정진의 시간을 갖고 9시 30분 취침에 들어간다. 하루 동안 10시간 가량을 오롯이 걸으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체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만행결사'는 출가, 성도, 전법, 열반의 길을 따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친견하고 가르침을 되새기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해제가 다가오면서 회주 자승 스님과 필담을 나눴는데 스님의 필담 요지는 '한국불교는 수행 정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수행가풍 진작 · 불교 중흥 · 대한민국 화합 ·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상월선원의 4대 결사 정신이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수행하는 불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불교,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선원 결사 정신을 확산하고 한국불교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7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중요한 특징은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 역시 "상월선원 결사의 실현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정진으로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자승 스님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방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결사 대중은 총 25명(비구 스님 15명, 비구니 스님 5명, 우바새 · 우바이 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정이 빡빡하고 강행군인 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70세 이하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객 원명 스님은 "방부 신청 대중이 많아질 경우 논의를 통해 결사 대중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45일을 모두 참석하기가 어려운 사부대중을 위해 중간 합류 지점들을 정해서 1~7일을 함께 정진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추후 일정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만행결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대중은 총도감과 지객 소임을 맡게된 호산 스님과 원명 스님을 비롯해 1차 천막결사에 참여한 도림 스님, 유승 스님(조계종 前 재무부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이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유승 스님은 "마음이 게을러지면 인도를 찾곤 했다. 부다가야에서는 10만배 절 수행을 한 적도 있다. '언젠가 부처님 성지를 도보 순례하며 부처님 발자취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갰으면 좋겠다'는 발원을 세웠는데 이 발원이 이뤄졌다"면서 "이미 하루에 10km씩을 걸으며 결사 동참을 준비 중이다. 내 수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기쁘게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 영전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향하는 모습

# "드높았던 중생 제도 원력 계승"

**한마음선원, 5월 23일**
**대행 선사 추모다례재**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8주기 열반 다례재'를 엄수했다. 코로나19 관련지침에 따라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을 중심으로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임원 500여 명만이 참여했다.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와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 교계 언론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화, 헌향으로 시작됐다. 또 본원과 각 지원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를 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 자리 함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많은 신도들이 많다. 모두 고마운 마음 뿐"이라며 "선사께서는 많은 이들이 자기 근본을 의지하여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천도재'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제작한 추모영상이 공개됐다. 특히 영상 중간 중간 삽입된 대행 선사의 생전 법문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 코로나19 · 장애 편견 넘어선 공감의 법석

**보리수아래, 5월 20일**
**'제13회 연꽃들의 노래'**
**장애시인들 자작시 공연**


'손가락 시인' 정상석 씨의 어머니 김종갑 씨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세상의 누구보다 꿈 많고 포부가 크던 내 아들, 5월의 푸른빛이 눈부시구나.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지쳐가는 너의 모습에 엄마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너의 인생은 푸른 5월 같기를 오늘도 기도한단다." (사랑하는 아들 상석에게, 김종갑)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뿍 묻어났다. 김종갑 씨의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다. 거동이 쉽지 않은 몸을 바닥에 뉘인 채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손가락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정상석 시인이 그 주인공이다. 어머니 김종갑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했고, 관객석 곳곳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5월 20일 서울 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제13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감동과 눈물, 웃음과 박수가 한데 어울린 공감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정상석 시인의 어머니 김종갑씨가 낭독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구절 한구절, 장애인과 장애가족을 둔 이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겐 이해와 감동을 선사했다.

김종갑 씨의 낭독에 앞서 박심원 목사의 부처님오신날 축하시 '향기와 생명, 그리고 섬김' 낭독도 진행됐다. 박 목사는 축시에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며 종교적 논리를 넘어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

광림사 연화원 이사장이자 보리수아래 고문 해성 스님은 '내가 있어 여러분이' 곡을 수어로 선보였다. 스님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세상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아름다운 글로 옮겨 세상을 맑히는 보리수아래 회원 여러분 모두가 멋진 포교사들"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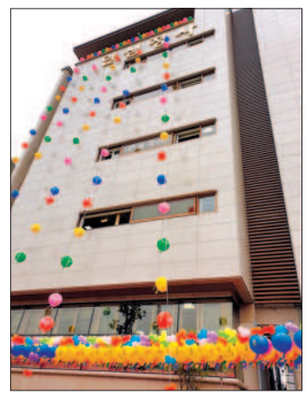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불교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행사를 열어 1년간 장애불자들이 쓴 시를 노래와 음악, 낭독으로 선보였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열린만큼 '동행,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으며'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리 배치 시 관객간 거리를 넓히는 등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관객을 최소화한 대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여는 말에서 "여건상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진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서울 중심에 불교전문교육도량 개원

**안심정사, 5월 17일 법회**
**'불교문화교육센터'로 운영**
**종단 주요인사 대거 참석**



서울도심의 중심 강남에 불자들의 기도와 신행,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부처님 도량이 우뚝 섰다. 안심정사 서울도량이 이전 개원한 '안심정사 서울본부'〈사진〉는 1991년 논산 본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분원에서 기도와 나눔을 통해 중생의 삶을 변화시켜 온 안심정사가 향후 불교전문 교육도량으로서 위상을 드러낼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5월 17일 강남대로 6길(양재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안심빌딩에서 서울도량 이전 ·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안심정사(주지 혜신 전법사)는 '불교문화교육센터'로서 지역분원을 넘어선 교육전문도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건평 395평의 인심빌딩은 모든 층에 부처님을 모신 전각의 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옥상인 6층에는 산신각이, 5층은 약사전 · 좌선당, 4층은 대웅전 겸 설법전, 3층은 지장전 경 염불당이 들어섰다. 2층은 강당 겸 공양실로, 1층은 종무실 겸 상담실로 운영된다.

법안 스님은 "불사에 동참 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오늘 개원법회를 기점으로 안심정사 서울본부 겸 불교문화교육센터는 좋은 기도와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을 맞이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 황학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Tel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 銀海寺

사부대중일동

www.eunhae-sa.org
학교법인 동곡학원 /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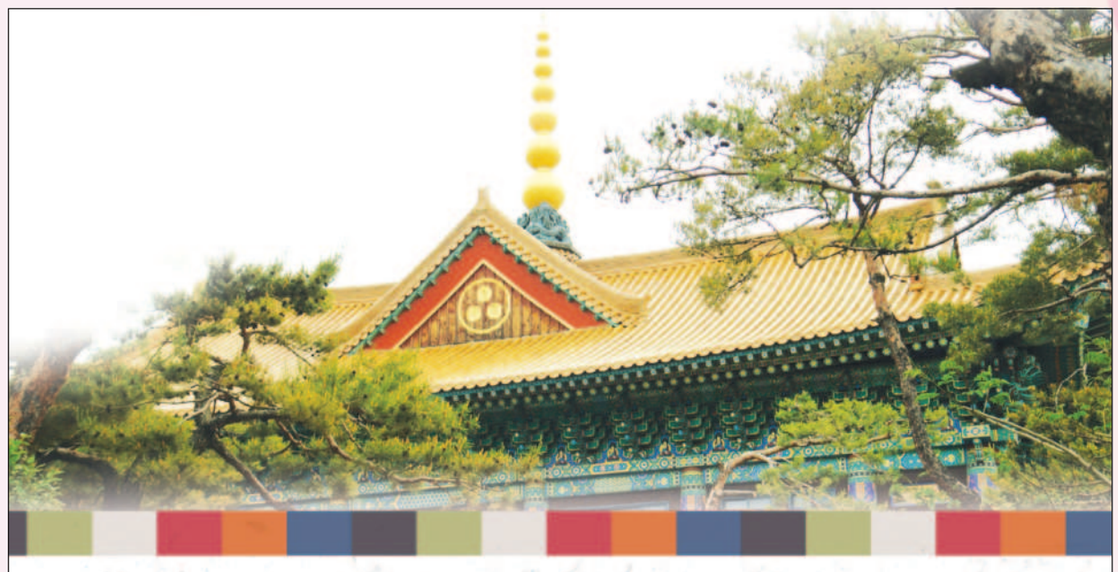



〈법회안내〉

| | | |
|---|---|---|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 음.10월 15일 ~ 1월 15일 |
| | ·산 철 결 제 | 음. 2월 15일 ~ 3월 29일 |
| | ·하안거 결제 | 음. 4월 15일 ~ 7월 15일 |
| | ·산 철 결 제 | 음. 8월 15일 ~ 9월 30일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



대한불교조계종

## 운문사

회주 명성
율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혜산
신도회장 박숙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슬산

## 대견사

주지 법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Tel. 053)746-0020

# “자고 눕고 싶은 이놈 박살내는게 바로 수행”

**데스크 초대석**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올 2월부터 본격 기승을 부린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학생들 등교가 연기되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정상적 회사 생활에 제약이 많아졌다. 또한 가족들중 확진 의심자만 생겨도 격리가 불가피 해졌다. 이런 상황서 기업들도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고, 경제는 꽁꽁 묶였다. 가라 앉을만 하면 수면 위로 불거져 확산되는 코로나19. 아직도 완전히 잡힐 기미가 안보인다. 그래서 우리 뭇 중생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이런 어려움을 선지식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고 계실까? 혹시 그 해법도 알고 계실까?

1956년 15세 출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선 수행으로 일관한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5월 19일 봉축을 맞아 알현 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으로 상실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김주일 편집국장

**▲오등선원 하면 ‘용맹정진’ 전문 선원이라고 부를 만큼 ‘3년 용맹정진 1천일 결사’로 유명한데요.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는 정진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결사에도 24명이 입실했지만, 절반인 12명이 중도 포기한 만큼 말 그대로 고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수좌들은 선방서 마주보고 앉는데, 눈을 뜨면 상대방이 앉아 있기에 졸고 싶어도 분위기상 많이 못 좁니다. 수마를 극복하는 그 비결은 바로 화두 삼매에 있죠. 하루 온종일 화두가 성성한 경지에 이르면 앉으나 서나 화두에 빠져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화두에 빠졌다 깨면 수일이 그대로 지나가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하면 안되는 일이 없듯이, 정진도 목숨 걸면 가능합니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이 안됩니다. 끊임없이 눕고 싶고 남보다 먼저 자고 싶어 하는 ‘나’라는 이놈을 박살내는 게 바로 용맹 정진 수행입니다.

**▲1천일 동안 폐문하며 수행했던 오등선원 ‘용맹정진’의 하루 일과와 당시 상황들이 궁금해 지는데요. 소개좀 해주세요.**

-오등선원의 선방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잠을 자지 않으니 모든 시간이 수행을 위해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 평균 보통 18~19시간 화두 참구를 합니다. 공양하거나 머리 깎거나 목욕 하는 때를 제외하면, 앉아서도 서서도 걸으면서도 울력 하면서도 화두를 들죠. 고행의 극한까지 한번 가보자는 용맹심으로 달려드니, 당연히 몸에 이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코피는 물론 전신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간 스님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적은 성취감이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아상(我相)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빨리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더 힘들죠.

**▲오등선원은 다른 선원보다 고강도 수행을 요하는데도 방부를 들이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진짜배기 공부를 하고 싶은 수행자들의 열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배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려서 확철대오하여 계합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은 철벽처럼 잡념이 스며들지 않게 큰 의심으로 철저하게 화두를 참구해야 되죠.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의심이 독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화선은 닦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데 의미가 있지요. 결국 선의 요체는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간화선은 말로 함축된 일구를 던지는 것인데, 이는 말 속의 의미를 올바로 직시하는데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지혜가 높아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진짜배기 공부입니다.

**▲언젠가 법문하시면서 “수행자에겐 아무리 짧은 잠이라도 허송세월이며, 수마를 조복 받고 나면 오히려 공부가 쉬워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수좌로서의 선기가 묻어나는 가르침이신데, 이에 덧붙여 평소 후학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수마도 눈을 부릅뜨고 끊으려 노력한다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알아차리겠다는 그리고 깨닫겠다는 용맹스런 마음 말입니다. 백척간두의 천길 벼랑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백과 하늘 땅을 밟고 홀로 뛰어 오르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과 용심처를 둘로 보지 마시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등선원에서는 수행자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공부 상태도 일러주며, 많은 선원서 사라진 법거량 전통을 활성화시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법거량은 번거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저희가 당대의 선지식들에게서 가르침을 배울 때는 반드시 법거량을 통해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 받았습니다. 법거량은 큰 의심과 분심을 촉발하게 되고,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등선원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쇠퇴일로에 있는 간화선 중흥과 승풍진작을 위해 시작했는데, 매일 경책을 통해 용맹정진하는 이 납자들을 마주대하며 한국불교의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계종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은 수행 효과가 단시일 내에 직접 나타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편견과 고정 관념이 많습니다. 그래도 간화선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은 무엇입니까?**

-간화선은 관법과 달리 일구(一句)로 번뇌망상을 단박에 잘라서 본래 진면목을 바로 가르쳐 언하에 깨닫게 해서 마치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물음에 “無”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중생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앞뒤 생각이 끊어지고 중생의 분별 의식이 통하지 않는 데까지 도달하게 해서 조주 스님의 ‘無字’ 의지를 바로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진면목을 요달(了達)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법으로는 단박에 앞뒤 생각이 딱 끊어지게 하고 깨달음의 차원까지 하려면 몇 겁을 수행해도 어렵습니다. 관법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간화화두선은 돈오돈수로 빨리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시대, 빨리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에 간화선이 적합한 이유이지요.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원도 열어 재가자 수행 진작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와 효과는 어떤 것이고, 재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분명히 큰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신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의 질이 변화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다 높은 의식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 핵심은 수행을 통해 바로 자신의 진면목, 참나를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간 재가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많이 전합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는 5월 30일이 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국회의원 불자회인 정각회서 가끔씩 초청돼 법문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경책의 말씀을 들려 주신다면요.**

청풍무종적(淸風無蹤跡)하고
〈맑은 바람은 지나가도 자취가 없고〉
백운자거래(白雲自去來)한데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가는데〉
통신무장애(通身無障碍)하며
〈몸을 통하여 걸림이 없으며〉
명주자희롱(明珠自戱弄)이로다
〈밝은 구슬을 스스로 희롱함이로다〉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는 머무르지 말고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을 만나거든 급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두 양변을 벗어나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당과 야당을 뛰어 넘고, 남과 북을 뛰어 넘어서 양변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양변서 놀아나면 우리 인생은 자유로운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걸림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척 알아차리고 다 압니다. 이심전심,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해버리죠. 서로 상통해 버립니다. 그래서 융합이 되고 만사가 형통해 집니다. 그 세계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혼란스런 작금의 현실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요.**

-우선 정부인 리더 그룹들이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겠지만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올바른 지혜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천하가 태평해 질 것입니다. 백성들도 시시비비에 치우치지 말고 어려울 수록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해결책이 보이고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이 생겨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자신을 직시합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을 향한 지혜의 눈이 열려 삿된 마음에 속지 않고 화합된 멋진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서 출생했다. 1956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했으며, 1958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6~1986년 당대 선지식인 효봉, 금오, 고암, 전강, 경봉, 성철 스님 등을 참방 했으며, 40여년 간 정진 수행을 했다. 이어 대원 스님은 일제시대 한국불교 중흥에 평생을 바친 용성(1864~1940) 스님과 조계종 3·4·6대 종정을 지낸 고암(1899~1988)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1986년에는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창건했으며, 1995년에는 오등선원을 개원하고 조실로 추대됐다. 2001년엔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해 선(禪)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2010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4년에는 종단의 최고 지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로 주석 중이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총무국장 종 현 사회국장 성 오
유 나 은산 증도 기획국장 성 구 포교국장 양 관
강 주 수담 인해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천 주
염불원장 영 산 재무국장 현 담 원 주 범 용
박물관장 송 천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리산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

##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2020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유아 행복드림사업**을 통해

**15명의 소중한 생명**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인간방생의 길**이 실천되길 기원합니다.

상임대표: 정각
공동대표: 심산, 목종, 김종민, 장인화, 김진영 합장

상담 및 후원

www.happywave.or.kr 전화 : 051) 664-7300
이메일 : happiness2121@hanmail.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서로 30 KNN타워 8층
TEL: 051)664-7300 FAX: 051)664-7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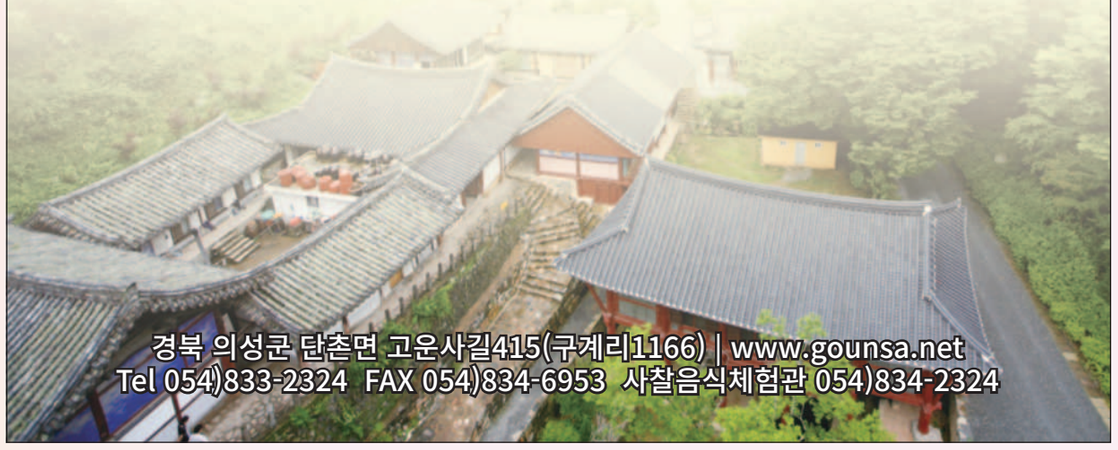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 오신날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Tel 054)833-2324 FAX 054)834-6953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

## 大韓佛教普門宗

석가모니 부처님을 종조(宗祖)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수행정진하는 청정 비구니 종단

宗正 智庵大仁
元老會議 議長 妙觀

總務院長 仁求　　財團法人 理事長 確鐵
中央宗會議長 智環　　總務部長 慈門
護戒院長 德賢　　教務部長 敬珍
財務部長 志元

宗徒一同



총본산 보문사 석굴암 전경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전화 02) 928-3797, 926-9750 팩스 02) 926-9752 http://www.bomunsa.or.kr

---

대한불교 **능인종**

**총무원장**

능인종 종도일동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055)585-5300

---

##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1-870-0021

# 1980년 5월 광주, '不二정신' 빛났다

## 5.18 민주화운동과 불교

여는 글 – 5.18정신과 불교

**김동수 거사 · 진각 스님 등**
**민중 아픔 함께 하다 희생돼**




그림 · 강병호

**지장보살 서원 · 불이의 발현**
**갈등 · 대립 치유하는 원동력**

### 5.18 정신은 무엇인가

올해 5.18행사 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사를 치렀다. 5.18민주화운동이 공식명칭이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단순히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시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계엄군의 야만적인 살상에 맞서 투쟁했으므로 5.18민중항쟁이라고 해야 옳다. 5.18민주화운동은 어정쩡하게 보수와 진보가 봉합한 이름일 뿐이다. 올해 같은 분위기라면 잃어버린 민중항쟁이란 이름도 머잖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본다.

광주 5.18민중항쟁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야 5.18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다. 광주 5.18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민초들의 저항정신을 발현시키고 계승한 항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는 국란 때마다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이 깊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5.18민중항쟁은 백성들이 나라를 구한 임진왜란이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동학혁명,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4.19의거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5.18민중항쟁을 민초들의 저항정신의 발현이라고 한다면 광주 5.18정신은 무엇일까.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운, 즉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짓밟지 말라' 고 외친 것이 광주 5.18정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리라. 불가(佛家)의 화법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이다.

### 5.18항쟁에 가담한 불제자들

불교의 최고이념은 '자비(慈悲)' 이다. 〈불교사전〉(홍법원 발간)은 자(慈)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비(悲)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와 비를 바꾸어 풀이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비란 '발고여락(拔苦與樂)' 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비(悲)를 독특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대학시절 문학평론 강의시간에 조연현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다. 비(悲)를 파자하면 아닐 비(非)자에 마음 심(心)자이다. 즉 '아니라고 하는 마음' 이 비(悲)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아니라고 꾸짖거나 심판하는 마음' 이 비(悲)의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비(悲)를 '심판하는 마음' 이라고 본다면 불제자들이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고 참여하는데 정당성을 갖는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심판하는 마음을 작동하기 때문이다. 5.18민중항쟁 때 불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담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몇몇 불자는 시민군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필자가 실명(實名)과 실화(實話)로 집필한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전 2권)에 등장하는 나주 다보사 진각 스님. 광주 증심사 성연 스님. 광주 도심사찰인 원각사의 불일청년학생회 박행삼 지도교사와 대동고의 몇몇 제자가 그들이다. 분명, 이보다 더 많은 불제자들이 항쟁에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기서는 필자가 자료를 접한 범위 안에서만 소개해보겠다.

1980년 5월 21일은 부처님 오신날이었다.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므로 조계종 총무원은 5월 17에 실시하기로 한 제등행렬을 취소했다. 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청 광장 앞에서 봉축의 탑 점등식만 가졌다. 이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이자 조선대 불교학생회 회장이었던 김동수 거사는 점등식 사회를 보았다. 그러나 5월 17일 밤에 주요정치인과 대학생간부 등을 무조건 연행하는 예비검속이 시작되자, 김동수 거사는 다음날 목포 정혜사로 내려가 피신했다. 그는 조선대 학원자율추진위원회와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예비검속 대상자였던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그런데 김동수 거사는 며칠 뒤 목포까지 달려온 시민군 트럭을 타고 광주로 올라와 도청으로 들어간다. 도청에서 그가 맡은 일은 시신확인과 시신안치였다. 시민군 사이에서도 꺼려하는 궂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5월 27일 계엄군이 무력으로 도청을 점거하던 날 밤에 동국대 재학생 박병규와 함께 공수부대원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도청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었을까? 그들은 정말로 죽었을까?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선가(禪家)의 금언이다.

두 번째 인물은 진각 스님이다. 진각 스님은 5월 19일 초파일 불단에 올릴 과일을 사러 시내에 나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는 시민군에 합류했다. 계엄군에 붙잡혀 끌려가다가 탈출해 나주 다보사로 내려갔지만 5월 21일 또다시 광주로 올라와 항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시민군들을 모아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나눠주었다. 그런 뒤 민간인 적십자 대원이 되어 지프차를 다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피와 산소를 구해오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실어 날랐다. 결국 진각스님은 죽어가는 부상자를 지프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반신불수가 됐다.

진각 스님의 도반인 증심사 총무 성연 스님은 5월 21일 불단에 올렸던 떡과 과일을 리어카에 싣고 시내까지 내려와 시민군들에게 나눠주었다. 증심사에서 시내까지는 30리 먼 길이었지만 시민군들에게 정성껏 보시했다. 5월 25일에는 시민궐기대회 연사로 도청 분수대에 올라서서 시민들을 향해 파사현정(破邪顯正)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도심 사찰의 보살들도 나섰다. 원각사와 관음사 신도들이 불단에 올린 공양물을 바구니에 이고 나와 배고픈 시민군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 지장신앙과 不二정신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보살이다. 지옥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인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 지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고 하니 말이다.

김동수 거사의 눈에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바로 생지옥이었을 터이다. 그래서 그는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시신처리와 안치를 기꺼이 담당했을 것이다. 진각 스님은 무슨 마음으로 적십자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부상자를 실어 나르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을까.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행동이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는 금언을 남겼다.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한 몸이라는 불이(不二) 정신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 때 불제자들이 온몸으로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장신앙과 유마거사가 남긴 불이정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항쟁에 가담했던 불제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 각자의 신심을 성숙시켜줄 수 있기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운 5.18정신을 뛰어넘어 미래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을 치열하게 모색할 때라고 여겨진다.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이 되고자 하는 서원과 유마거사가 보여준 동체대비심의 불이정신이야말로 사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수승한 삶의 지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찬주(소설가)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사)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청림회

회 장 상 명

청 림 회 원 일 동




사무실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497번안길 59 전화 : 042-222-7090 팩스 : 042-221-7090

# 중생 아픔 함께 한 불자들

## 5.18 민주화운동과 불교
## 항쟁에 참여한 사부대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80년 5월 광주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다.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의 봉기를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탄압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부처님오신날이었던 5월 21일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스러져가 아픔을 더 했다. 이 같은 신군부의 폭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쟁에 적극 가담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불자 중 가장 대표적인물은 故 지광 김동수 열사(당시 22세)이다. 그는 1980년 당시 조선대 공과대학 3학년 학생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남지부장이었다.

실제로 김동수 열사는 신심 높은 불자였다. 향림사와 관음사 고등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항쟁 직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진행부위원장으로서 도청 앞 광장 점등식을 진행했다. 5월 17일에는 봉축행사 일환으로 광주시민회관서 열린 법정 스님 · 이항녕 박사 강연회도 관여했다.

하지만 모교인 조선대를 계엄군이 강제 점령하고 학생들을 예비 검속하자 5월 19일 목포로 피신했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에서 내려온 차량 시위대로부터 계엄군 학살 만행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광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했다. 평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누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강조해 온 그에게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폭압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동수 열사는 전남도청항쟁본부에 들어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열사의 동생인 김동채 씨는 "평소에 신심있는 불자였던 만큼 시신에 대한 염과 염불을 하면서 정성껏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던 김동수 열사는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도청을 포위한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군에 의해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주 하나와 대불련 뱃지만이 남아있었다.

항쟁에는 승속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계엄군의 총탄에 반신불수가 돼 속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스님도 있다. 바로 진각 스님(현재 이광영, 당시 27세)이다. 진각 스님은 화엄사 스님으로 1980년 당시에는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5월 19일 성연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러 나온 진각 스님은 계엄군의 잔혹한 시위 진압을 목격하게 되고 수행자로서 외면할 수 없어 금남로에서 시위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계엄군에게 잡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탈출해 나주 다보사로 몸을 피했다.

진각 스님은 5월 20일 성연 스님과 연락해 다시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걸어서 광주로 올라왔다.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지만, 스님은 시위대에 합류해 차량과 현수막에 구호를 쓰는 일을 주도했다. 스님이 쓴 구호들은 시위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항쟁에 목표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故 김동수 열사


진각 스님(現 이광영)

**김동수 열사 도청서 시민군 참여하다 '산화'**

**진각 스님 구호활동 중 총상… 하반신 마비**

이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계엄군은 적십자 깃발을 꽂은 차량에게까지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으며, 스님과 다른 대원은 총상을 입었고 다른 대원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은 이후 불교계 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하다 2000년 입적했다.


광주 시내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과 계엄군 모습. 사진제공=5.18기념재단

# 조계종 중심 대응… 선무단 파견 · 광주 방문

## 5.18 당시 종단은 무엇 했나

**월주 스님, 현장 조사 지시**
**의연금 모금… 광주에 전달**
**6월 3일에는 추모법회 봉행**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체 불교계의 활동 상황은 기독교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불교계도 1980년 5월의 광주와 함께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확인된다. 현재 확인된 당시 불교계 문서는 198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배포된 유인물이다. 해당 유인물은 5월 16일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서 열린 '불교사상대강연회'에서 배포된 것으로 배포단체는 한국민중불교연합회로 명시돼 있지만, 정확한 배포 주최는 '모임 아들'의 불자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인물에는△민주화 운동 적극 참여 독려 △불교 정치적 이용 반대 △호국불교 허상을 깰 것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비상계엄 상황 즉각 해제 등의 요구가 담겼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응은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1980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의 회고록 〈토끼풀 거북털〉과 故정의행 법사가 발표한 '5.18민중항쟁과 불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주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취임 20여 일만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계엄의 재갈이 물린 언론은 불순세력의 폭동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월주 스님은 광주로 가기로 결심하고 5월 24일 선발대 격으로 '소요사태 진상조사 선무단'을 보냈다.

성금과 선발대 파견은 신군부의 철권통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실제 정보를 파악한 종로경찰서장은 월주 스님을 찾아와 광주에 가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월주 스님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시민과 군인 희생자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가겠다"며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월주 스님은 5월 30일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상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광주시민을 돕는데 앞장서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본말사와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연금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광주 방문은 6월 3일 이뤄졌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6명의 방문 대표단은 서울에서 전남 장성으로 기차로 내려간 뒤 다시 차량으로 광주에 갔다. 종교계 중앙 교단 책임자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불교계는 이날 오전 11시 관음사에서 '광주 사태 희생자 영가'라는 위패를 모시고 천도재 입재를 봉행했으며, 이후 정시채 전남도 부지사를 찾아가 "사태 수습과 위로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부상자들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군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월주 스님은 희생자들을 위한 49재에도 참석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개월이 지나고 '10.27법난'이라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악의 법난이 벌어진다.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의 수장이 민중항쟁의 현장인 광주에 찾아가 천도법회를 열고 시민들을 도운 것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졌고, 10.27법난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故정의행 법사는 "전두환 정권이 법난을 일으킨 것은 '사회정화'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광주학살 범죄를 가리고 저항적 불교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였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 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제2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상(상패, 상금 1,000만원)**
BTN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최우수상(상패, 상금 500만원)**
김옥희(금정불교대학)

**우수상(상패, 상금 300만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스님)
부산개인택시 불자회(회장 이무영)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2020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이영숙 김수현 하정선 정분옥

■ 자문위원
김진수 정홍섭 이장호 박홍대 전호환 박순곤
박태학 김영섭 고영립 박한일 박무성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친목부회장 배상진 총무부회장 박종문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경조부회장 신기열
기획부회장 이희태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박수곤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의전이사 박태원 정연식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헌 김상규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영자
류강렬 박수진 백정진선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정분남 정순천 하승준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

# 연대하고 나누며 항쟁하다


성연 스님


박행삼 교사

사진제공=5.18기념재단

**성연 스님 시민군 지원… 불교운동에 투신**
**박행삼 교사 해남서 차량 지휘하며 광주로**

각 스님을 계엄 당국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하고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스님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를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 · 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1988년 5.18부상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진각 스님은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을 폭로하고 전두환 · 노태우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당시 28세)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광주 증심사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성연 스님은 5월 19일 진각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하게 된다.

계엄군의 탄압으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정상적으로 봉행할 수 없게 되자 성연 스님은 5월 21일 증심사 신도회장단과 함께 법요식에서 나눠주려 했던 밥과 떡, 과일들을 리어카에 싣고 전남도청 옆 노동청 사거리에서 시위대에게 보시했다.

보시를 마치고 난 직후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했으며,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전남대 병원으로 이동했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은 헌혈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했다.

시위대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던 5월 26일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한 성연 스님은 가사 장삼을 갖추고 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 올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연설했다. 당시엔 계엄군 첩자가 암약하고 '독침사건'으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종교인이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연 스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외친 것이다.

성연 스님은 항쟁을 위한 불교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침탈하면서 할 수 없이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몸을 피신하게 됐다. 하지만 스님은 10.27법난이 발발하고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포승에 묶여 끌려가다가 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성연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성연 스님은 여익구, 서동석 등과 함께 1985년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을 창립하고 이념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도 참여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창립되자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불자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도 주목해야 한다. 광주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당시 43세)는 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로 항쟁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5월 19일 대동고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고자 교문을 나서려고 하자 학생들의 생명이 걱정됐던 박행삼 교사는 교문 앞에 누워 막았다. 이후 고향 해남으로 피신했던 박행삼 교사는 5월 21일 해남군청 앞에서 광주서 내려온 시위대 차량 위에 올라가 주민들에게 "광주에서 우리 형재, 아들, 딸들이 계엄군들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광주로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장한 해남 시민군과 함께 트럭을 타고 광주로 향했고, 나주에 이르렀을 때 시민군의 트럭은 73대나 됐다. 시민군의 추대에 의해 차량을 지휘하게 된 박행삼 교사는 광주로 진격했으나 계엄군과 맞닥뜨려 협상 끝에 무장을 해제당했다.

이후 박행삼 교사는 광주로 끌려와 보안대와 서부경찰서의 혹독한 취조를 겪고 결국 교직에서 쫓겨났다. 훗날 교사에 복직하게 됐으며, 민주교사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관음사 · 증심사의 불자들과 원각사 불일학생회, 덕일사 고등학생 불자들도 5.18민중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 5.18정신 '민중불교운동'으로 본격 태동

**5.18항쟁, 불교에 미친 영향은**

**신군부 세력 요구 거절해**
**10.27법난 사태로 이어져**
**87년 6월 항쟁 적극 참여**

불교계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후방에서 지원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중앙 교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광주에 방문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신군부 세력이 요구했던 자율정화 지침 수용과 전두환 장군 지지 표명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그해 7월에는 어용불교단체였던 대한불교총연합회와 전한국불교회를 탈퇴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행보는 신군부에게는 걸림돌로 보였고 10.27법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합동수사단은 새벽 4시를 기해 월주 스님 등 153명의 스님과 신도를 강제 연행하고 고문했다. 10월 30일에는 군경 합동으로 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등 18개 종단 소속 사찰과 암자 등 5731개소를 일제 수색하고 1076명을 강제 연행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은 국가권력에 기대왔던 호국불교 담론에 대한 반성과 교단 개혁 · 불교자주화를 촉구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계기가 됐다. 1981년 초 진보적 불자들을 중심으로 '여래사운동(사원화운동)'이 전개됐으며, 스님과 재가 불자들이 모여 '청년불교도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래사운동'은 그 해 10월 불교 사회운동으로 규정돼 150여 명이 연행되고 핵심인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음으로 좌절하게 됐다.

하지만, 불교운동은 꾸준히 지속됐다. 1982년 대불련의 '한국불교 1600년 대회'가 시작됐으며, 1984년 지선 스님과 광주 불자들이 '무등민족문화회'를 창립했다.

특히 1985년 진관 스님, 성연 스님, 여익구, 고은, 최연 등 출 · 재가자 1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된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은 불교사회운동사의 한획을 그었다. 민불련은 창립총회부터 당국에게 불순단체로 지목돼 105명이 연행되며 출범했지만, 기관지 〈민중불교〉 · 회지 〈민중법당〉을 발행하며 불교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불련 핵심인물들이 1986년 5월 인천사태 주모자로 주목돼 구속 · 수배되면서 민불련은 퇴조하게 된다.

민불련의 민중불교운동은 1986년 6월 스님 221명이 참여해 창립한 '정토구현전국승가회'로 맥이 계승됐다. 이는 그해 9월 7일 해인사에 열린 전국승려대회로 이어졌다. 2000여 명의 스님이 참여한 승려대회에서 스님들은 10.27법난 진상규명과 불교재산관리법 철폐, 부천서성고문사건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故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1987년, 불교는 거리로 나섰다.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박종철을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최루가스 자욱한 거리에서 잿빛 승복 휘날리며 불퇴전의 기개로 시위를 벌이는 스님들이 등장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6월항쟁에서도 불교계는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을 외치며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이처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 이후 각성하기 시작한 스님과 불자들은 교단 개혁과 사회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통일 · 평화 · 환경운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결국 1980년 5월 광주가 불교계에 남긴 것은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의 정신이다.

신성민 기자


젊은 시민을 계엄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있다. 사진제공=5.18기념재단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4월 30일 ~ 5월 30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 기원
- 봉축점등식 : 5월 16일 오후 7시
- 봉축법요식 : 5월 30일 오전 11시

프로그램
- 연등전시(4월 30일~5월 30일)
- 연등콘서트, 체험, 연등사진전, 먹거리장터(5월 28~30일)
※체험 : 템플스테이, 연등길트레킹, 지화만들기, 연꽃만들기, 연등만들기, 다도체험, 염주만들기, 도자기만들기, 관불, 전통놀이 등
- 예능대회(5월 24일 오후 1시 당일 현장 접수)
※대상 : 초·중·고
※참가부문 : 글짓기, 그리기, 댄스, 시회
※시상 : 주지스님상, 시장상, 시의장상, 교육감상, 구청장상
※공연 : 마술 및 비눗방울 쇼



■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신도회 ■ 후원 : 부산진구청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051)808-7111~5 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새해 시작과 함께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그 여파로 세계 제3차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으로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하며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는 좋은 나무를 찾아 불교의 동량으로 보존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추천해주세요. 이웃사랑,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시는 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稀木不可雕也** 희목불가조야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美彫來自良木** 미조래자양목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

###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8**월 **31**일(월)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 상 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본부장, 조직 본부장, 심사 위원장,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현담, 김재은,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고정욱회장,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상영민, 최정연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찬** 현대불교신문사, 동국일보

# “산자여 따르라”… 불자들 5.18 기리다

## 5.18 민주화운동과 불교
### 5.18을 선양하는 사람들

5월 18일 국립 5.18묘역.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영산대재가 펼쳐졌다. 대령-관욕-상단권공-추모재로 진행된 영산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영산재를 봉행한 단체는 광주 무형문화재 제23호 (사)광주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로, 항쟁 이듬해인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9년 간 이어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봉행된 영산재에서 보존회원 스님 40여 명은 故 김동수 열사 묘역을 비롯한 항쟁 희생자들의 묘역을 돌며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보존회 회원으로 영산재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운천사 주지 법진 스님은 “39년 전 광주불교연합회에서 시작됐던 추모 영산재는 현재 (사)광주영산재보존회에서 맡아 봉행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영령을 종교를 떠나 추모하는 마음으로 매년 영산재를 열고 있다”면서 “올해

**지역 NGO들 매년 추모법회**
**12년 전부터 주먹밥 나누며**
**‘5.18공동체 정신’ 기리기도**
**태고종 스님들 영산재 봉행**

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 보존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추모 영산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 지역 불교계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법회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추모의 물결은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와 광주전남불교NGO연대(대표 도제)는 매년 5월 18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5.18민중항쟁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봉행하고 있는 추모법회는 희생자 추모와 함께 5.18정신을 현 시대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매년 주제를 선정해 열린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경’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이 ‘무엇이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이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망월동 묘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먹밥나누기 행사도 의미가 크다.

주먹밥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주먹밥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도로를 통제하며 광주를 고립시키자 시민군은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러자, 금남로 주변 재래 상인과 주부들이 나섰다. 이들은 가게와 가정에 있는 쌀을 들고 나와 골목에 커다란 솥을 걸고 밥을 지었다.

상인과 주부들은 흰 쌀밥에 소금 간을 하고 손으로 꾹꾹 눌러 정성을 다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전달했다. 계엄군의 봉쇄로 광주는 고립됐고, 5월 27일까지 도시의 치안과 행정이 모두 마비됐지만,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40여 곳에 달하는 금융기관도 멀쩡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연대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개최하는 ‘주먹밥 나누기 행사’는 12회를 맞이했으며, 올해에는 5월 17일 개최됐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대인·양동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보여준 주먹밥 나눔과 자발적 시민 헌혈 운동은 5.18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오늘 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5.18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이름을 써 내려간 금니사경 작품을 발표한 작가도 있다.

전통 금니사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향자 난원사경연구원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자신이 2년동안 제작한 초대형 감지금니 사경을 대중에 공개했다.

크기만 가로와 세로 2m에 달하는 이 작품은 738명의 희생자 명단을 순금으로 쓰고 변상도를 그려 넣었다. 변상도는 현재 일본 지은원에 소장된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를 모본으로 했다. 16관법을 통해 희생자들이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서방 극락정토로 가길 바라는 작가의 기원이 담겼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만큼 순금분·은분·진주분·석채 등 사경 재로도 최고급으로 사용했다. 사용한 물도 증류수를 사용했다. 2m에 달하는 작품을 제대로 작업하기 위해 연구원을 새로 개원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그가 이 같은 작품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작가 자신도 5.18의 참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향자 원장은 “당시 4살 난 아들을 데리고 도청 앞 소아과를 가던 중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계엄군의 곤봉에 무참히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것을 목도했다. 아이들 데리고 달리고 달려서 겨우 집에 왔다”면서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을 군인들이 트럭에 실어 어디론가 가는 광경을 보며 서러움이 복받쳤다. 나에게 5월 광주는 부채의식이었고, 2006년 석사학위를 받으며 작품을 구상해 2017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꽃 피우려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이름이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이들이 극락정토로 왕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서울에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구한 정신을 기리는 기도회가

**‘5.18항쟁 추모’ 사경 발표도**
**783명 희생자 金사경 ‘눈길’**
**2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
**정향자 원장 2년 간 제작해**

열리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18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광장에서 5.18 민중항쟁 희생 영령을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기도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5대 종교단체에서 추모 기도를 릴레이로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과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은 반야심경 봉독과 정근을 하며 5.18 민중항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혜찬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이는 지금도 부채의식으로 남았다”면서 “앞서 간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광주영산재보존회가 5월 18일 국립 5.18묘역에서 봉행한 영산대재. 보존회는 항쟁 이듬해인 1981년부터 지금까지 39년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주먹밥나누기 행사.


항쟁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정향자 원장이 항쟁 40주년을 맞아 공개한 금니 사경 작품. 738명의 희생자 명단을 순금으로 쓰고 변상도를 그렸다. 2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이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 | | | | | | | |
|---|---|---|---|---|---|---|---|
| 총무원장 | 석도선 | 교육원장 | 석남산 | 기획원장 | 석담허 | 어산장 | 석도암 |
| 법계고시원장 | 석일두 | 호법원장 | 석청강 | 의전원장 | 석법도 | 비구니회장 | 석경호 |
| 총무부원장 | 석대공 | 총무부장 | 석도흥 | 감찰부장 | 석성보 | 조사부장 | 석성도 |
| 수행부장 | 석보각 | 사회부장 | 석자광 | 사서부장 | 석성우 | 조직부장 | 석성각 |
| 종무부장 | 석법민 | 문화부장 | 석성원 | 포교부장 | 석보현 | 연수부장 | 석원희 |
| 총무국장 | 석성덕 | 지원국장 | 석해인 | 봉사국장 | 석성호 | 포교국장 | 석혜진 |
| 포교국장 | 석법정 | 포교국장 | 석성원 | 의전국장 | 석균중 | 수행국장 | 석성탁 |
| 종무국장 | 석성안 | 문화국장 | 석원종 | 의식국장 | 석성혜 | | |
| 비구니부회장 | 석효성 | 비구니부장 | 석지현 | 비구니국장 | 석충효 | | |

| | | | | | | | |
|---|---|---|---|---|---|---|---|
| 제주중앙종무원장 |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 석성만 | 성주중앙종무원장 | 석홍재 |
| 칠곡중앙종무원장 |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 석선학 | 포항중앙종무원장 | 석체법 |
| 영주중앙종무원장 |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 석도명 | 천안중앙종무원장 | 석함월 |
| 시흥중앙종무원장 |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 석일지 | 태백중앙종무원장 | 석일현 | 김해중앙종무원장 | 석천각 |
| 문경중앙종무원장 | 석정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 석진공 |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 | |
|---|---|
| 회장 | 학산(이종길) |
| 부회장 | 진불심(이순임) |
| 총무 | 대각심(김경숙) |
| 임원 | 혜명심(박현숙) |
| 임원 | 보덕심(박경남) |

종립종합예술원

| | |
|---|---|
| 원장 | 묘각(이재인) |
| 부원장 | 혜담(이정민) |
| 국장 | 불심화(정형숙) |
| 무용 | 무애심(박순애) |
| 연출 | 원각심(도지연) |

법사승 임원

| | | |
|---|---|---|
| 경남원장 도혜 | 충북부장 상학 | 청주부장 혜원 |
| 울산원장 법광 | 부산부장 혜성 | 전남부장 혜명 |
| 경북원장 성인 | 경기부장 자운 | |
| 법사원장 목암 | 구미부장 혜진 | |
| 홍보부장 원명 | 대구부장 혜련 | |
| 경남국장 성광 | 포교국장 청운 | 삼척국장 정허 |
| 사업국장 소현 | 통영국장 덕인 | 영천국장 원명 |
|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림 | 통역국장 정연 |
| 종무국장 도연 | 봉화국장 혜정 | 포교국장 혜경 |
| 서울국장 명덕 | 화순국장 보정 | |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봉 부처님오신날 축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 | |
|---|---|
| 총무원장 | 이문덕 |
| 총무부장 | 이월장 |
| 교무부장 | 방경혜 |
| 교육부장 | 정장호 |
| 재무부장 | 정월중 |
| 사회부장 | 정도웅 |
| 규정부장 | 김갈수 |

**원로원**

| | |
|---|---|
| 원로원장 | 전운덕 |
| 원로간사 | 주정산 |

**종의회**

| | |
|---|---|
| 종의회의장 | 김도원 |
| 종의회부의장 | 김세운 |
| | 김우영 |

**감사원**

| | |
|---|---|
| 감사원장 | 조진덕 |
| 감사위원 | 곽수산 |

**종정 사서실**

| | |
|---|---|
| 사서실장 | 박덕수 |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어려울수록 하나 되는 우리,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 꽃피길 서원합니다

| | |
|---|---|
| 총 인 | 경 정 |
| 통리원장 | 회 성 |
| 종의회의장 | 효 원 |
| 현정원장 | 법 정 |
| 교육원장 | 덕 정 |



---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 時時마다 부처님 마음 處處마다 건강한 세상

종 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법경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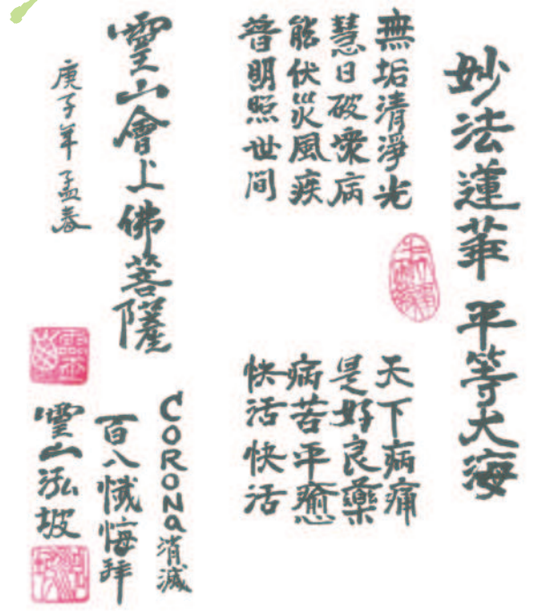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

## 묘법연화 평등대해




無垢清淨光 (무구청정광) 티없이 맑고 깨끗한 빛이여
慧日破衆病 (혜일파중병) 지혜의 빛으로 모든 병을 다 파하고
能伏災風疾 (능복재풍질) 바람처럼 일어나는 모든 질병 항복받아
普明照世間 (보명조세간) 넓고 밝게 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天下病痛 (천하병통) 하늘아래 모든 병과 고통을
是好良藥 (시호양약) 좋고 좋은 양질의 약으로
病苦平癒 (병고평유) 병의 고통을 평탄하게 하여
快活快活 (쾌활쾌활) 기쁘고 환희롭게 하도다!

경자년 맹춘
'코로나 19' 소멸
백팔 참회하며 엎드려 절합니다.
낙산 묘각사 영산 홍파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

# 韓國佛教太古宗

**僧正院**

**僧正** 德化,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祥明
次席副議長 慧日

護法院長 智玄
副院長 觀正
委員 知輪, 玉山, 正岩, 虎山, 清山, 鏡月

初心院長 九山
副院長 晩愚
委員 圓悟, 明願, 摩那, 智行, 慧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月峰
副委員長 法蓮
委員 凰峰, 法一, 智海

종도일동

**總務院長 虎溟**

副院長 慧惺 眼空 震海 圓宗 峰
總務部長 善道 正晴 峯法 心道 智弘
教務部長 眼京 周完 眞常 완윤
弘報部長 김동승
社會部長 이승윤
糾正部長
傳法師部長
宗務委員長
司書室長
宗策委員長
委員一同
教育院長
布教院長
法規委員長
社會福祉院長
東邦大學長
全國信徒會長
青年會長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02)739-3450 팩스(02)739-3470

# 제각각 색과 향으로 법의 꽃 피우세

## 인류의 화합을 위해서 공생의 연등을 켭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 태중(胎中)에 잉태하사, 10개월 후 오른 쪽 옆구리로 금빛 몸을 나투셨도다.

사방으로 성큼 성큼 일곱 걸음 한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 (天上天下 唯我獨尊)

장하고 장하십니다.

부처님의 강생(降生)은 법계만유의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시현(示現)입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의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인류의 화합과 공생(共生)의 연등(燃燈)을 켭시다.

금년, 전(全)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대처(對處)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고 과학기술의 무력(無力)함이 드러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로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인간과 자연, 유정과 무정이 우리와 유기적(有機的)관계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와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모든 인류들이여!

나고 날 적마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 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이 지속되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밝은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경영에 앞서가고 진리의 지도자가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생이 될 것입니다.

필경에 부처님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자 할진대,
이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천봉과 만 봉 속으로 들어감이로다.

## 화해와 소통의 새날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태양은 마냥 동녘을 밝힙니다.

오늘도 부처님 오시는 날
천지 어둠을 아침 햇살이 밝히듯 부처님을 맞아 사회의 어둠을 밝힙시다.

대지는 여전히 초목을 키우고
세상은 그렇게 뭇 생명의 놀이터입니다.
중생이 탐욕과 오만을 깨달아 참회하고
청청본성을 밝히면 주객은 저절로 어울리고
뭇 괴로움은 흔적을 감추어 안락이 깃듭니다.

남의 탓 앞서서 내 허물 고치고
내 자랑보다 남의 칭찬 먼저 합시다.
이념대립과 정쟁(政爭)이 혼란을 부추겨도
화쟁(和諍)으로 품어 안고 상보(相補)하면
세간사 중생고(衆生苦)도 정토로 돌아갑니다.

## 화엄불국토로 장엄해 나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나라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룸비니 동산에서 시작된 봄소식은 온 천하를 꽃피웠습니다. '괴로운 세상을 평온하게 하리라(三界皆苦我當安之)' 는 탄생일성은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윤달 4월 초파일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한 모든 것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불교계는 공의를 모은 끝에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교계의 최대의 축제인 연등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윤달 4월 초파일에 법요식을 봉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서 윤달 4월 초파일까지 스님들은 절에서, 신도는 가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았던 결정들은 부처님의 탄생게에 입각한 모든 불자들의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의 봉축법요식은 온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세계가 성취될 것입니다.

## 동고동락으로 코로나 극복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내시느라 얼마나 어려움과 노고가 크신지요. 그래도 묵묵한 마음과 꿋꿋한 정신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정신에 부처님의 명호로 무한한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계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코로나19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자는 마음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과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해보다 뜻 깊고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3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하고 탄생게(誕生偈)를 읊으신 것도 결국은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자는 데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맑게 소멸돼 경제회생과 함께 국민 모두가 이고득락(離苦得樂)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봉축 환희로 일체질병 소멸하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코로나 19' 의 고통이 있는 곳에 부처님 오신 뜻이 더욱 밝게 전해지고, 경제불황과 대립 갈등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더욱 분명히 전해지도록 오색등을 높이 들고 칠보등을 장엄합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일체중생이 원만 덕상을 구족 하였음을 설하시고, 만 생명이 청정한 법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방세계가 부처님의 국토요 육도중생이 부처님의 분신이니, 우리 사는 이곳이 보리도량이요 우리 사는 이 순간이 성불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병의 공포로 어수선하지만 부처님 정법은 오히려 오탁악세를 향해 더욱 밝고 우렁찹니다.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을 밝히고, 삼악도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을 펼치며 일체중생의 복락과 해탈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합시다.

중생이 아픈 곳에 보살이 아프고 보살이 아픈 곳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 더욱 뚜렷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개고 아당안지' 의 탄생게가 바로 그 뜻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병고가 사라지고, 일신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성취되니 우리 모두 오색등의 마음 밝혀 시방삼세의 무명을 걷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일체 질병이 소멸하고,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 서원과 정진으로 탐진치 물리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았지만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축의 환희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감염자를 양산하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울함에 갇혀 꽃 대궐, 봄 마중을 할 계절마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전통 봉축행사도 한 달여나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때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손길을 서로서로 내밀었습니다.

극한의 위기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돕는 마음으로 희망을 싹틔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키운 새 희망은 점점 더 밝은 빛이 되어 보다 넓은 세상을 비추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길이 됐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합시다.

우리들의 서원과 정진으로 탐진치를 물리치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을 열어갑시다.

## 덕성 넘쳐 해탈 기쁨 즐기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없는 자비와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무명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 구족한 지혜를 인간의 몸으로 열어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스스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고통의 물길을 건너서 무명의 바람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상생의 이해와 즐거움이 넘치고, 장도(長途)의 걸림 없는 부처님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 우리들에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 되게 하소서!

불자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움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성이 넘치도록 하여 해탈의 기쁨을 알아 갑시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진리가 따로 없듯이 산하대지가 참 생명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대천세계가 법신체이며 우리들의 본래면목입니다.

##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오십니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오심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니다.

세상을 자비로 거두시는 여래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오십니다.

윤회와 생사의 세계는 불난 집과 같아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니
고통 속에서도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끈질긴 집착과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임을 깨달아
인연으로 만난 중생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연꽃 피워내는 보살의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불심으로 견디며 세계평화와 국운 융창을
정성을 다하여 발원하며 기쁨과 감사의 연꽃 등 밝혀
거룩하신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 실천서원으로 정진합시다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사랑 · 나눔 · 행복 ·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불교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대자비의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慈)는 한량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요, 미워하거나 성내지 않는 마음이며, 비(悲)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오,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자비심의 꽃으로 온 세상을 장엄한다면 이 자리가 불국토요, 화엄의 세계요, 극락정토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이웃에 자비의 꽃을 피워야하겠습니다. 대자비심을 발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진정으로 봉축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예토(穢土)의 세계를 대자비심의 정토(淨土)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라는 사상(史上) 유래 없는 사태로 지구촌 인류가 거의 동시적으로 생사의 불안과 공포를 겪으면서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이고 모든 유형무형의 생명체가 하나라는 절실한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同體大悲思想)이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오늘부터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깊히 되새기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가르침과 실천만이 앞으로 인류가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대안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큰 위안이 되고 휴식처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에 가득차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으로 화하여서 일체중생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연등이 치유와 극복의 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불자들이 동체대비의 등불을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일상에서 배려와 양보, 자상함과 용서, 이해와 화합, 동정과 따뜻한 위로, 응원과 칭찬, 존중과 선심(善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원만구족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부처님 닮아가는 불자의 삶

**세계불교법왕청 우꾸마라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금년 부처님오신날은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모든 중생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앞서며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봉축법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성취 했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만족하고 살고 있나로 얻어집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로 불자 한사람 한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자신의 거짓된 허상을 참회하고 아상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매사 긍정과 감사의 맘으로 넓은 세상을 봅시다.

##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생의 길 함께 하자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코로나19는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물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물든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생멸하는 중생계의 실상이니, 오직 인간들의 지혜로운 용기와 타인과 자연에 대한 자비심만이 두려움과 어두움의 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길로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구촌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 드립니다.

## 세계 팬데믹의 종식을 기원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개개인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 요즘, 신뇨엔은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떠올릴 단 하나의 믿음. 바로 '南無眞如' 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깃드는 마음의 빛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감염병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힘은 '지혜' 이며, 국경이 닫혀 왕래가 끊겨도 배려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것이 '자비'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갑시다.

## 일체중생 지혜로 태어나고 자비로 축복 입은 날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날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무분별한 삶이 만들어 낸 질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찬란한 연등이 시대의 고통을 소멸하는 지혜의 빛으로 타오르고, 우리가 세우는 불퇴전의 세월이 탐진치 삼악도를 물리치는 대자대비의 행원이 되길 바랍니다.

##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굳게 뭉쳐야"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집 · 편견 · 과욕에 의한 갈등 · 불화 · 자멸의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비와 평등 그리고 화합하는 부처님 마음이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코로나19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오늘날 국내는 물론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는 병마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불러온 크나큰 죄업으로 자신들의 탐욕에 물들어 운명공동체로 하나로 돌아감을 망각한 채 저지른 죄업임을 깊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도 보살행을 실천해 가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도록 발원합니다

## 부처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 고통서 벗어나길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부처님오신날을 원융종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불자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밝힌 연등의 공덕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 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하며, 나와 가족을 넘어 지구촌 모든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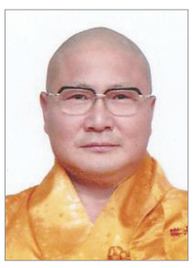
**(사)한국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우리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무애의 공간속에 해탈의 삶 살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우리 사문들은 이제 걸림 없는 해탈의 삶을 경작하자.
사문들이 시대적 불교의 진아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안일과 영락을 위해 현실과 야합한다면 수행자의 실상을 누가 사표로 삼을것인가?
사물들이 인간에게 애정을 보내고 삶에 집착할 때 본래 회귀란 공념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문들은 자기가 지닌 애착과 번뇌의 녹성을 버리고 고통에 물들지 않는 자재인으로 청정무구한 진여의 삶을 경작하자

## 천천히 가더라도 보살이 되소서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것
보리심을 갖는것
복을 얻고자 하는것
보살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다 사람을 사랑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진등, 나 하나의 등불로 빛이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시다.
건강하십시요. 성취하십시요.
천천히 가더라도 보살이 되소서.

## 이땅위에 정토실현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불기 2564년 4월초8일은 부처님께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모든 생명 건지고자 이 땅 위에 오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다같이 등불 밝혀 봉축하고, 거룩하신 가르침 봉행하여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본래 청정했던 참 마음 되 찾고 자비로운 마음이 시방세계에 하얀 연꽃처럼 피어나 다시는 더럽혀 지지 않는 불국정토가 이 땅 위에 실현 되여 감염병(코로나)을 극복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본래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자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 마음의 번뇌를 버립시다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며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경자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 지혜와 자비로 등불 밝히면서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라
영원토 록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광명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진리 추구하며 참되게 삽시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전대행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 이웃과 나누며 함께 하는 세상을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여느 해와 다를 것 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받들고 배우는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받는 생로병사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 위함이니 현재의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으로 일류공동체로 다 같이 사는 삶을 망각한 현재의 업보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고 다같이 극복합시다.

## 부처님 오신날은 영원한 오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우리에게 귀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인연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오신날' 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마음의 귀의처로 안식처로 중생심이 살아지고 자성신의 불성에 귀의하는 것이 됨으로써 곧 스스로 자비광명 비추는 축복일 것입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신날로 영원한 오늘입니다~

## 지극한 믿음과 마음으로

**(사)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이 중생의 마음으로는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한 듯한 작금의 상황이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하게 되고 내 가족은 물론 인연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내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공부이며 수행이라 여기 십시요.
단지 부처님께 의지하려고만 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 지극한 믿음과 마음으로 귀의하고 정성을 올리는 것이 곧 부처님 자비의 빛이 스스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 이사장 현 담

총무이사 **인각**　교무이사 **만법**　재무이사 **대전**
교육이사 **도각**　포교이사 **법공**
총무국장 **현무**　교무국장 **선행**　재무국장 **자은**
교육국장 **현덕**　포교국장 **자경**

이　　사 **화산 경월 법광 연지 정혜 법성 법혜**
감　　사 **대성 혜원**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大本山 **약 사 사**
(약사사추모관운영)
신도일동

**희망다문화협동조합**
회원일동

재단법인 **화 엄 승 가 장 학 재 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범해 대화**　총무원장 **김만혁**　종회의장 **김대운**
**부종정 도관 지신**　사　서 **해 인**　종회부의장 **구원각**
사　서 **경 산**　**이수혜**

**원로원**
원로원장 **박대월**
원로의원 **김대원 이관곤 이대봉 김대광 김지선**

**각원장**
교육원장 **박태허**
연수원장 **유성준**
감찰원장 **김서호**
고시원장 **강만공**
복지원장 **심지연**
포교원장 **황현문**
염불원장 **박해수**
문화원장 **허성각**

**총무원**
총무부장 **정법성**
교무부장 **안자관**
재무부장 **김성문**
감찰부장 **이지호**
사회부장 **강정오**
포교부장 **김용담**
복지부장 **이혜원**
조직부장 **채원광**

**각교구원장**
강원교구원장 **지진묘**
경북교구원장 **이혜형**
부산경남교구 **정지명**
대전종무원장 **최지천**
충북종무원장 **박대월**

**종회의원**
**정법성. 이심공. 이도광. 김해인. 이성광. 엄만일. 김광덕. 김성인. 김성문. 유관공. 강정오. 안가관. 김용담. 이혜원. 이지호. 채원광. 박부용. 한지효. 배지명. 박해동. 신대광. 김한명화. 신청련행. 권진광명**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40길 67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승정원장 **향운**
승　　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보봉**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혜인**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교육원장 **남륜**　교육부원장 **법지**　기획원장 **성각**
기획부원장 **여송**

각 교구 종무원장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서울·경기 종무원장 **천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충　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대구·경북 종무원장 **혜송**

중앙종회 종회의원 **도우 보명 묘현 일선 성현 성화 성각 혜원 정연 혜관 응진 지연 지화 자원 해불 해산 성덕 해인 도암 보광 혜인**

종도일동

총무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043-878-0109 / 팩스 043-878-0103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만해불교대학 일승보살회**
**매월 1, 3주 토요일 특강기도**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　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인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1 -595-6522, 010-8939-6522

# “행복 · 불행은 마음이 쪼개놓은 것 …

## 봉축특별대담 : 간화선을 묻다

### 의정(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 각산 스님(참불선원 선원장)

유래 없는 부처님오신날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힘겹다. 유래 없는 생과 사. 이 무명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또 이 시절을 기적처럼 끝낸다 해도 다시 유래 없는 시절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이 암담한 시절의 유래가 없듯이 또다시 유래 없는 암담한 시절이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의 일이 단지 오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 암담한 시절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일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의 답을 구해본다. 산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선지식과 도심 한가운데서 오늘을 겪고 있는 선지식이 한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3일 경기도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의정 스님과 각산 스님에게 물었다. 어지러운 오늘, 이 땅의 불교가 걸어야 할 길과 이 땅의 사부대중이 살아가야 할 오늘을.

〈편집자 주〉



禪은 21세기 정신문화 대안
간화선이 명상계 이끌어야
코로나, 물질만능주의 폐해
선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어



참선 · 명상 진면목 간화선
참선지도자 양성 우선과제
코로나, 우리가 자초한 일
행복은 번뇌로부터 나온다

**의정 스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서구문명의 이분법적인 사유체계의 한계성 직면으로 동양의 사유 세계에 관심 높아져”



**각산 스님**
참불선원 선원장

“현재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業 모양 달라지는 일이며, 수행은 삶의 모양도 바꿔줘”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 정리=박재완 기자

**Q.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하 협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의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의정 스님**=21세기 정신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선(禪)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뜻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재 수좌회 스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각산 스님, 마가 스님 그 외 참선과 명상하는 분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명상이 큰 방향성 없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쪽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은 생각들은 간화선이 중심을 잡고 명상 전반을 포용해야지만 간화선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명상도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업화 되어가는 명상 부분을 포용하는 것이 선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산 스님**=현재 협회는 30여 개 단체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 있는 단체와 스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을 인정하는 단체기 때문에 앞으로 200여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화선이 코끼리의 발자국입니다. 간화선은 모든 수행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해서 선정을 이루는 수행법이 참선 또는 명상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참선 · 명상의 진면목을 보여준 수행법이 간화선입니다. 여러 경전을 통해 봐도 간화선만한 수행법이 없다고 봅니다. 협회는 실참이 되어있는 스님들을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협회의 프로그램 진행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산 스님**=참불선원에서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4강좌, ‘참선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선아카데미는 의정 스님과 선원장급 스님들, 재가자가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강남구청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참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산 스님**=필수적으로 참선아카데미 과정을 마쳐야 하고요. 각 단체에서 1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현재 2급 과정을 마친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1급 과정은 2급 과정과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마쳐야 합니다. 내년 8월 중으로 200~300명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협회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정 스님**=선이 대중화 되고 세계화 되기 위해선 반드시 좋은 지도자(중간 지도자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선원장급 스님들은 각자 소임으로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수행자 스님들이 맡아주시고 일반적인 선명상 포교는 재가와 승가 관계없이 중간 지도자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원수좌회에서는 앞으로 승가 위주의 중간 지도자 양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하겠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Q.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되면 참선 명상이 대중화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정 스님**=선원수좌회에서 세계 30여 곳의 선센터와 명상 센터를 돌아본 결과 선과 명상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붐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자가 길러진다는 것은 참선과 명상의 저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명상센터가 3천여 곳에 이릅니다. 그것은 미국이 앞으로 인류의 정신문화까지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과 명상이 인류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많은 선명상지도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이를 볼 때 많은 지도자 양성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도 세계화라는 과제를 겨냥해서 중간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 등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도자 양성으로 인해 지도자의 저변이 넓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정 스님**=인류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문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선과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불교의 선이 인류의 정신문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구문명의 이분법적인 사유체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서구문명이 그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서구의 문명은 이론화된 동양의 사유체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 · 정 · 혜’ 삼학에 뿌리를 둔 결이 다른 사유와 깨달음의 불교와 간화선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인류에게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의 입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Q. 현재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성되는 지도자(마스터)의 수준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산 스님**=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동안 수행에 전념해온 수좌들의 강좌이고, 체험을 포함한 집중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1급 과정에서는 〈육조단경〉 〈금강경〉 〈맛지마니까야〉를 통독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론뿐만 아니라 수좌회의 실참에 바탕을 두고 실참 위주로 교육하고 있고, 정혜쌍수를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의 선, 명상센터들을 많이 보고 오셨는데, 해외의 선 · 명상 관련 마스터(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의정 스님**=마스터들은 선센터나 명상센터를 찾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지도를 합니다. 때문에 선과 명상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과 명상은 지도자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법이고 그 마음의 길은 수없이 많은 것이어서 오롯이 한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본(체험) 사람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 일 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 선명상인 간화선이 인류 구원할 답”



산중의 의정 스님과 도심 한가운데 각산 스님이 유래없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힘겨운 오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가지 않고 한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마스터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대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 스님=**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물질문명의 폐해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념에서 비롯된 폐해도 역시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정신문화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간화선이 그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물질만능의 폐해에 대해 많은 생각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물질문명은 위험한 것이며, 물질로 채워지는 만족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겹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래 행복과 불행은 없습니다. 마음 안에는 행복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쪼개 놓은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니까 늘 불행한 것이죠. 마음이 짓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수행을 하면 그렇게 둘로 나뉜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행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망상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인류의 삶이 점점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물질에 천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에만 천착하면 인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반면 정신문화는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사회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 이기주의가 개인 이기주의에서 시작해서 사회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로 확대되면서 인간의 삶은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정신문화를 키우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선문화를 통해서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롭고 행복한 인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 선문화가 앞장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고, 선문화에 관심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수행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수행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행복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각산 스님=**천재지변에 가까운 이 힘든 시절에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외적(물질적)인 어려움과 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때, 내적인 정신적 어려움은 대중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만족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이 선의 세계입니다. ‘선=간화선’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중적 용어로 ‘참선명상’ 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확철대오’가 아니더라도 정혜쌍수를 쌓다보면 자신의 에고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을 ‘겪는 것’ 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죠. 할 수 없이 겪는 것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업의 모양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오늘의 사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일입니다. 그것을 괴롭게 ‘겪을 것’ 인지, 그 괴로움을 ‘받아들일 것’ 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삶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쉬운 말로 ‘마음먹기 달린 것’ 이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알아차림’ 을 본능으로 하는 선의 정신입니다.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절입니다.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받아들이다보면 괴로움이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번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Q. 2018년 공사를 시작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2021년 10월 완공예정인데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완공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 스님=**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처음 계획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정됐던 정부지원금이 줄어든 관계로 규모를 줄여서 개원을 하고 후에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수용 규모를 300명 규모에서 150명 규모로 축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선원(하 · 중선원), 웰컴센터(사무, 식당, 차체험실 등 부대시설), 선센터와 숙소 등이 주요 건물입니다. 숙소 증측과 상선원, 무문관 등은 점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꾸띠(개인 수행시설)도 지을 것이고, 방사는 1~2인실을 많이 지을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간화선과 명상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행시설입니다. 기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중이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양성된 중간지도자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Q. 한국불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좌들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국불교와 간화선이 더욱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정 스님=**그래서 문경 세계명상마을도 짓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중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선명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단 차원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좌들의 위상과 역할이 예전만 못한 것은 주요 요직의 조건에서 ‘수행’ 의 의무가 점점 작아지는 등 제도적 구조와 종풍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행의 중요성이 작아짐으로 해서 수좌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것이 외적인 요인이라면, 열악해진 수행풍토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산 스님=**템플스테이가 한류문화의 하나로 잡은 것처럼 간화선을 한류의 이름으로 알리는 노력도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체험한 대중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인 간화선을 알리는 것입니다. 간화선의 세계화가 곧 한국불교의 세계화인 것이고, 그것이 한국불교의 중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의 가장 깊은 뿌리가 간화선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Q. 출가자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의정 스님=**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가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불교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선문화복지회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영어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수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출가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산 스님=**남방 쪽 불교국가에서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입니다. 만 명이 참여하면 천 명 이상이 출가를 합니다. 우리도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도 않고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도 방향을 바꿔서 (단기)출가처를 늘리고 무료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고 출가의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가 고행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임을 체험하고, 불교를 통해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출가의 확률은 늘어날 것이고 출가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절인데 선명상 수행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의정 스님=**좌탈입망 등 역대 조사들의 자유자재한 죽음을 볼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신 있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다음 생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선 수행은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했듯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수행은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각산 스님=**정법을 만나지 못한 대중은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법을 만나고 선수행을 닦는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에 죽음에 대한 설법은 많습니다. 불교를 만난 사람은 죽음을 맞아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수 정 사

회 주 백성 문인 대종사
주 지 귀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420번지
Tel 054)832-7913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 불.법.승 ◈

## (宗)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법경**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성. 법공. 용인. 보각. 해곤. 평산. 도오. 지일. 해봉**
외 각원장(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송. 지원. 청광. 정륵**
(전국 16개 교구)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 (사)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당 석 청봉**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 원로원장 **석보행**, 원로의장 **석덕오**

**원장의회**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원명**,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장 **석월오**,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장 **석유심**,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원장 **석지혜**, 총부부장 **석화성**
교육부장 **석현법**, 사회부장 **석성현**, 재무부장 **석법주**,
정보부장 **석정해**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석법오**, 경남마산 종무원장 **석법경**,
경남진주 종무원장 **석법원**,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대구종무원장 **석현승**,
강원종무원장 **석담행**, 충남종무원장 **석진공**,
충북종무원장 **석지우**

대중일동

■ 총본사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천성사 불광사 055)364-4747

##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법 경** 방장 **지 선**

명예종정 **혜 원** 장로의장 **법 정**

총무원장 **법 성** 종회의장 **법 륜**
문화원장 **혜 관** 포교원장 **보 덕**
교육원장 **도 원** 사정원장 **지 산**
문화부장 **해 운** 비구니원장 **진 언**
재무부장 **성 본** 비구니부원장 **무 상**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팩스 053)322-0567

## 사단법인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포교원장 법전 법현

교 육 원 장 법기 무여
고 시 원 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경북종무원장 탄영

서울종무원장 심우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기종무원장 혜암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재무부장 제봉

사회부장 진성
연화부장 정혜

호법부장 진각
문화부장 공덕

포교부장 태천
교무부장 진문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30-4번지 **천연암**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천태종

## 우면산 관문사

주지 이월장



재 무 이법기
부 전 전선관
거사부전 박심원

사부대중 일동

[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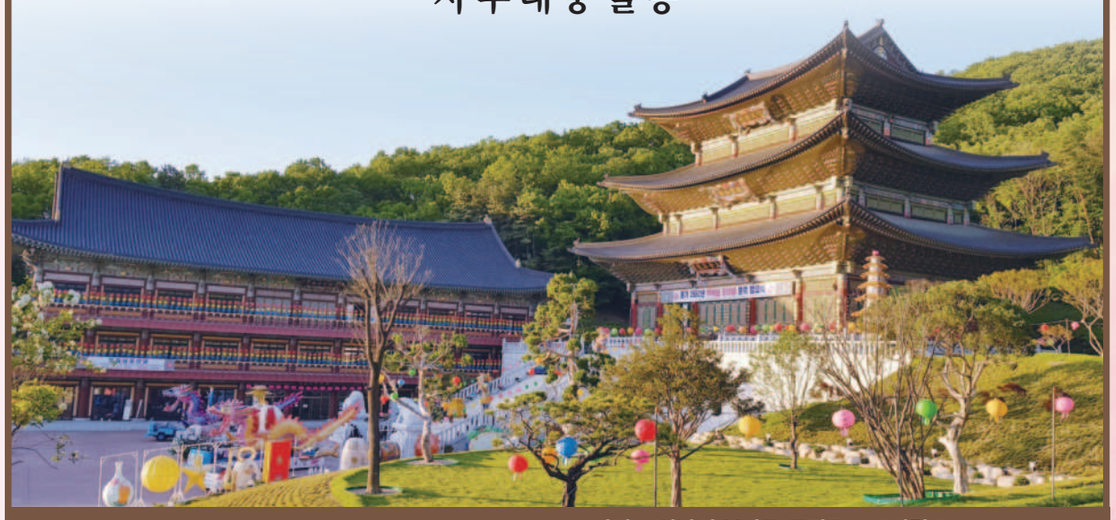
(우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

---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분당 **대광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불곡산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 지 **벽암지홍**
신도회장 **정광자 김희남**

사부대중일동



우.143332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 58(소하2동 341-2) Tel 02)898-8200 Fax 02)898-1844 www.sejon.org

---

대한불교천태종 **삼룡사**

주 지 **춘 광**
신도회장 **김용규**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1시 **법화경 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Tel 02)496-3839

---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

# 홀로 밝아 뚜렷이 듣는 자



##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㉑ 무위진인(無位眞人)

"여러분!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아 뚜렷하게 듣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시방을 관통하여 삼계에 자유자재해서 일체 차별된 경계에 들어가도 달리 바뀌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오. 한순간에 법계를 뚫고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오.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를 말하며, 어느 곳이든지 가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한다오. 그러나 일찍이 한 생각도 떠나본 적이 없소. 가는 곳 어디서나 청정하고 빛이 시방세계를 비추니 만법이 한결 같소이다."

이 장의 법문은 이른바 무위진인(無位眞人)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이다. 지금 눈앞에 홀로 밝아 뚜렷이 듣고 있는 자가 바로 무위진인이다. 임제의 법문을 듣고 있는 자, 임제를 보고 있는 자가 오음색신(五陰色身)으로 된 사람이 아닌 무위진인이라는 말이다. 무위진인은 임제가 특별히 내세운 말이다. 〈임제록〉은 무위진인을 설한 법문이다.

임제가 법을 설하면서 대중을 향하여 듣고 있는 것, 곧 마음을 '이 사람'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법신(法身)이다. 이 법신을 다른 장에서는 무위진인이라 했다. 이 무위진인은 찾으면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다 차지하여 없는 데가 없다. 〈능엄경〉 '칠처징심장'이야기처럼 몸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몸 밖에도 있지 아니하여 있는 데가 없지만 오온, 십이처 등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 하였다. 나고 죽는 생사마저 벗으나 이미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것이다. 이것이 시방을 관통하여 한순간에 법계에 들어가 자유자재하다 하였다. 하지만 횡변시방(橫徧十方)이요 수궁삼제(竪窮三際)인 심체(心體)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는 것이다. 마음이 시방법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교화의 방편상 무위진인이 세간법에 따라 작용을 할 때는 부처의 입장에서 부처를 설하고 조사의 입장에서 조사, 나한의 입장에서 나한, 나아가 아귀의 입장에서 아귀를 설하지만 심체의 광명이 한순간도 이탈함이 없이 어디서든지 청정하여 시방을 비춘다고 하였다.

부처의 근본이 광명으로 표현되는 것은 부처의 본체인 법신 비로자나가 바로 광명이기 때문이다. 비로자나(毘盧遮那 · Vairocana)를 의역으로 바꾸면 광명변조(光明徧照)이다. 〈화엄경〉에서는 주불 비로자나불이 10번을 방광(放光)하는 장면이 나온다. 빛을 놓은 이것이 곧 설법이다. 광명 속에 부처님 세계가 펼쳐지고 보살들이 나타난다. 비로자나불의 국토인 화장세계가 빛의 세계이며 이 빛의 세계 안에 불찰미진수의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전개되면서 층층이 향수해(香水海)가 이어지는 장면들이 설해져 있다. 중생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의 마음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본래 중생의 마음이 지혜의 광명이고 자비의 광명이어서 이를 통해 자리이타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마음을 달에 비유해 설한 법어들도 많이 전해진다. 심월(心月)이라 하여 수행이 높아질수록 더욱 밝다는 것이다.

당나라 때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가 있었다. 마조도일의 제자로 알려진 스님인데 일설에 생몰연대를 720~814로 보기도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전등록〉에 보적의 송구가 전해진다.

心月孤圓 마음 달 둥글게 솟아
光吞萬像 그 빛이 삼라만상을 삼켜버리네
光非照境 빛이 경계를 비추지 않고
境亦非存 경계 또한 있는 것도 아니라
光境俱亡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復是何物 이건 또 무슨 물건인가?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가 모두 마음의 세계이고 마음의 세계는 바로 빛의 세계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 결국 모두 일승으로 돌아간다

〈一乘〉



## 세상 속 경전읽기

㉑ 삼계화택(三界火宅)

문 밖에서 내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할까? 옛날에 큰 부호가 문 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 사면에 불이 나 활활 타고 있는데, 집안에는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다.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매우 급하다. '나는 힘이 세니 옷상자에, 또는 책상자에 아들들을 담아서 들고 나오자' 고 생각해본다. 그러다가 '좁고 유일한 문을 통해 나오다가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아이들에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어 무섭다는 말을 일러 주고,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고 생각하여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애가 타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지만, 어린 자식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서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동서로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내 이제 방편과 수단으로 자식들로 하여금 이 화재를 면하게 하리라' 고 생각한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외쳤다. "양이 끄는 수레[羊車],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 소가 끄는 수레[牛車]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 가져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자식들은 앞을 다투어 불붙은 집에서 뛰쳐나와 "아버지께서 주신다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대부호는 세 가지 약속한 수레 대신에, 온갖 보배로 장식된 흰 소가 끄는 큰수레[白牛車]를 모두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상은 〈묘법연화경〉 제3 비유품에 나오는 삼계화택의 비유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는 각각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三乘)을 말한다. 화택(火宅)에서 무사히 탈출한 아이들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수레 대신에 붓다께서 주신 수레는 백우거(白牛車)이다. 백우거는 일불승[一佛乘, Skt. eka-buddha-yāna.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말한다.

세 가지 수레 대신에 백우거를 주셨다는 비유의 뜻은, 붓다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이전에는 성문 · 연각 · 보살의 삼승(三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였지만 그것은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모두 일승(一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를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 표현하고, 이는 〈법화경〉 28품 가운데 앞 14품의 요지를 드러낸 말이다.

일체 세간의 아버지[四生慈父]인 붓다께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괴함과 고뇌와 근심과 무명과 어둠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였고, 큰 신통력과 큰 지혜력이 있으며, 방편과 지혜의 바라밀다를 갖추어 대자대비에 항상 게으름이 없으며, 항상 선한 일로 일체를 이익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붓다께서는) 썩고 낡은 삼계(三界)의 불타는 집에서 태어나셔서 중생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통하고 고뇌하며 어리석고 어둠에 가린 3독(毒)의 불에서 제도하려고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妙法蓮華經 T0262_.09.0013a16-18〉

〈묘법연화경〉에서 삼계[三界, 중생이 생사왕래(生死往來)하는 욕계 · 색계 · 무색계]가 무엇으로 불타고 있다고 하였는가? "생노병사우비고뇌(生老病死憂悲苦惱)와 삼독의 불[三毒之火]로 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초기 핵심경전의 하나인 〈연소경(燃燒經)〉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연소경〉의 뼈대에 풍부하게 살을 붙인 것이 〈묘법연화경〉의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닦음의 길 7

# 죽음, "無常 無我"

몇 해 전 불교대학에서 '죽음명상' 이라는 과목을 설강한 적이 있다.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목을 도입한 목적은 분명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진지하게 성찰해보자는 의도였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실존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음' 이라는 단어 자체를 찜찜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죽음명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겼다. 교리적으로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도 죽음이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다. 앎과 삶, 이론과 실제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수행으로 백골관이 있었다. 죽은 시체가 백골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삶이 무상과 무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수행이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화장을 하지만, 가난해서 장작을 구할 수 없는 천민들은 시체를 그냥 숲속에 버리곤 하였다. 그러면 산속에 사는 동물이나 새들이 시신의 살을 뜯어먹고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게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것이 무상이고 무아구나!' 라는 깨달음이 다가온다. 머릿속의 앎과 실제적인 삶의 간극이 좁혀지고 합일(合一)되는 체험인 것이다.

그런데 백골관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썩어가는 시체 옆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체 썩는 냄새도 참기 힘들고 새나 벌레들이 쪼아대는 모습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구역질도 할 것이다. 한밤중에 시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캄캄할 때는 무덤 옆을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시체 옆에서 홀로 밤을 지세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무서움에 벌벌 떨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백골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수행이다. 수행자의 눈과 코, 입 등 모든 감각기관은 온통 시체만을 향해있다. 대상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멸(生滅)하는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음을 깨치게 된다. 죽음이란 사대(四大)의 인연이 다 해서(因緣滅)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백골관을 통해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잠자고 있던 수행자의 삶(生)이 깨어나는(覺) 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태국을 비롯한 남방에서는 지금도 백골관이 실천되고 있다. 혹자의 경험에 의하면, 사찰 안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백골을 걸어두거나 절에서 수행하다 죽은 승려의 시신을 마른 상태의 미라로 보존하여 선방에 놓아둔다고 한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인 셈이다.

이러한 백골관은 몸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는 데 유용한 수행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생한 현실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하지 않은 실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근원적인 치유법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부처님 당시처럼 할 수 없더라도 현대인에게 맞는 백골관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 극락정토 구현할 수행법 전하다



조성금의
##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⑪ 관경변상도





사진 왼쪽부터 다이온사 소장 고려불화 '관경서분변상도(1312년)'와 지온인 소장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1323년)'의 모습. 〈불설관무량수경〉을 도상화의 배경으로 담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 '관경서분변상도'는 빈비사라왕과 아사세 태자의 비극을 담았고, '관경십육관변상도'는 좌절한 왕비에게 부처님이 설한 16관법을 자세하게 그려넣었다.

'아미타극락정토도'를 살펴보면서 아미타여래의 극락은 중국의 전통적인 궁전건축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전래된 심판의 다리 친왓드(činwad), 천상의 소리를 내는 신령스러운 새(水鳥, Karshipta), 호인(胡人)들의 전통적인 호선무를 추는 기악보살, 연화에서 화생하는 동자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유토피아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답은 불교 경전에 있듯이 아미타부처와 관련된 정토삼부경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 252년, 강승개譯)〉 〈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經, 5세기 강량야사譯)〉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5세기, 쿠마라지바譯)〉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흔히 고려시대는 아미타불화의 황금기라고 한다. 아미타 관련 고려불화에는 아미타여래가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독존의 '아미타설법도', 관음과 세지를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도', 여덟 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팔대보살도'가 있다. 그리고 아미타여래가 극락에 다시 태어날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묘사한 '아미타독존내영도', '아미타삼존내영도', '아미타팔대보살내영도'가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들 설법도나 내영도 보다 전생의 악연이 부른 부자간의 비극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아미타여래의 세계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린 '관경변상도'에서 극락의 세계를 보는 방법을 찾았다.

'관경변상도'는 〈불설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도상학적 배경으로 하는데, 인도 마가다국에서 전생의 악연으로 부왕을 살해한 아들과 아들의 악행 때문에 고뇌하는 왕비에게 석가모니께서 극락을 볼 수 있는 방법 설하는 경전의 앞부분을 그린 '관경서분변상도'와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16가지의 장면을 그린 '관경십육관변상도'로 구성된다.

먼저 '관경서분변상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원전 5세기 인도 마가다국을 배경으로 한다. 빈비사라왕(頻毘娑羅)과 바이데히(韋提希)왕비가 늦도록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자 3년 후 선인의 화신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 예언자가 이야기하였으나, 3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왕은 선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선인은 앞선 생에서 토끼로 환생하였을 때에도 왕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던 전생을 가지고 있어, 눈을 감기 전 두 번의 죽임에 대한 원한을 품고 빈비사라왕의 아사세(Ajatasatru, 阿□世) 태자로 태어난다. 태자가 태어나자 점술가들이 왕에게 미래에 태자가 복수할 것이니 미리 없애라는 말에 태자를 높은 탑꼭대기에서 떨어뜨렸지만, 손가락만 다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후 장성한 태자는 원한을 갚고자 부왕을 궁궐 깊은 곳에 유폐시키고 굶겨 죽이려 하였다. 왕비는 자신의 몸에 꿀을 바르고 영락 구슬에 포도주를 채워 왕을 찾아가 목숨을 연명하도록 하였다. 왕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태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왕을 죽이고 왕비마저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어머니를 죽인 일은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 왕비를 성안의 깊고 어두운 방에서 유폐시켰다.

바이데히 왕비는 자신의 절박한 신세를 한탄하며 부처님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발원하였고, 이에 영취산에 머물던 석가모니께서 신통력으로 왕비의 호소에 몸을 나투시어 극락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특별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합쳐 16관법을 설하셨다는 이야기를 도해한 것이다.

**빈비사라왕 비극 담은 관경변상도**
**〈불설관무량수경〉이 도상화 배경**
**왕비에게 설한 16 관법 내용 담겨**
**고려불화, 전생담 · 관법 분리조성**
**中 변상도 모두 장황하게 담아내**

그런 '관경십육관변상도'는 16관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한 것이다. 석가모니께서 바이데히 왕비를 위해 특별히 제시한 것이 정선관(定善觀) 13가지이고, 일반 범부들을 위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한 것이 산선관(散善觀) 3가지이다. 화면은 일반적으로 중앙에 석가를 중심으로 십대 제자, 열여섯 성중, 육대 천왕 등 무수한 성중이 둘러싸고 있는 정토를 묘사하고, 그 아래 3단에는 상품 · 중품 · 하품에 각각 상생 · 중생 · 하생으로 나뉘는 9품을 하나씩의 전각으로 구성한 상배관(上輩觀) · 중배관(中輩觀) · 하배관(下輩觀)으로 묘사한다.

그 상부에는 16관의 제1관인 해를 관찰하는 일상관(日想觀)을 두며 바라보는 오른편 위쪽부터 제2관 물을 관찰하는 수상관(水想觀), 제3관 땅을 생각하는 지상관(地想觀), 제4관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보수관(寶樹觀), 제5관 극락의 보배 연못의 공덕수를 생각하는 보지관(寶池觀), 제6관 보배 누각을 생각하는 보루관(寶樓觀), 제7관 연화대를 관찰하는 화좌관(華座觀)을 둔다.

왼편에는 제8관 부처의 형상을 생각하는 상상관(像想觀), 제9관 아미타불의 몸을 생각하는 진신관(眞身觀), 제10관 관음보살을 생각하는 관음관(觀音觀), 제11관 세지보살을 생각하는 세지관(勢至觀), 제12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자신이 왕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보관(普觀), 제13관 아미타불상과 두 보살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雜想觀), 제14관 상품상생 · 상품중생 · 상품하생의 왕생모습 상배관(上輩觀), 제15관 중품상생 · 중품중생 · 중품하생의 왕생모습 중배관(中輩觀), 제16 하품상생 · 하품중생 · 하품하생의 왕생모습 하배관(下輩觀)이 표현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불설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도해한 그림은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의 7세기 초당(初唐)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성당(盛唐)에서 만당(晩唐)에 이르기까지 대략 90여 점 이상의 벽화가 현존하고 있다. 화면은 서분과 십육관의 내용을 모두 묘사한 '관경변상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단에 그려진 3점의 '관경서분변상도'가 알려져 있다. 화면의 구성은 중앙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극락정토가 설법도의 형태로 묘사되며, 우측에 전생의 악연과 부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도해한 서분이, 좌측에 십육관이, 화면의 하단에는 구품왕생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존하는 사례를 볼 때 중국의 경우는 〈불설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모두 표현한 '관경변상도'가 유행하였던 반면에, 고려에서는 '관경서분변상도'와 '관경십육관변상도'가 한 화면에 모두 그려진 '관경변상도'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분리해서 그린 도상이 유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불화로서 다이온사(大恩寺, 1312)와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의 '관경서분변상도' 2점, 지온인(知恩院, 1323년) 소장의 '관경십육관변상도'와 같은 작품 3점이 알려져 있다

중국과 고려의 '관경변상도'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도상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아사세 태자의 전생인 토끼가 빔비사라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중국의 '관경서분변상도'에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 토끼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불설관무량수경〉의 내용에 없는 내용으로서 당대 이후 석가모니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의 일부가 차용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이처럼 '관경변상도'라는 한 주제의 작품에서 고려는 소의 경전인 〈불설관무량수경〉의 내용에 충실히 서분과 십육관을 나누어 다른 화면에 도해하는 방법을 추구한 반면에, 중국은 경전의 내용 이외에 당시에 유행하던 불교고사를 넣어서 하나의 화면에 장황하게 그려내었다는 민족적 · 문화적 차이점 혹은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주 지 상 진
총무원주 벽 산
재 무 심 곡
서 무 효 능
사무국장 일 불
대 중 도 암, 지 홍
보 휴, 일 허
효 진, 지 휴, 혜 명
업무국장 이진미(소봉)
관리국장 송민찬(원경)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건설본부장 김호영
이 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납골당)
전 무 고영민
상 무 장진우
관리이사 박광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836-2439, 1080 / Fax.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 깨어있는 구성원이 조직 바꾼다



윤성식의
## 붓다의 정치학

⑪ 연기적 정치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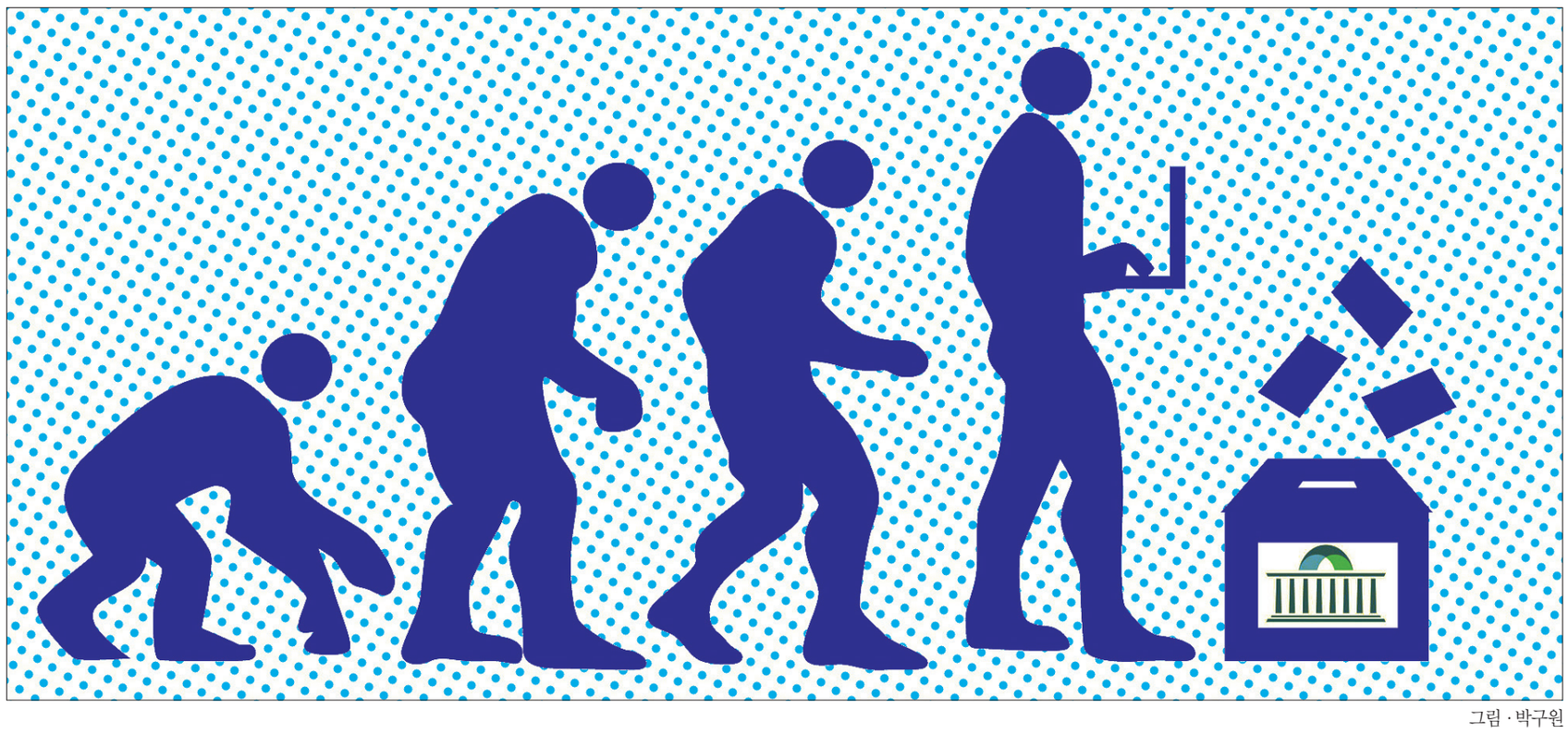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대치동은 서울대를 안가요. 의대를 가지' 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언론에 게재됐다. 교육 1번지 대치동은 서울대보다 어느 의대든 전국의 의대를 한 등급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 문제에 관해선 온 국민이 전문가' 라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자녀를 키우다보니 교육 문제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다.

대치동 집값은 최근 엄청나게 폭등하여 교육열이 있다고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대치동 오피스텔은 지방 학생이 대치동 학원 과외를 위해 방학 때 거주하기 위한 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 마저도 소득이 낮은 부모는 꿈도 꿔보지 못할 일이다. 사교육 때문에 대졸 주부가 파출부 부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흔히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며 망국적 사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교육비를 잡으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혹시 사교육비가 교육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아닐까?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면 사교육비가 잡힐 수 있을까?

자식을 명문대로 보내려면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 엄마의 정보력, 셋째 아빠의 무관심' 이라는 말이 있다. 대치동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결국 재력의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의 원인에 빈부격차도 포함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자가 사는 동네라고 모두 대치동이 아닌 것을 보면 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일까?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게 사회과학이다. 과거에 사회과학자들은 아주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다. 예를 들어 'A를 하면 B가 된다' 혹은 'A를 고치면 B가 좋아진다' 라는 식의 장난감 병정놀이로 세상을 보았다. 세상이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던 관점이 세상은 생물체와 같다는 유기체적 관점으로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입시제도만 바꾸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입시제도를 이리 저리 고쳐봐도 별 효과가 없다. 교육 문제는 대학서열화 문제라는 진단도 있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까?

연기법에 의하면 교육 문제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발생하며 그마저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다. 교육 문제는 경제 문제와도 관련돼 있으며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라기보다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관점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의 복잡계 이론이 동원되기도 했지만 최근까지도 복잡계 이론이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정치현상도 교육 문제처럼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일시적 현상이다. 정치현상은 마치 진화하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성격을 바꾸면서 변화한다.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 문제도 정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면 연기법에 의해 정치현상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만든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칙을 당신이 발견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연기법은 불교의 과학적 법칙이다. 연기법은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인간관이기도 하다. 연기법은 인간과 세상에 적용되는 불교의 과학이론이다. 연기법에서 도출되는 불교적 인간관이 최근 자연과학의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연기법에서 도출되는 불교적 세계관이 최근 사회과학의 관점과 부합한다.

농경시대에 강수량은 농업을 위한 생명줄이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백성은 나랏님을 탓할 때가 많았다. 나랏님이 부덕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과연 문제가 발생할 때 리더의 책임은 몇 퍼센트가 될까? 조직이 성공할 때 리더의 기여는 몇 퍼센트가 될까? 모든 것이 리더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는 온통 리더를 탓한다. 정치인은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종교인과 정치인은 정반대로 취급 받는듯 하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종교인이 되면 기본적인 존경을 받는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정치인이 되면 욕을 먹는다. 종교인은 도매금으로 격상되고 정치인은 도매금으로 격하된다.

연기의 세계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 실체가 없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임시 화합한 결과일 뿐이므로 고유한 성격을 가진 실체가 있을 수 없다. 정치란 정치인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일시적 현상의 연속이다. 정치가 잘못되었다면 리더의 탓만은 아니다. 리더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 리더와 국민 모두의 책임만도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 환경, 역사적 맥락 등도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잘못되면 '좋은 정치란 정치인과 국민의 공동 생산물' 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불교의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해탈하지 않는 한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며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인간이 선출한 정치인은 한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귀신처럼 인간의 불완전성을 파악하고 교묘하게 유권자를 조종하려고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거울이지만 정치인이 평균적으로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조종술과 왜곡 기술이 국민의 불완전성 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정치인도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도 좋은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리더 만의 책임 지우기**
**구성원 책임 회피 일환**
**공동체 함께 만드는 것**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좀 더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웨스트민스터 지하에 있는 어느 주교의 묘지 비석에 있는 글이라고 한다. 나는 처음 이 글을 접하고 크게 감동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 중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글이 있는데 이 글도 그 중 하나다. 나는 더 이상 이 글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불공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억울하게 쫓겨난 직장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넘도록 계약직으로 사는 비정규직이,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라고 스스로 자책해야한단 말인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불교가 배격하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져 있는 말이다.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다. 세상과 나라는 이분법을 떠나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지혜다. 〈잡아함경〉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라고 연기법이 설해져 있다. 세상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으며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야 한다.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자기 삶 속에 둥지를 틀면 세상의 기존 구조는 더욱 견고하게 변화한다. 불교를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로 오해한다면 부처님의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이 악화 될수록 사람들은 좌절하고 세상의 변화보다는 자기 속으로 더욱 움추려 든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강자가 약자에게 건네주는 마약이다. '너희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마. 아무 소용없거든. 모든 것은 네 탓이야. 너부터 변해. 노…오…력이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 그말은 '너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 집에서 자기 탓이나 해' 라는 말이다.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를 지칭하여 '수퍼리치' 라고 한다.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가 있어야 수퍼리치로 대우해준다. 이들은 전세계 여기 저기에 재산을 분산시켜 놓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준비 해 놓고 산다. 국적도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를 타고 전세계를 누비면서 산다. 이들의 투표율은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단 한표의 행사를 위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투표장을 방문한다. 수퍼리치의 이러한 정치적 적극성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증이라는 자해 행위에서 벗어나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보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2배 이상이라고 전승훈과 박승준은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근거하는데 모두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한 결과이다. 정치가 밥 먹여준다. 모든 것이 변하는 연기의 세계에서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불교의 지혜는 정치에 관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 〈고려대 명예교수〉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 용화 미륵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우세요.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공양을 올리고 소원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 직접 해주는 천도재는 한 번만 하면 천도가 됩니다."

조상 천도재
낙태 태아영가 천도재
49재 천도재
반려견 천도재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도량

안양 수리산 용화사

주지 혜우

신도회장 송창록
및 신도일동





안양수리산 용화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 유튜브 불교방송 용화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자관스님(자비암)
부 원 장 마나스님(백운사)
총 무 국 장 봉진스님(혜성사)
교 무 국 장 성주스님(횡금사)
재 무 국 장 지보스님(연화사)
사 회 국 장 도화스님(무심사)
규 정 국 장 법성스님(성불사)
문 화 국 장 일행스님(무애사)

중앙원로위원 원묵스님(용화사)
중앙원로위원 경담스님(구봉사)
포 교 위 원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지방선관위원장 혜각스님(영월사)
지방종회의장 도오스님(백룡사)
지방종회부의장 청안스님(무량정사)
지방종회사무국장 지운스님(연화사)
중앙종회위원 태명스님(사천왕사)
중앙종회위원 혜공스님(구룡암)

지방종회위원 지풍스님(법성사) 도성스님(구월사) 성각스님(보림사)
행암스님(대덕암) 지환스님(용천사) 도향스님(보문사)
보해스님(은혜사) 고담스님(해안사) 혜민스님(천불암)
지장행법사(대원암)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7(수안동)청하빌딩 4층
Tel 051)558-5077 Fax 051)558-5076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선행 (관음정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TEL 051)271-2774

##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암)
자문위원장 혜산(봉덕사)

회 장 성문(선광사)
수석부회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무문(옥천사)
범일(운수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자륜(낙은사)

###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자문위원장 심인택
신도회장 이상갑
신도부회장 전수택
신도회봉사회장 박유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연합신도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 감 로 사

조 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 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무경원 교무경무
재무경증 사회경동
포교경소 복지경지
연수경상 교육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 809-0926

##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원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 화 엄 회

회 장 상 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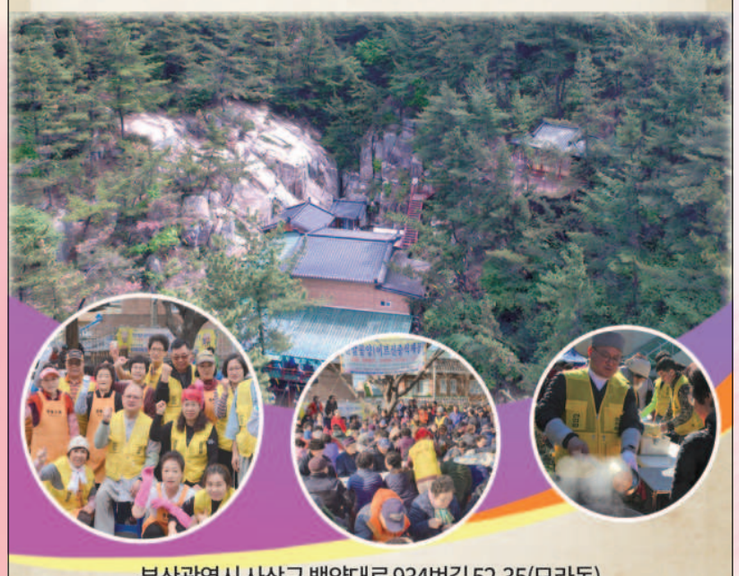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 견 강 암

주 지 향 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대한불교조계종

##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294-9300

# “오직 無字 화두를 참구하라”



정운 스님의
##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⑪ 오조법연

**“세력을 다 부리지 말라.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 좋은 말도 다하지 말라. 규율을 다 지키지 말라.(勢不可使盡 福不可受盡 好語不可說盡 規矩不可行盡)”**

위의 내용은 송나라 때,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선사의 말씀이다. ‘법연사계(法演四戒)’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로부터 애용되는 글이다. 어느 해, 법연이 다른 사찰의 조실로 초대되어 도량을 떠나게 되었다. 제자들이 법연을 찾아와 “스님께서 이번에 떠나시면 언제 또 뵙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상에서 살아갈만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위의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

세력을 지나치게 부리면 후회할 일이 생기고, 복을 과하게 추구하면 재앙으로 변한다. 규율을 다 지키려고 하다보면 집착이 생겨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좋은 말도 넘치면 반드시 허물이 되는 법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하였다. 꽃은 10일 이상 아름답게 꽃피울 수 없고, 큰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덕으로 베풀고,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되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해야 한다. 세력 있다고 지나치게 그 세력을 부리면,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또 자신이 복이 많다고 그 복을 함부로 해서는 않될 것이다. 복은 있을 때 아껴두어야 하는 법, 더 많은 복을 지어야지 훗날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 말이라는 것도 그렇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랫사람에게 노파심에 말을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다. 그래서 흔한 말로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지 않던가? 또 마지막으로 규율도 그러하다. 계율을 함부로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사람을 중시여기고,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 오조법연의 행적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은 사천성(四川省) 면주(綿州) 파서(巴西) 사람으로, 속성은 등(鄧)씨이다. 법연은 소년 시절에 출가해 35세에 수계를 받았다. 성도(成都)에 머물며 〈백법(百法)〉 및 유식을 공부하였다. 이후 십여년간 여러 지역을 유력하며 발초참풍하였다. 그러다 법연이 백운수단(白云守端, 1025~1072)을 만나 수단에게서 마니주 화두로 대오하고, 다음 오도송을 지었다.

**“산기슭 한 뙈기 쓸모없는 밭/ 두 손 모으고 공손히 노인에게 물으니, /몇 번이나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것은 /송죽의 맑은 바람이 좋아서 란다.(山前一片閑田地 叉手叮嚀問祖翁 幾度賣來還自買 爲憐松竹引淸風)”**

법연은 수단에게서 법을 얻어 임제종 양기파 법맥을 이었다. 법연이 수단 문하에 머물렀을 당시 그의 인품과 수행력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법연이 방앗간 소임을 보았는데, 쌀과 보리를 찧어 팔아 돈이 들어왔다. 법연은 보시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 승려가 수단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연이 돈을 축적해서 매일 술 먹고, 여자까지 숨겨 두었습니다.”

점차 절 안에 나쁜 소문이 퍼졌다. 법연은 일부러 조심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돈을 감추고, 여자를 희롱했다. 이에 스승이 법연을 불러 놓고, ‘산을 떠나라’ 고 했다. 그러자 법연은 ‘소임을 인계해야 하니, 2~3일 말미를 달라’ 고 했다. 며칠이 지나 법연이 산을 떠나며 스승에게 자신이 소임을 살며 모은 돈 3000냥을 내놓으며, 훗날 불사에 쓰라고 하였다. 당시 3000냥이면, 매우 큰 돈이었다. 시기 질투한 이들의 소행임이 밝혀져 법연은 누명을 벗었다.(〈宗門武庫〉下)

**임제종 양기파 법맥 계승해**
**‘홍인의 후신’으로 숭앙받아**
**‘주조 무자’ 수행 근본 여겨**
**삶의 지침 ‘법연사계’ 유명**

법연은 스승 곁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며 선지식을 찾았다. 법연은 당시 임제종 선사인 부산 법원(浮山法遠, ?~?) 문하에 머물며 공부하였다. 이후 법연은 안휘성(安徽省) 서주(舒州) 백운산(白云山)에 머물다 호북성(湖北省) 기춘(蘄春) 오조사(五祖寺)로 옮겨 갔다. 법연이 오조산에 처음 들어서며 5조 홍인(601~675)의 조탑(祖塔, 大滿寶塔)을 찾았다. 법연은 5조 홍인의 조탑에 예를 올리며, 이런 시게를 읊었다.

**“옛날 이렇게 온몸으로 갔다가/ 오늘에 다시 오니, 기억하는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랴! 이로써 증거 삼노라.”**

곧 500년 전에 열반한 홍인이 다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게 이후로 선종사에서 법연을 ‘홍인의 후신’ 이라고 한다. 법연은 이곳에 오래 머물며 선풍을 진작해 선종사에서 그를 ‘오조 법연’ 이라 한다. 법연 문하에 훌륭한 세 제자가 나왔는데, 불과 극근(佛果克勤) · 불감 혜근(佛鑒慧懃) · 불안 청원(佛眼淸遠)으로 이들을 ‘3불’ 혹은 ‘법연삼걸(法演三傑)’ 이라고 칭했다. 그의 저서로 〈오조법연선사어록〉이 있다.

### 無字화두 효시 오조법연

선종사에서는 무자 화두를 법연이 주목하였고, 법연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다음 〈법연어록〉을 보자.



오조 법연의 진영. 오조 법연은 ‘조주 무자’를 선 수행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높은 덕망으로 ‘홍인의 후신’으로 숭앙받았다.

**“여러분, 그대들은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가? 언제나 오직 무자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그것을 일삼아 공부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있다면 누구 하나 여기 나와서 대답해보라. 나는 그대들이 ‘있다(有)’고 말하는 것도, ‘없다(無)’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非有)’, ‘없는 것도 아니다(非無)’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대들은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 이것뿐이다.”**

법연은 화두 가운데 조주 무자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무자 화두는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불성의 유무(有無)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깨닫는데 중점을 둔 화두이다. 실은 무자에 관해서는 당대에도 선사들의 어록에 나오는 예가 있다. 마조의 제자 흥선 유관(755~817)이 개의 불성에 대해서 문답한 예가 있는데, 흥선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라고 답했다. 조주는 스스로 ‘없다’ 고 답했는데, “그에게는 업에 의한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무자 화두를 주장하며, 공안으로서 체계를 세운 이는 법연이다. 이후 법연의 손자인 대혜 종고(1089~1163)도 주목하였다. 또한 종고 이후 100년이 지나 활동한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도 주목하였다. 혜개는 저서 〈무문관〉 1칙으로 무자를 제시했는데, 선사는 “3백 6십 골절 8만 4천 털구멍 온몸이 의단(疑團)이 되어 무자 공안을 참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몽산 덕이(1231~1308)도 “조주의 무자 한 마디가 종문(宗門)의 한 문이니, 유심(有心)으로 뚫을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뚫을 수 없다.(只箇無字 是宗門一關 有心透不得 無心透不得)”고 하였다. 어찌되었든 법연이 화두로 삼은 이래 무자는 근자에 이르기까지 선객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독보적인 화두이다.

### 禪, 이성적 논리로 판단 못해

제자들이 법연에게 수행하는 방법을 자주 물었다. 이에 대해 어느 날, 법연이 상당설법을 하였는데, 다음 내용이다.

**나의 선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겠다. 밤도둑인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어가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버지는 ‘도둑질도 타고 나는 법이다. 가르칠 것은 없지만, 배워보도록 해라. 오늘밤에 나를 따르라.’**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 아버지가 옷장 안에 옷을 담으라고 하면서 옷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아들이 무심결에 옷장 안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옷장 문을 걸어 잠그고 ‘도둑이야’ 라고 외치더니, 도망을 가버렸다. 마침 그 집의 식구들이 몰려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들은 옷장 안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쥐가 상자를 갉아먹는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주인이 하인을 불러 옷장 문을 열어보라고 하였다. 하인이 옷장을 열고 등불을 들이대자, 아들은 하인이 들고 있는 등불을 순식간에 끄고 밖으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뒤쫓아오자, 아들은 도망치면서 우물에 돌을 던졌다. 사람들은 도둑이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이 틈을 타 집으로 도망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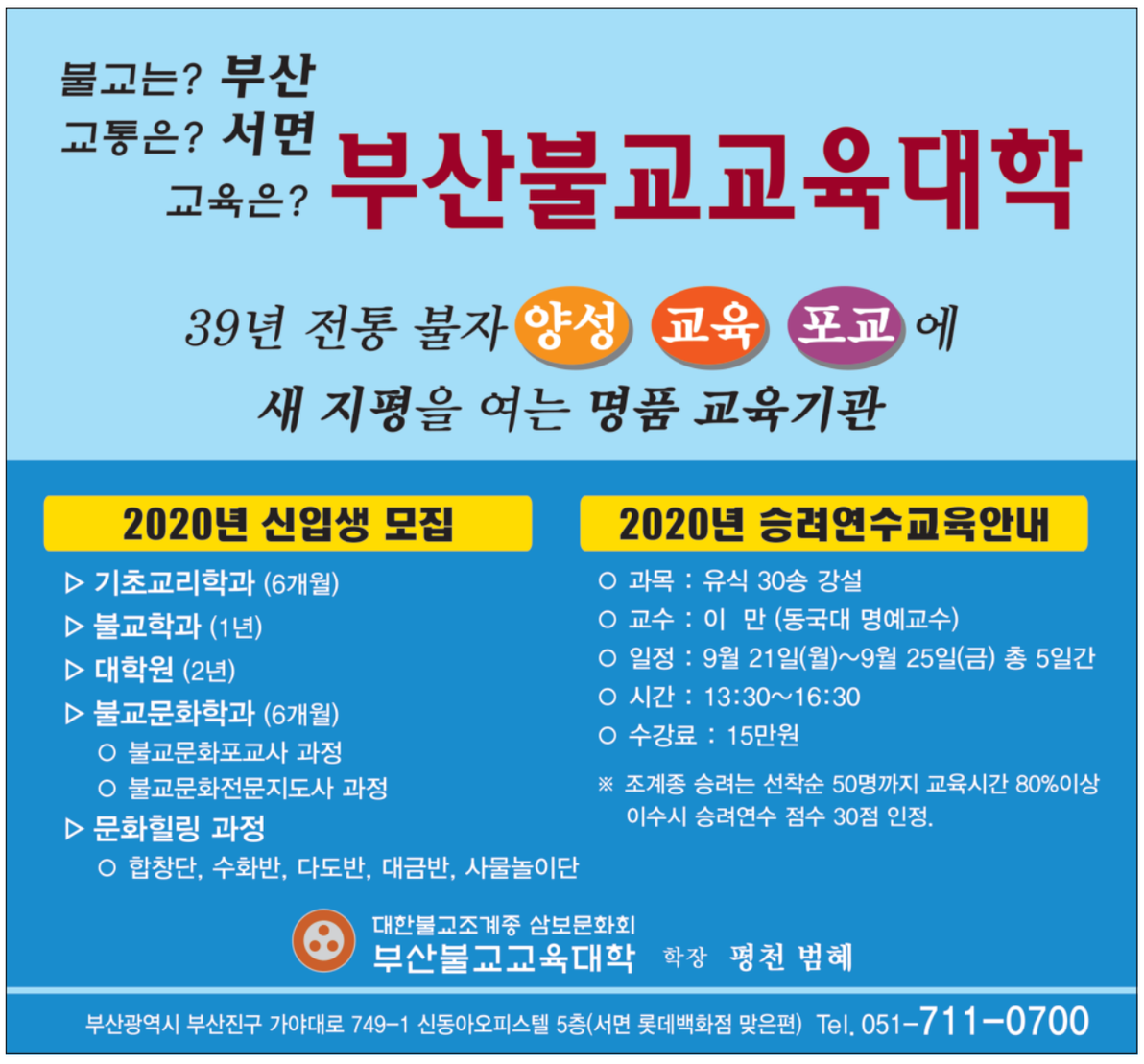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투덜거리자, 아버지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너의 기지를 훈련시킨 것이다. 물건 훔치는 재주는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법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도 없는 법이다.’**

도둑질은 로고스(logos)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배울 수 없다. 부친은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 스스로 방법을 터득토록 한 것이다. 법연이 말하는 선도 이와 같음을 시사한다.

솔직히 원고를 작성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수많은 조사들이 배출되어 얼마나 많은 해탈 수행법을 제시했던가? 그렇게 제시된 길을 토대로 자신의 본각에 입각해 직관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밥상 차려놓았으면, 숟가락을 잡고 스스로 먹어야지, 너무 많은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관음종

## 선학산 송원사

주지 **도관 보광**

아난도관음불자회
대표회장 **자성화** (박수영)

경남 진주시 남강로 751-14
종무실(상담예약) TEL 055)745-9944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 제주 관음사

조실 **만백 종호**
회주 **우경**
주지 **무소 허운**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시 제주시 산록북로660
Tel 064)724-6830 Fax 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대한불교조계종

## 제주 약천사

주지 **덕 조**

신도회일동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대포동)
Tel 064)738-5000 Fax 064)738-5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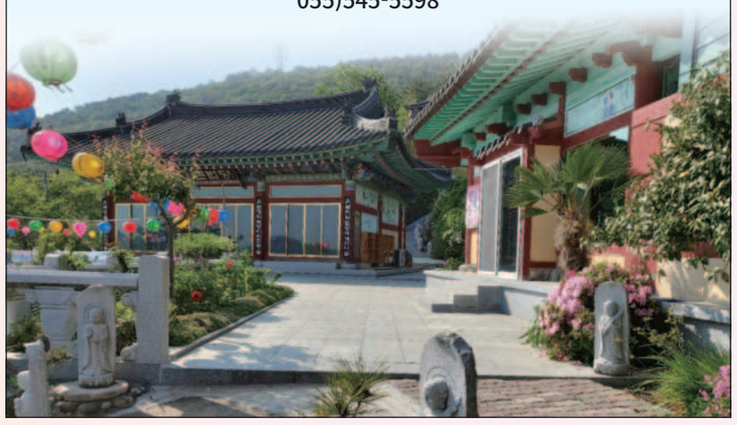


## 대한불교 천웅사

주지 **성 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58번안길 12-48
055)545-5598



대한불교조계종

##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055)533-2073



대한불교조계종

## 정인사

주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마산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마산시니어 클럽,
마산회원 시니어클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055)299-5450

당신은 부처님 !

대한불교조계종

## 녹색사찰 백련사

주지 **천 도**

신도회일동

울산시 울주군 향산 다개로 405-66
052)262-6610



대한불교관음종

## 진주 불명사

주지 **허주 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233-27
TEL 055)756-1095




대한불교조계종

## 양산 정종사

주지 **여 해**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장흥4길30
055)366-6867



# 불교문화 공간 '쿠무다', 상량식 봉행

**혁신적 문화포교 패러다임 이끌어**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문화교류 및 시민공간 뛰어난 바다조망 눈길**



부산 송정에 건립중인 '쿠무다 복합 문화공간 명상센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에 불교문화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공간 '쿠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센터'가 건립된다. 하얀연꽃이란 뜻을 가진 쿠무다는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전시 및 다채로운 공연을 보여주고 새로운 포교방향을 제시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대표 주석)는 5월 16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쿠무다 신축건물에서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환영사 △경과보고 △인사말 △치사 △격려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상량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량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이자 통도사 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이 직접 써 축하했다.

쿠무다는 2013년 12월 부산 송정 해수욕장 앞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북카페를 운영하고 정기음악공연 및 전시 등을 여는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쿠무다의 가장 큰 역할은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포교문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불교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접목하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전이자 파격이었고 전통 사찰에 쉼터와 북카페가 들어 선 계기가 됐다.

쿠무다는 무명 예술인을 위한 무료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끌다 좁은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자 불사를 추진했다. 2017년 1월 현 공사 부지를 매입했으며 2018년 11월 건축허가가 완료 됐다.

새롭게 불사 중인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8층의 대지면적 568.5㎡(172평), 연면적 2,838.98㎡(860평) 규모로 총 1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 된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5월 16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쿠무다 신축건물에서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거듭날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쿠무다에는 공연장과 명상센터, 북카페 및 문화예술 교류 공간, 인터넷 방송국, 바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 공간은 세련미를 더한 불교문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공은 올해 10월이다.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은 "순간 순간 마다 시절 인연이 되어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그 어떤 물질적 후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잘 출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상량식에는 통도사 감원 동원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 전법도량의장 만초 스님, 비구니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서병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불자배우 견미리, 집시바이올리니스트 콘(KoN)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 구암사 조사 및 백파 스님 추모다례재

**5월 16일 구암사 부도전서 봉행**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가 역대조사 다례재 및 백파긍선 대선사 16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5월 16일 구암사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봉행된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지선 스님 등 30여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 동참한 대중들은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다례재에 참석한 스님들과 감사인사를 전하며 "역대조사스님들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들고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중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참석한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교도들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호국의 깃발아래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며 "역대조사스님들의 법등을 높이 들고 그 실천수행에 앞장서 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의 법음이 울리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제 무왕 37년(서기 636년) 승제선사에 의해 창건되고 1392년 각운선사가 중창한 구암사는 설파상언, 백파긍선 등 역대 대종사들이 주석하며 법을 펼친 사찰로 구한말에는 설유스님, 영호당 박한영 대종사가 공부하고 제자들을 길러 일대 불가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요 문화재로는 월인석보(보물 제745-10호)가 소장돼 있고, 전라북도 기념물 121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수령 630년 추정)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구암사는 5월 16일 역대조사 및 백파긍선 대선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 김해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 개최

**5월 16일 법회에 100여 명 참석**

불교문화와 신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포교 문화를 이끌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았다.

동림선원(주지 신공)은 5월 16일 경내 법당에서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주지 신공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전법도량으로 함께 만들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동림선원은 5월 16일 경내 법당에서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동림선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특별전시 '토림의 향로'를 은암갤러리에서 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남포동에 우뚝 선 장엄탑**

오랜만에 활기가 찬 부산 대표 번화가 남포동 한 가운데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장엄탑이 불을 밝혔다.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했지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환하게 불을 밝힌 연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가 5월17일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2020 광복로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남포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중심지 시티스폿에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장엄탑이 우뚝 섰고 주변 가로수 길을 따라 오색찬란한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들은 전래동화를 담은 피노키오 장엄등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 등 장엄탑을 구경나온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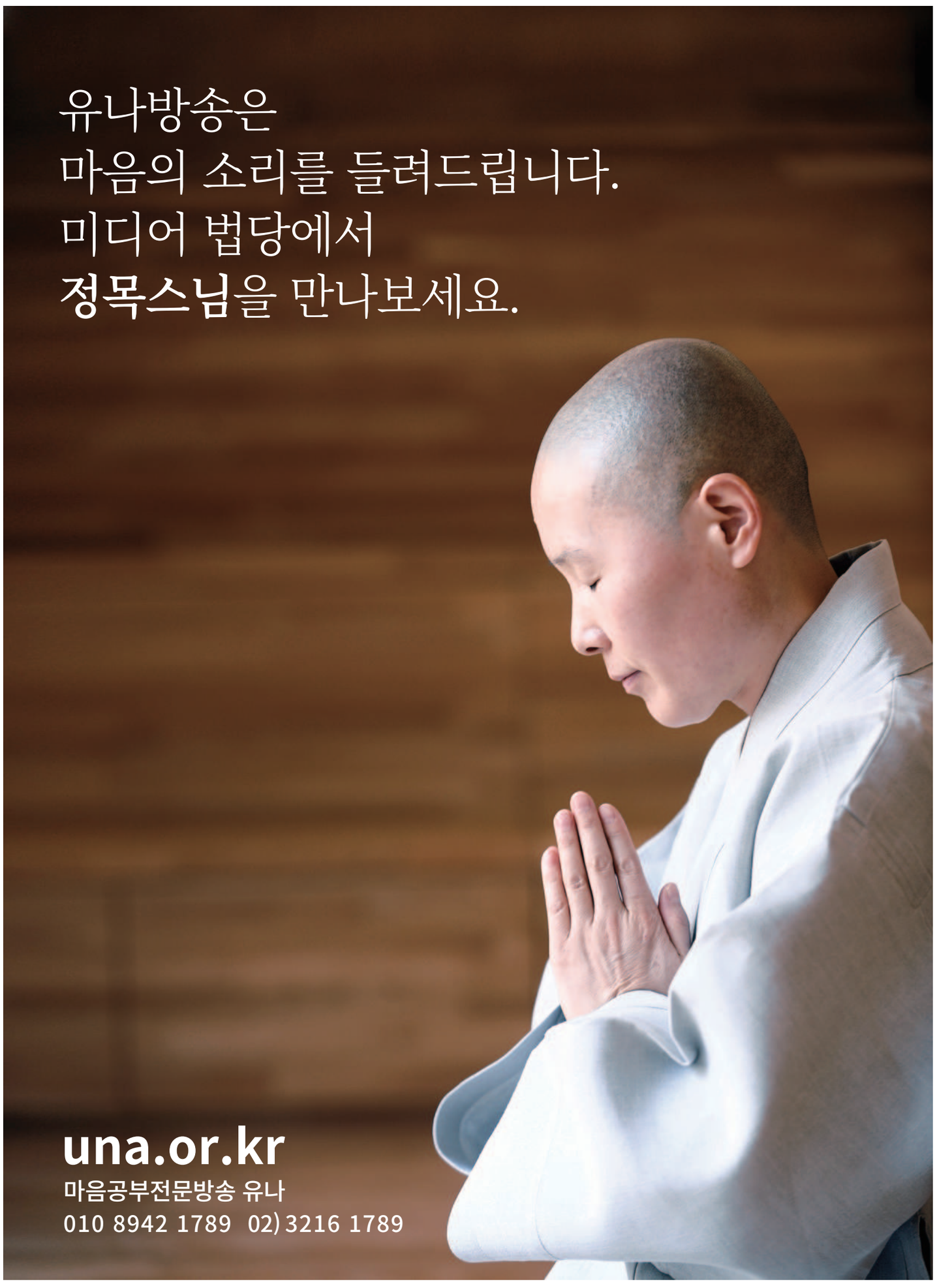
# 정읍불교대학 7기 입학식 봉행

내장사서 정읍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전법을 위해 설립한 정읍불교대학 (학장 지태, 내장사 주지)이 7기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5월 14일 내장사 정읍 포교원인 영은사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은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상이암 주지 대선 스님, 성불암 주지 상우 스님, 보림사 주지 석우 스님, 내장사 재무국장 구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입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 불교대학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입학을 미뤄왔으나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발열체크에 이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 각 (서림사), 만 일 (미륵암)
회 장 법 인 (약천사)
부 회 장 혜 원 (성불사), 승 공 (칠보사)
총무국장 송 우 (해장암)
포교국장 자 은 (성불사)
조직국장 보 성 (무학사)
감 사 선 혜 (대부암)
회 원 서 천 (미륵암), 정 홍 (용주암)
지 화 (감로암) 지효 (남원정사)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사하 사암 무료급식소**

약천사, 성불사,대부암,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칠보사, 용주암, 감로암, 이경애 외 10명

▷ 운영시간 : 매주 월, 화 오전 9시
▷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향기로운 인연 향기로운 세상

##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회 장 **정오 스님** 외 회원스님일동
신도회장 **성환필** 외 임원일동 합장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Tel 051)721-2927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단체

## 화엄승가회

회 장 자인
고 문 법우
자 문 범혜
수석부회장 자관
상임부회장 도원 일공
부 회 장 도경 청허 효문
감 사 안국 혜현
총 무 대각
재 무 태산
의 전 법봉
회 원 도명 천웅 선혜
보현 정현 혜광
명호 지오 보개
효선 해각 의천 향공



화합으로 포교에 앞장서는

## 부산진구 불교 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탄경 세운 감 사 태산, 보원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재 무 월륜 춘제
상임부회장 여산 원타 총 무 해운 도원
부 회 장 지명 지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석만 도관, 대유 시광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원상 정사
보문 효진, 덕난 무애, 선각 운곡
안국, 법담, 상보, 지공, 지선
선혜, 진여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백옥 관음도량
6월에 수국이 아름다운 산사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전통사찰
## 고 불 사

회 주 산 해
주 지 도 은

천일관음기도 및 33관음성지순례 봉행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금강경강의(설법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안평역 3번 출구 700m 전화 051)721-2927 | 법당문의 010-3891-2137

현재기준 2020년 4월 20일

**정기예탁금 15개월 2.0%(연 1.6%)**

**2019년 출자 배당률 3.5%실현 !!**



●범천동 부산성의신협 빌딩

-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만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빠르고 편한 신협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대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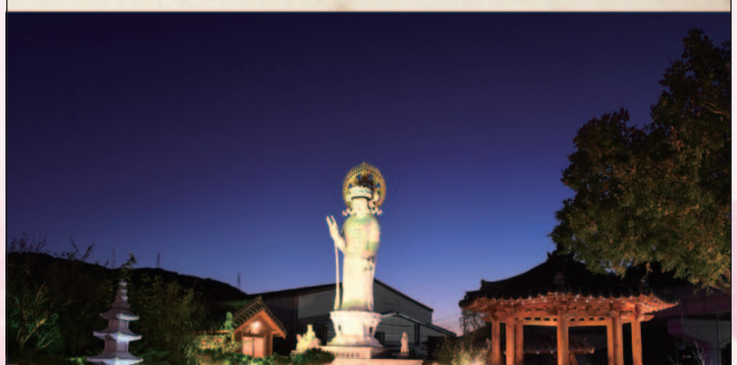
대한민국 휴머니즘 뱅크 **부산성의신협**
연지지점 051) 816-7131 초읍지점 051) 809-4154
양정지점 051) 867-8321 **범천불교지점 051) 633-9120**
동래지점 051) 867-3641

##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 혜

동 행 장 학 회 회장 정원기
기장차문화대학 회장 이원숙
원장 김진옥
청 량 선 문 화 원 원장 장외숙

문화사찰 청량사 주지 석 보혜 外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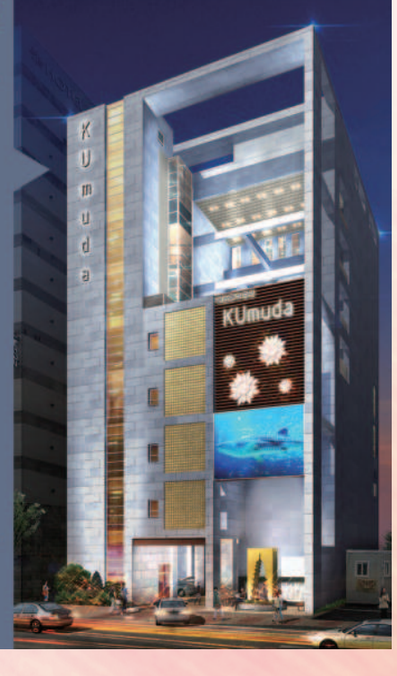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KUmuda
복합문화공간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 | |
|---|---|
| 옥상 | 바다법당 / 오션뷰정원 |
| 6~8F | 쿠무다 빌리지 |
| 5F | 예술교육관 / 인터넷방송국 |
| 4F | 전통 레스토랑 |
| 3F | 퓨전 레스토랑 |
| 2F | 카페 쿠무다 |
| 1F | 주차장 / 수변 휴게시설 |
| B1 | 공연장 및 명상센터 |
| B2 | 교육관 / 쿠무다 사무국 |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Tel. 051-701-7559



대행 스님



# 왜 자신들의 등불이 밝다는 거를 못 믿고 그렇게 컴컴하게만 생각하십니까

… 퍼뜩퍼뜩 자기가 작용하는 데서 그 물리가 터져야 하니까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전부야. 전부 자기 마음으로써 작용하는 데에, 그 속에 다 있다니까, 일체 만법이.

그리고 애들한테도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인의롭게 부드럽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 다 맡겨 놓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뿌리를 길러 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겉으로 말하고 야단치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몸뚱이는 안 나가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러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정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더욱더 가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병고를 가져오게 만들고….

사사로운 조그마한 말이지마는, 어디 가다 보면 커피를 마시고도 잔을 저런 데다가 그냥,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어느 귀퉁이에다 끼워 놓고, 차 타고 가다가도 담배 피다가 그냥 후컥 후컥 버리고, 다 마시고 깡통을 그냥 휙 던지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마음공부라는 것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도의와 의리, 시간을 지키고, 부드러워야 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야 하고, 말 앞세우는 것보다도 행동이 더 진실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익이고 거짓말이 아닌 거고, 사기성의 마음을 가지고 만날 남을 이익하게 안 하고 해롭게 한다면 자기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어떤 때는 이상스러운 점이, 테레비에 나올 때 보면 골골이 그냥 쓰레기를 버려서…, 아, 사람이 돼 가지고 그거 자기가 먹고 난 쓰레기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나?

그러니 그 오물 속에서 독충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고. 그 독충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게 안개처럼 날아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오느냐. 버린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도로 온다고. 그러면 버린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 사람, 천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고통을 받게 돼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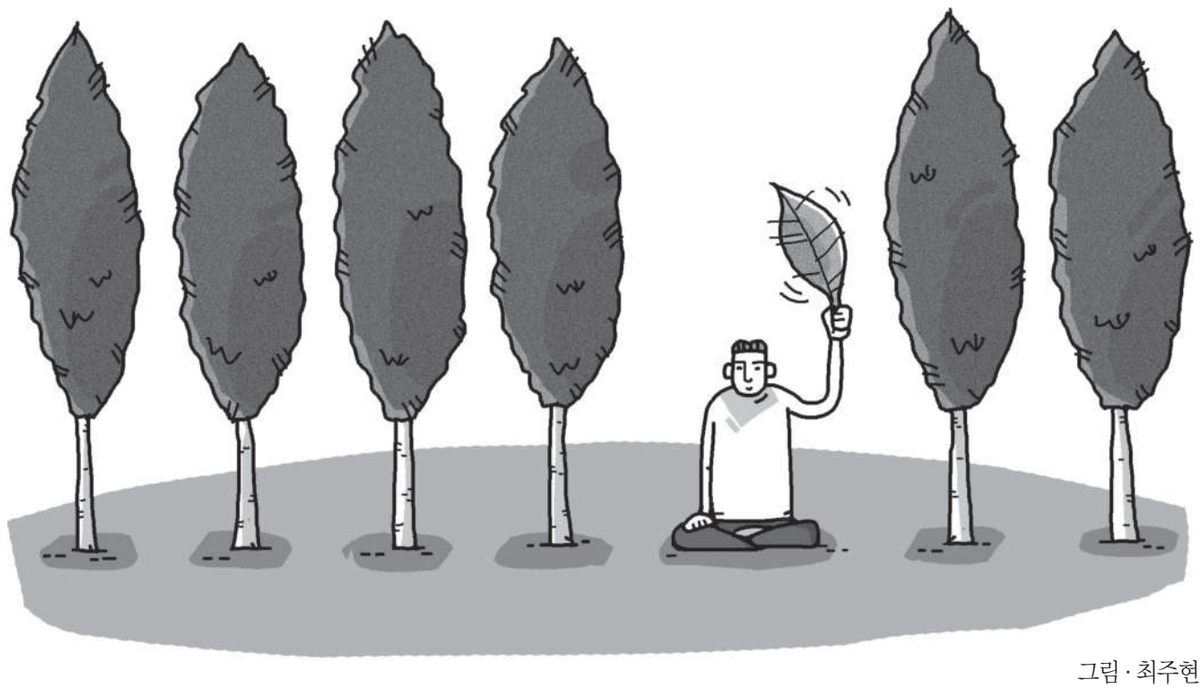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약에 열 사람이 그렇게 버리고, 아니 세 사람만 그렇게 버리고 그랬다면 백 사람, 즉 말하자면 백을 채운다고. 97명은 어떻게 되지? 글쎄, 그러니까 거기 세 명을 포함해서 백 사람이 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튼튼하게 하질 못한 관계상 그런 행도 하고 저런 행도 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세균이 모두 그게 독충인데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그것을 아나? 털구멍을 통하고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병이 들리고, 요새 얼마나 병이 많으냐고. 그럭하는 사람이 좀 더 줄고 그럭하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우리 병이 덜 들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놓는다면 나무에는 어떻고. 나무에도 곤충들이 생겨 가지고는 그냥 전부 뿌리가 상하게 되고, 우리 사람 하나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해가 가는지 몰라요. 그뿐인가. 식물 심어 놓으면 독충이 그냥 전부 달려들어서 먹는 것도,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 한 번 잘못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번 해 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 번을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열 번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자꾸자꾸 번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거짓말로다가 그냥 왕창 싸 버리고 말지. 조그마한 거짓말 하나에 그렇게 왕창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걸 버려도 독충이 생겨서 우리 국민을 전부 그냥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날아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기 때문에 세계를 덮치는 거야. 그게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모두 하면서, 테레비에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물통 속에 그냥그냥, 아이구 참! 세상에, 사람들의 머리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응? 누구라도 서둘러서, 아무리 저거 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치워야, 일 년에 세 번은 치워야 돼. 아무리 못 치워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앙금이며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쇳물이며 그런 게 들어가면 모두 나쁘다는데 뭐, 엉망이더군.

그러니 이 공부를 했다면 사람들의 머리 쓰는 것이 좀 더 그걸 느껴. 물을 먹을 때도 물을 따르면 벌써 '이 물 느낌이 좀 안됐다' 하면 그런 거를 건의해서 부시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이익하게 가져와요. 이 마음공부라는 게 모두 자녀들과 더불어 위로는 부모 조상들, 아래로는 자녀들 또 나아가서는 친구들, 형제들, 부부지간의 문제들을 다 가져올 때 다 커버할 수 있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면 그때에 가서는 모두 전체, 외부의 전부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돼서 여러분이 모든 물리가 다 터지게 되고, 들으면 듣는 대로 그게 법이 되고, 보면 보는 대로 법이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법이 돼요, 한데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모두 전화 오는 걸 봐도 그렇고, 글쎄, 어린애 못 낳는 거를 스님한테 가서 참, 근근덕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생겼는데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태반에 무슨 물이 적어서 뭐가 잘못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 그것이 그냥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지 말지, 그러려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긁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세상에 돈이 없고 그래도 진정으로 찾아들 데가 여기야, 음? 돈이 있다고만, 권세가 있다고만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 스님네들은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돈 많이 주는 것도 돈 있는 사람, 또는 전자에 복은 지었으나 인과응보로 많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다면 그것은 시주도 해야 하고 정성도 지극하게 해야지. 그건 자신이 살아나가다 보면 자신에 의해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 값어치를 하고 나는 그거보다 무주상 보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하는 거야, 있으면. 없는 거를 굳이 빚을 내서 가져오라는 말은 안 하잖아? 빚을 내지 않아도, 당장 먹을 거를 가져와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래 저분이 저기 앉아 있지만 그 동생 남편도 병이 들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 병이 나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상하지. 자기의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고칠 수 있었으니 말이야. 여기 뭐, 줄창 오는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인권해서 고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도 또 자신이 그걸 알고 그렇게 나가면 가정이 그렇게 유하잖아.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더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이익하면 이익했지, 자식들한테라도.

여러분에게 이익하라고 공부시키는데 어떤 때 엉뚱하게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지. 그 말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거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돈 벌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아픈 그 눈물이 안 나와. 사랑하니까,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멍청아! 왜 이렇게,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하고선 큰소리도 나오지, 사랑 안 한다면, 내 몸과 같이 생각 안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야 돼? 그럭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목 아프게.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하나하나 믿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공이 바로 나를 위해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으로 모든 걸 조절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 난들 어떡하느냐 이거야. (중략)

내려올 때는 한마디 할 게 없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앉으면 또 말이 되고 말이 되고 이러거든요. 하, 참 내!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 그거부터 제도하기 위해서, 또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내 가정을

☞ A30면으로 계속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자기가 자기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해서 되나요?

☞ A29면에서 계속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둘로 보지 말고 거기 맡기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거기 다 맡겨라 이거야.

또 타의에서 왔든 자의에서 나왔든 하여튼 한번 발현이 된 사람은 어떠한 그림자가 보이든지, 어떠한 걸 그 안에서 시키든지, 어떠한 것이 들리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되놔라 이거야, 또! 이차적으로 또! 거기다 맡기고 살아라 이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응, 들리는 것도 거기서 들리게 하는 거고 보이게 하는 것도 거기서 보이게 하는 거고 시키는 것도 거기서 시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다시 맡겨라 이거야. 그걸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보인다고 끄달리고, 들린다고 끄달리고, 시킨다고 끄달리고 이런다면 그건 노예밖엔 더 돼? 응?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기둥을 삼아 하늘을 받칠 수 있는, 땅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들어서 만날 귀신 장난 하다가 말 작정이냐고.

엊그저께 설법할 때는 이 인간이 공부를 하면 인간 이외의 참 광대무변한 에너지가 자기한테 있고 재료가 있으니, 우주 천지가, 이 세상이 다 가설되고 직결돼 있으니까 거기에까지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요 생활 속에서만 있는 줄 아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좀 더 알고나 해야지 아무리 이론이 좋고 학식이 좋다 하더라도,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이 마음법은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따라설 수가 없어. 천체 물리가 터질 수 있고, 천체를 감응할 수가 있고, 천체를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고 듣게 될 수 있고…. (중략)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몸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면 백 년을 사오, 천 년을 사오?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능력이 생겨서 요다음에 훨훨 벗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신다면 어딘들 못 가고 어딘들 보지 못하고 어딘들 듣지 못하겠소. 듣지 못하는 과학자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 미쳤다고 하겠지. 그러나 미쳤다곤 하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은 느낄 거라고. 지금 얼마나 정신계로 바짝 들어서는 판국인데. 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수억겁이라도 보낼 수 있는, 빛보다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괜히 이거를 눌러서 전파를 보내겠소? 허허허…. 생각을 해도 참 우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생활 속에서 걸음을 걸으면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면서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도 뛰면서 우리는 그렇게 옷 벗기 전에, 이 몸이 쇠약하기 전에 다시 좀 더, 내가 사는 동안까지는 아픈 것도 낫게 하고, 가정에서 불상사 있는 것도 화합을 시키고, 자녀들도 잘못 나가는 거를 올바로 세워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그 능력을 길러 놓으면 하나하나 외축되는 게 없어.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냄새 안 나게 싸서 다이렇게 해서 똘똘 말아서 꼭 매서 그냥 넣고, 마른 건 마른 것대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 그래서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거지. 비록 가난해서 쓰레기는 치우나 냄새 좀 덜 나면 그 치우는 사람도 좋을 거고 병 안 들고, 얼마나 좋은가? 우리네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내가 무슨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마음공부라는 게 어느 조그만 거 하나 빠지는 게 있나? 그저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해서 되나? 자기가 자기 하는 걸 보고 있는데, 허허허…. 안 그렇소? 아, 자기가 병원에 가서 누워서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내려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아, 인젠 살았구나.' 그랬대. 허허허….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곤 잘못 저거하면 손을 탁 쳐서 손을 옮겨 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 것이 눈에 현상히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았다, 인제는. 아이, 한마음 주인공 당신이, 바로 이 몸 끌고 다니는 당신이 자기 몸을 이렇게,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울었다는 거야. 이렇게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당신이 있는 거를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거지.

그거는 남편도 되고 내 전 조상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처도 되고 여러 가지, 엄마도 되고 그런 거야, 그게 본래. 자기 몸 자기가 죽이는 법 없어! 자기 주인공을 믿는데 어찌 자기, 즉 말하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죽일까, 자식을? 몸뚱이는 자식과 같은 거지.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맡기고 그런다면 육신의 모든 이 생명들, 의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 주면서 아이구 세상에, 요리로 가면 자식이 되고 저리로 가면 아비가 되고 그러니 이게 연방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로.

이리로 가면 이리로 되는 대로 하나로 돌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대로 하나로 돌고, 일을 할 때는 자식으로서 하나로 돌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로 하나로 돌고야, 글쎄, 뭐가 부족해서 여기 끄달리고 저기 끄달리고, 들리는 거에 끄달리고 보이는 거에 끄달리고, 온통 야단법석을 해 가지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거지.

열 명, 스무 명, 천 명, 만 명, 일억 명, 십억의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분신이야, 자기 분신. 자기 분신이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을 전부 합류화시켜서 전부 항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도 있잖아? 모든 게 전부 하나로, 자기니까 자기한테 넣는 거야. 거기에 놓는 거야. 그렇게 넣어서 나중에는 다 이게 제도가 돼서 보살이 된다면 그때는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더니 인제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더라."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나?

어떤 스님네들은 그러지. 스님은 신도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자상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느냐고. 스님네들이나 가르치시라고. 아, 이러는 스님네들이 있지, 저 다른 데. 그런데 스님네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이다음에 큰 회사를 차려서 중생을 제도하면서, 이런 공부를 가르치면서 해 나가도 중의 행이요, 보살행이요, 또 머리 깎고 중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행이라 이거야.

어떤 두 형제가 중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사형 사제가 되지. 이 만법을 깨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나라에서 태자가 생기질 않으니까 가서 빌고 빌었어. 빌고 빌고 천일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얘, 중생들을 위해서 어떡하니?" 사형과 사제가 둘이 앉아서 "아유, 난 나가기 싫은데, 틀어서 망건 쓰고 갓 쓰고 아유, 버선 신고 이러기 싫은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지옥이 아닌가." 이러고선 둘이 서로 싫다고 싫다고 하니까 구지비끼리를 해서 뽑았단 말이야.

근데 아우가 걸렸거든. "아이구, 이거 할 수 없지, 뭐, 형님."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옷을 벗고 망건 쓰는 데로 갔대요. 허허, 나라로. 그래서 태자가 없으니까 대신 자기가 그렇게 나가 주는 그런 자비도 있어. 그렇게 그런데 용건만 얘기하지 그냥 웬걸 다 늘어놓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자기 자신들의 등불이 밝다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못 믿고 컴컴하게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등이 있어서, 자연적인 등이 있어서, 인등이 있어서 항상 밝게 그렇게 켜져 있는데 그거를 못 믿고 남의 등이 더 크고 남의 등이 더 밝고 그런 줄 알고 왜 그렇게 그럽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저거 한다면 전력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러게 한마음으로 "아이, 스님. 제가 모자라서 이렇습니다." 용건만 '이러합니다' 하고 그냥 대답하거나 말거나 뽕하니 달아나가면 될 거를, 왜 그것을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온통 야단법석이냐고. 귀가 먹었나, 내가? 말만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되는 거야, 용건만 그냥 간단히. 그래야 나도 일을 하지! 자꾸 날 붙들고 그런다면 자기가 말해 놓고 내가 어떻게 해? 여유가 있어? 그런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마는 자꾸 붙들고 그러면 외려 그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소금 팔던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해서 당장 소금 한 그릇 이고 나가서 팔아야만 죽이라도 쒀 먹어. 남편은 정신분열증을 앓지, 응? 자식들은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렇게 편안하고 참, 싱그럽고 도도하게 흘러 돌던, 정말 자유스러운 산 부처가 그거를 다 벗어 버리고 지옥고로 들어간 거야, 원하니까. 부처님 법이 이런 거라고.

그런데 남을 해치는 줄도 모르게 해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조심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한테 그런 병도 안 오고 남한테 그런 병도 안 가고, 뿌리를 길러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그냥 스스로 와, 벌써.

요 한마디만 하고요. 어떤 분은 척 보니까 처음 왔는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 나한테 자주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 척 보면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는 그쪽이 부족하면, 광력이 부족하면 광력이 갈 것이요, 자력이 부족하면 자력이 갈 것이요, 통신이 안 되면 통할 것이요, 모두가, 불 켜는 데 전력이 부족하면, 마음을 밝히는 데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이 갈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살면 백 년을 사오. 천 년을 사오?**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 능력이 생겨서**
**요다음에 훨훨 벗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돼야죠.**

많지. 그러니까 소금 장수를 하다가 너무 무거운 것만 이고 다녀서 자기는 자궁암을 앓지. 이러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극단에 처해져 있으면 자기 병이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생각 할 겨를이 없다고. 지금 막 남편은 방에다 가둬 놓고 텐트를 치고서 거기다가 자식들을 넣고 이러고 다니는 판국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 팔고 가면 벌써 애들이 굶을 지경인데 자기 병이고 뭐고 자기 남편이 그렇다 뭐, 이런 생각 할 여지가 없어. 오면 소금 한 공기 탁 퍼 놓고 "스님! 아범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나는 또 자궁암이랍니다." 그러곤 그냥 뭐,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글쎄, 그렇답니다." 그러고 남의 말 하듯 하곤 그냥 달아나가.

허, 얼마나 갸륵하오. 세상에, 갸륵한 거보다도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 역시 멍멍히 그냥 쳐다보고, 멍멍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엿가락같이, 고무줄같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천차만별의 도깨비장난 같은 이런 세월 속에서 아이구 참,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데 삼 일이 지난 뒤에 또 소금을 한 다라를 이고 와서는 또 공기에다 하나 놓고 껄껄껄 웃으며 "스님, 아비도 많이 나았고요, 저도 자궁암이, 글쎄, 오진을 했다나요? 나았어요." 그러고서는 또 가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급하게 돌아가는 거라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탁 치받치면 그렇게 여러분처럼 여유 있게 아이구, 이런 게 이렇게 속 썩이고 이런 게 이렇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급하면 그럴 여지가 없죠. 그 뭐, 얘기하고 앉아 있을 사이가 있나요? 외려 그게 그분들한테는, 너무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 한마음이 되고 모두가 한데 뭉쳐지니, 그것이 속에서 그대로 광력으로 그대로 그냥 병을 낫게 하고 그러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문제지만 불가사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이 소립니다.

그럼 인제 그렇게들…, 요새 내리내리 이렇게 말하는데 좀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시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어디. (중략)

※위 법문은 1991년 8월 2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주)보광석재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감축드리오며,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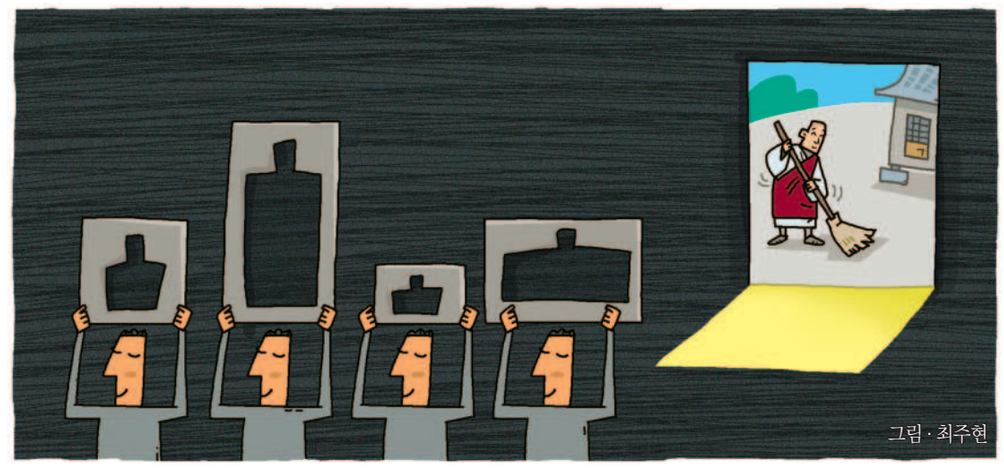
부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도량탑

서울 조계사 팔각십층석탑

하동 쌍계사 석조석가모니대불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FAX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奉祝隨想

# 빗자루,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림 · 최주현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누구든 각각의 특별한 인연으로 출가수행자로 살고 있지만 함께 살면서 잘 갖춰진 딱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누구나 어딘가 부족하거나 넘치는 면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화합해서 살아가는 까닭에 대중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대중이라는 말 자체에 화합(和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화합하지 않으면 대중을 이룰 수 없고 또한 대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은 화합이다.

산중 수행자들의 일상은 예불 · 공양 · 울력이 기본이 된다. 이 기본적인 일상이 화합과 존중의 바탕이다. 아무리 특출 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중의 일상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떤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은 대중에서 본연의 위상을 갖기 어렵다. 불교가 인류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본연의 가르침과 종단의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이 같은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온 까닭이다. 그 산중이 화합하는 대중인지 아닌지는 그 대중이 전통과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로 판가름 된다. 기본을 지키며 화합하는 대중은 번성할 것이며,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화합을 잃은 대중은 패망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속한 대중은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된다. 말사 주지 소임을 내놓고 본사에 온지 5년여의 시간동안 산중의 어른 스님으로부터 행자에 이르기까지 예불 · 공양 · 울력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총림의 방장 스님께서도 별도로 음식을 차리도록 하지 않고 대중과 함께 공양하시며, 직접 새벽예불에 행선축원을 하시고 발우공양 뒤 울력목탁도 손수 치신다. 대중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 굳건한 정진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매일 마당을 쓸면서 계절의 변화를 살피고 대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다.

때론 승납 50년이 넘은 선덕 스님께서 환갑에 가까운 후배들과 승가대학 학인들에게 마당 쓰는 방법에 대해 한 말씀 하곤 하신다. 모래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를 쓸어 담을 때도 모래를 함께 담아 버리지 않도록 하여 비가 오면 물길이 자연스럽게 흘러 마당이 질어지지 않도록 챙긴다.

학인들조차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로 불편하고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이 대중살이의 기본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고 후배들이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나가기를 바라는 노파심정이 아니겠는가. 예불하고 공양하며 마당 쓰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심오한 수행을 하고 고준한 법문을 베풀겠는가. 참으로 조심하며 삼가고 삼갈 뿐이다.

금년 부처님오신날 아침에도 언제나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신도들이 머무는 요사채 토방을 비질하고 있는데 공양을 마친 노보살 한 분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툭하고 한마디 던진다. "스님, 혹시 그림자도 쓸어낼 수 있나요?"

순간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선문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없이 던진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편하게 대답을 드렸다. "하하, 그림자를 쓸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마당하나 잘 쓸기도 쉽지 않은데 그림자까지 생각하자니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다. 마당을 다 쓸어 마칠 때까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그 보살님이 다시 말을 붙여왔다. "해가 갈수록 안보이는 사람들이 늘어요.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전날 미리 와서 같이 자고 불공을 올리던 사람들이 이젠 그림자도 안보이네요. 누가 그림자마저 쓸어버린 것 같아요." 세월이 쓸고 가버린 도반들의 흔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말속에 사무치고 있었다.

문득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竹影掃階塵不動)'는 야부(冶父)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마당을 쓸다보면 관광객이 버리고 간 휴지, 이쑤시개나 담배꽁초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장난감, 과자부스러기 등 온갖 잡동사니들 그리고 사중식구들이 연등을 달거나 행사준비를 하면서 흘려놓은 케이블타이와 철사 및 테이프조각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온다.

> **부처님 제자 중 가장 우둔했던 주리반특가**
> **'청소' 화두로 쓸고 닦아 깨달음 경지 올라**
> **자존감 낮아지면 '주리반특가 청소' 생각을**

빗자루 끝에서 걸려나오는 쓰레기들을 보며 때때로 그만큼의 번뇌 먼지들이 일어나곤 한다. 대 그림자가 섬돌을 쓸 듯이 그렇게 쓸면 되는데, 마음속에 자잘한 먼지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곤 한다. 차라리 빗자루 쓰는 것을 보면서 흔적이 사라진 도반을 생각하는 노보살의 마음이 더 도가 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주리반특가이다. 오죽하면 "입을 지키고 뜻을 다스리며 몸으로 범하지 말라(守口攝意身莫犯)"는 짧은 게송조차 외우지 못했을까. 결국 부처님께서는 청소(淸掃)라는 말을 알려주시며 도량을 쓸고 닦도록 하셨다.

청소라는 말을 외우며 주리반특가는 마침내 자신의 번뇌와 업장을 다 쓸고 닦아내어 아라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주리반특가는 16나한의 한 분이다. 그저 쓸고 닦는 청소를 수행으로 하여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분도 계시는데, 오랜 시간동안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게송을 외우면서도 제대로 빗자루 쓰는 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도를 닦는 도인이 무척 많지 않은가 싶다. 며칠 전 읍내의 사진관에 다녀왔는데 사진관에 들어가면서 입구도 깔끔하지가 않고 안에도 정리가 덜 된듯하여 내심 '한마디 일러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거꾸로 사진사에게 한마디 듣고 나오게 되었다. 사진 찍는 자세를 잡아주면서 보더니 "스님은 음식을 한쪽으로 씹으시지요, 좌우로 고루 씹도록 하세요. 얼굴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안좋아집니다"고 했다. 제 얼굴도 못 챙기면서 남의 사업에 무슨 잔소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1986년 부처님오신날 성철 스님의 법어는 참으로 명법문이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온 세상에 중생들을 위한 보배 꽃비가 내린다. 부처님의 보배 꽃비가 어찌 높고 낮음과 승속과 빈부와 미추와 귀천을 가리겠는가. 교도소와 들판에서나 공장과 먼지 속에서나 교실에서나 어디에서거나 스스로 마련한 자기의 그릇에 꽃비를 채우는 것이다.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람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면, 주리반특가의 청소를 생각해 보자. 그저 쓸고 닦는 일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얻은 분이 아니던가. 그보다 못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社 說

## 불기 2564년 연등회 취소에 부쳐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취소됐다. 본래 올해 연등회는 지난 4월 25~26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윤4월 부처님오신날(5월 30일)에 맞춰 한달 연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등회보존회는 심사숙고 끝에 '연등회 취소' 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등회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1961년 4.19 계엄령과 1970년 계엄 상황 등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연등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 자발적인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에는 오는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불교계가 갖는 아쉬움은 크다.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이 처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결단에 대중들은 환영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국민을 생각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참 불교답다는 생각이 든다", "해마다 열렸던 행사를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에 고민도 컸을 것이다.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의 결단에 경의를 드린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올해에는 흥겨운 연희단의 군무도, 서울 밤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장엄등의 행렬도, 회향한마당의 꽃비도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리이타(自利利他)' 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가치가 바로 불기 2564년 연등회 취소에 담겨있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년에 찾아올 부처님오신날이 기대가 된다.

## 불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삶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한 삶에서 과연 불교는 인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종교로 인식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토대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는 불교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불교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는 데 항상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할 가치와 진리를, 그 어떤 종교보다 많이 품고 있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코로나 블루' 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다독이는 마음방역 등은 그야말로 중생구제를 향한 불교계 원력과 맞닿아 있다.

21세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과 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오염, 이상 기후현상, 공장식 축산업과 범람하는 쓰레기에 망가져가는 지구를 위한 방안도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녹아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불교의 진수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가공해 현대인에 맞는 대안으로 제시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불교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종교로 거듭나는 불교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사장 法 相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전 화 055)288-6300 팩 스 055)265-005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37-4564 팩 스 055)237-4563
행복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의료생협 명곡한의원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4번길 20
전 화 055)288-6500 팩 스 055)237-7589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 055)277-7626, 011-558-7626, 010-6586-3088 팩스 : 055)277-9101 이메일 : jebs0314@hanmail.net

# 행복한 마음공부, 김영사가 함께합니다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정과 직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즉문즉설 5억 뷰의 법륜스님이 전하는 생활 속의 행복 처방전

행복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날마다 웃는 집**
법륜 | 224쪽 | 10,800원

직장인을 위한 명쾌한 마음 처방
**행복한 출근길**
법륜 | 220쪽 | 10,800원

32쇄 31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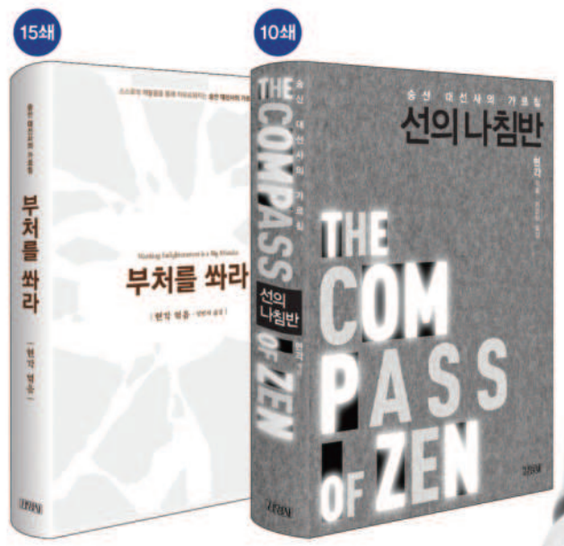

##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걸 모를 뿐!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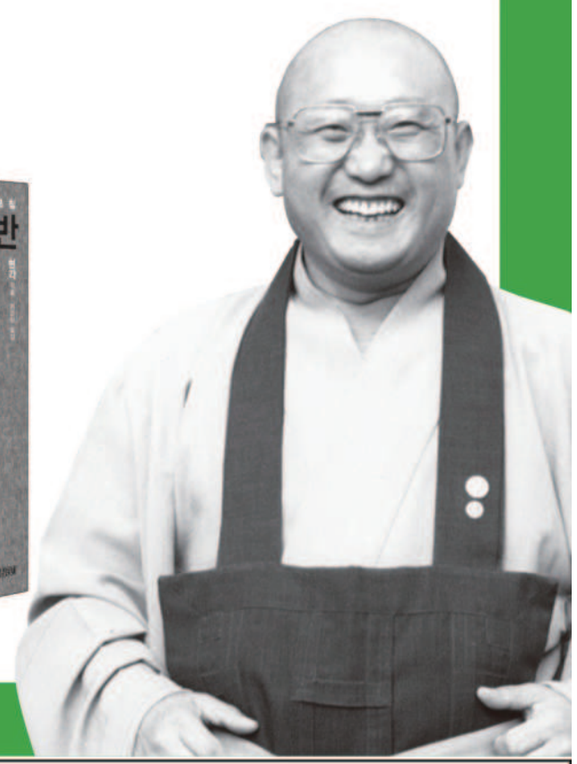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은 숭산스님의 생생한 목소리

스스로 깨달아 자유에 이르는 길
**부처를 쏴라** 법문 영상 CD 2장 수록
숭산 | 현각 엮음 | 양언서 옮김 | 289쪽 | 15,000원

숭산스님의 말씀으로 듣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선의 나침반**
숭산 | 현각 엮음 | 허문명 옮김 | 484쪽 | 18,000원

15쇄 10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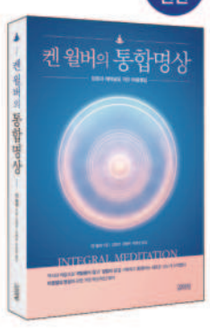



## 성장의 길 vs 깨달음의 길 통합 마음챙김Integral Mindfulness 안내서

화제의 신간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해석**

동양의 '깨달음'과 서양의 '발달 및 진화' 이론을 통합하는 최초의 시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탐구 기법인 마음챙김을 재해석한 제3의 방법 '통합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켄 윌버의 통합명상**
켄 윌버 | 김명권·김혜옥·박윤정 옮김 | 352쪽 | 15,800원

## 앉아만 있는다고 깨칠 수 있는가? 21세기에 최적화된 깨달음의 길, 간화선看話禪

4쇄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과정과 원리를 밝히다**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공부하는 사람이 단번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여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다.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의 구분, 의심疑心이 익어서 의정疑情·의단疑團이 되었다가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기까지의 수행과정별 특징과 병통, 해결법 등 간화선의 요체와 구체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밝혔다.




**간화심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수불 | 284쪽 | 13,800원

##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아침저녁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_백성욱**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 2권)**
한문본, 한글 한문 혼용본 | 김강유 엮음 | 64쪽 | 9,600원

##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호모 데우스》를 탄생시킨 그 책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 한국 최초 정식 출간




자유에 이르는 삶의 기술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전 세계 25개국 스테디셀러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의 생생한 가르침을 책으로 읽는다

"저는 하루 두 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위빳사나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과 평정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고엔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그 이후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_**유발 하라리**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의 저자



**S. N. 고엔카** (1924~2013) 세계적인 위빳사나 명상 지도자. 31살에 위빳사나 명상과 만나 스승 우 바 킨 곁에서 14년 동안 수련하였다. 종파에 치우침 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그의 열린 마음은 다른 종교, 배경, 계층, 성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 코스**
윌리엄 하트 엮음 | 담마코리아 옮김 | 216쪽 | 11,500원

달라이 라마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고백



심리학과 과학의 질문에 행복이 답하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352쪽 | 12,800원

종교의 한계 너머, 자비의 실천방법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 이현 옮김 | 248쪽 | 13,500원

틱낫한 스님의 깨어 있는 삶의 예술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

스님의 대표 저작과 강연의 핵심 모음집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 류시화 옮김 | 289쪽 | 12,000원



니까야 전체를 주제별로 한 권에 정리한 역작
**수트라: 여시아독** 개정판
비구 범일 | 양장 | 528쪽 | 29,000원

선불교의 핵심 공안 100개와 그 풀이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양장 | 504쪽 | 21,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박사의 일화와 가르침 모음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인식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 연기법을 입체적으로 탐구한 문제작
신용국 | 양장 | 608쪽 | 28,0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쉽게 풀어쓴 황벽선사 〈전심법요〉 선해
수불 | 604쪽 | 25,000원

**선심초심**
미국에 선 수행의 돌풍을 일으킨 스테디셀러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58쪽 | 13,000원

현대불교 B1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제 1295 호

# 언택트 · 뉴노멀 전환
# 불교, 변화해야 산다

## 왜 '포스트 코로나'인가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앞으로 세계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눠질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들이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황금연휴면 여행객으로 북적였던 공항은 한산해졌다. 퇴근 후 운동이나 모임도 어려워졌다. 당연한 듯 누렸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가움의 인사인 악수는 팔꿈치 치기나 합장으로 대신하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에티켓이 됐다.

이에 맞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 비접촉으로 대표되는 '언택트(Untact)'다. 배달 · 택배 · 게임 · OTT(Over The Top) 등 언택트 관련 산업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종교계에도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도 예배를 강행했던 일부 교회와 비정상적 신앙행위를 한 개신교단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반면 불교계는 감염 예방을 위해 법회와 강연, 모임 등을 전면 취소하고 몇몇 본사들은 산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한 달 연기 끝에 결국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으로 돌려놓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라이프 스타일은 신행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법회의 활성화와 실시간 예불 중계들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사찰 순례 문화도 대형 모임보다는 가족 단위 순례로 축소 · 변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사찰의 재정 감소로 이어졌고, 그간 불교계 종단과 사찰의 재정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는 불교계의 수행 및 대사회적 역할과 실천 아젠다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명상 어플리케이션이 호황을 누리는 등 명상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마음 수행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불교계가 맡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기, 포장재 등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적 환경 담론과 실천 방안을 대중에게 전해야 한다.

세상은 변했고 변하고 있다. 이제 불교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또한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시대적 언어로 불법을 전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탈종교화의 가속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POST CORONA & Buddhism

# 성찰로 불교를 새롭게 바꾸자

## 뉴노멀 시대 불교

### 비제도권 불교 활성화
### 공공기여 요구 증대
### 성찰 행동 규범 보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일종의 대격변에 처해 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알던 세상은 없다. 앞으로 우리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을 하게 되며 그 것이 미래사회의 형태를 결정 지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인 유발하라리의 말이다. 이른바 BC(Before Corona)에서 AC(after Corona)의 세기적 전환이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2020년 1월과 2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5월이 왔다.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코로나 이후를 향하고 있다.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이는 불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거를 보면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인류가 경험한 큰 변화의 이면에는 전세계에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농업의 쇠락과 상업의 증진으로 르네상스의 기반이 됐다. 2차 세계대전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가 개막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의 신호탄이 됐다. 위기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 코로나19가 불교에 미친 파장

코로나19는 불교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교계의 코로나 대응부터 그렇다. 코로나 19 확산시기 신천지의 조직이기주의적 행동과 일부 개신교 교회의 예배 강행으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이들 종교단체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교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연등회 연등축제 등 주요행사의 전면 취소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의 분담금 감면을 진행한데 이어 사찰들이 교구본사 적립 회계서 한시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로 특별 대출하는 제도 시행을 알렸다. 일선사찰의 운영비 지원책까지 나올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불교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은 활동 축소와 인력 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 진행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자체가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실무자 입장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은 제도권 불교의 활동 축소로 이어진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는 결국 사찰의 존폐 문제까지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시선까지 낳는다. 이런 와중에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의 체질 개선과 불교계 다양한 사업의 경제적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종교가 잠시 멈춘 동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이타행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 불교에서 담당했던 것을 비제도권 불교, 소규모 불자모임 등에서 담당하기 시작했다.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최근 승가공동체 0715와 함께 국밥나눔 행사를 열었다. 탄경 스님은 "불교 가르침은 결국 자비실천이기에 사찰에서 대중이 모이지 못해도 곳곳에서 자비행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도 도반들의 힘이 컸다. 코로나로 인해 사찰들이 해왔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스님들과 불자들이 더욱 더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비제도권으로 무게중심의 변화는 신행활동에서도 감지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사찰에 나오지 못한 불자들은 각 가정에서 개인수행에 매진했다. 법회 중단에도 개인수행이 늘어나며 아이러니하게 조계종이 진행하는 신행수기 공모에는 역대 최다 작품이 몰렸다는 후문도 있다. 이러한 수행을 돕기 위해 사찰은 온라인 법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홍법사와 합천 해인사 서울 봉은사, 안양 한마음선원 등이 4월부터 유튜브 스트리밍 법회 중계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실시간 기도상담과 영상 사찰 소식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외계층을 보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주민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필품 전달 및 마스크 기부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한달간 '코로나19 치유와 극복기도'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릴레이기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계, 일본불교종단까지 동참해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회성이 아닌 사회운동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감소 소식을 들은 상월선원 결사대중들이 안거 후 첫 행보로 헌혈을 하고 조계종이 코로나19 의료진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기도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기여가 늘어나고 있다.

실직자를 위한 내비둬 콘서트 등을 직접 진행했던 일감 스님은 "코로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라며 "불교 연기법에 근간해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보듬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계기를 불교계가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포스트 코로나는 '성찰'부터 시작하자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계가 코로나의 근본원인을 짚고 그 발생원인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의 원인인 세계화와 도시화, 인간중심의 탐욕 경쟁에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스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다. 생활 편리를 위해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시킨 이른바 문명사회에 대한 자연의 경종"이라며 "코로나는 종래의 온갖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인류의 삶의 태도와 생활방식, 사고습관의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는 불교계에도 예외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탐욕이 불러온 코로나19로 인한 치유는 결국 인류가 지닌 이타성의 발현, 소욕과 절제의 미덕을 통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불교가 지닌 사상적 근간이 코로나 치유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것이란 결과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야기한 우리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과 공업중생으로서 사회적으로 참회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전환해야 할 방향과 삶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가자. 또 고통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 활동과 행위를 조직화 하는 행동규범을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정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 장 **월도** (마산 삼학사 주지)

부회장 **갈지** (창원 원흥사 주지)
**성일** (마산 수선정사 주지)
**해초** (진해 천자암 주지)
**무성** (창원 구룡사 주지)
**진홍** (마산 자비정사 주지)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75
사무국 055)222-139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원 **구룡사**

주지 **무 성**
총무 **원 오**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Tel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 성 전 암

주지 **혜 찬**

신도회일동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로 65번길291
Tel 055)754-7056 Fax 055)753-8662

##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원 명**
총무 **영 공**
감사 **정 광**

신행단체

함안 불교신도회 회장 **조용찬**
함안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함안 공무원 불자회장 **심은숙**

경남 함안군 칠원읍유원길778(달전사)
055)587-8419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 사천시불교 사암연합회

**금강회**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태고종

##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태우 (부은사)**
원로의원 **산옹 (용문사)**
원로의원 **대안 (극락사)**
원로의원 **등법 (법운사)**
원로의원 **서산 (보광사)**
원로위원 **세명 (관음정사)**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자문위원 **운봉 (보련암)**
자문위원 **과허 (대운사)**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종무원장 **환명 (약수암)**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교무국장 **법조 (보현사)**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규정국장 **혜각 (수도사)**
문사과장 **지연 (일원사)**
교무과장 **법윤 (불정사)**

종회의장 **정광 (문수암)**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남부분원장 **도각 (선암사)**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Tel 055)298-3634 Fax 055)298-3638

대한불교관음종

##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 여**

사부대중일동

**법화경 기도소원성취도량**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TEL 055)761-5382

대한불교조계종

##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Tel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울산 유일의
영구봉안 **납골당**

##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참배용이

비용 : 100 – 1,000 만원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17번길15 (옥동)
052)258-9944, 212-7000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용문사**

주지 **지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055)862-4425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지 **녹 원**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TEL 055)356-0124 부산포교당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 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전화 052)251-4602 팩스 052)235-4602 모바일 010-8768-3930
메일 wolbongsa33@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 상**
주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울산지원 합창단



마음의 도리와 이치를 설하신
대행스님의 법음을 전하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거사, 보살 선법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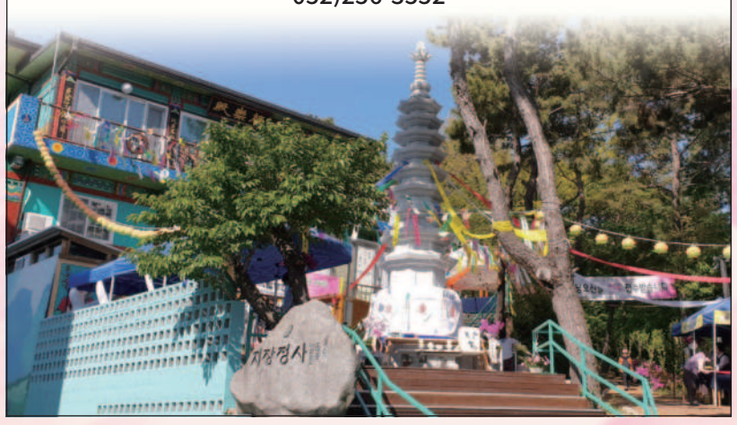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Tel. 052)295-2335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 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주지 **진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382
052)238-5088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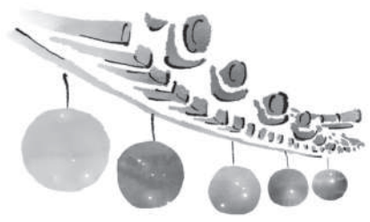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Tel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 신 흥 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3916, 2695
FAX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Tel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 신중3일기도
초삼일 : 독성3일기도
16일 : 산신기도
18일 : 지장재일 법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 삼각산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 호국본찰 중흥사

사부대중일동

나를 위한 행복 여행
**중흥사 템플스테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3(북한동)
TEL 02-357-7744 / FAX 02-385-0755
상담문의 jhs3554488@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 포 란 사

주지 **자 혜**

포란사 신도회 일동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850-48
041)942-5106

대한불교조계종

##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TEL 02)353-4924 /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 아차산 영 화 사

조실 **송 월 주** 스님

사부대중일동

다음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 미 륵 정 토 사
## 무한참나선원

사부대중일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Tel 041)855-3566

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Tel 02)912-1050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찰 및 종단의 재정구조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사찰이 재정난에 봉착했고, 이는 각 종단 운영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한 기도 · 보시금에 의존하는 획일적인 사찰 재정구조, 그리고 사찰분담금 위주의 취약한 종단 재정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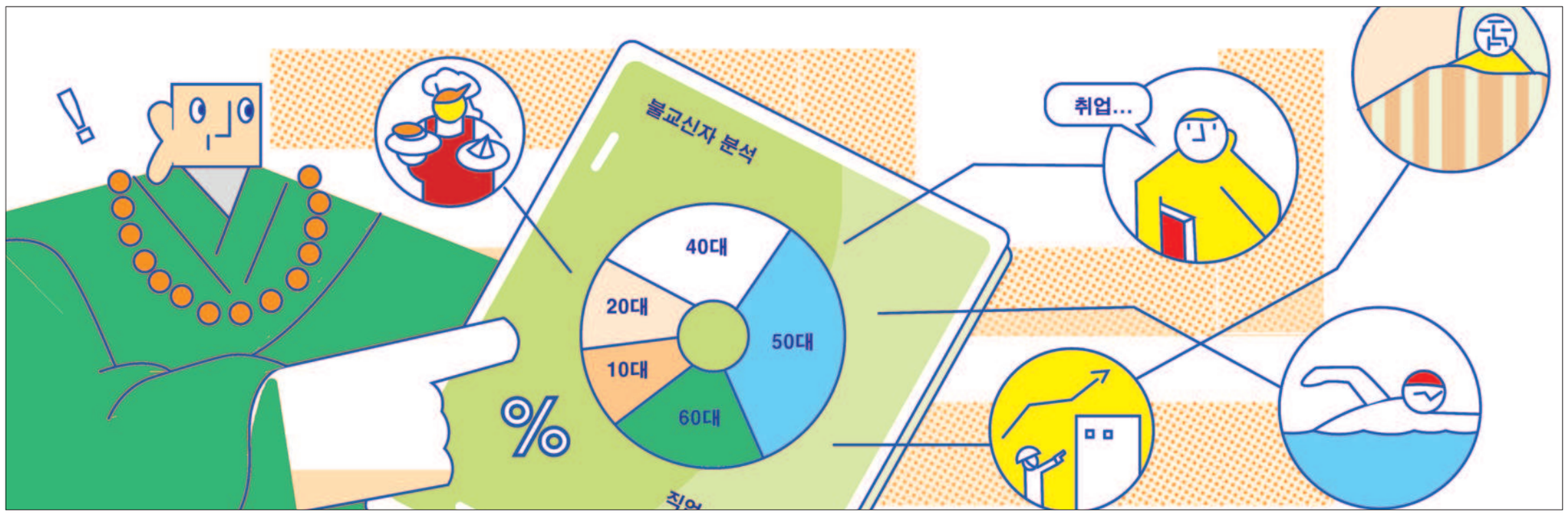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 자율보시 정기화 등 안정화 방안 필요

## 사찰·종단 재정구조

### 취약한 사찰 재정 '흔들'
### 기도비 · 보시금 의존 높아
### 사찰 재정난이 종단으로
### 비대면 보시체계 확립필요
### 종단, 신도교무금 활성화
### 수익구조 다변화도 시급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교계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사찰 재정난의 가장 큰 이유는 2월 입춘 이후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시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사태가 본격화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그만큼 사찰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찰 재정난은 곧 포교 및 대사회활동의 위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대다수 사찰의 재정구조는 신도들의 기도비와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사찰 방문시 대면을 전제로 이뤄져 왔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납부 방식을 CMS와 자동이체 등 비대면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찰 연중행사 중심의 자발적 보시 형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도 동참을 회원제 형태로 관리하거나, 신도 개개인이 연간 보시금을 사전에 일정한 수준으로 책정한 후 정기적으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효율적인 신도관리는 물론, 매년 들쭉날쭉했던 사찰 재정구조를 안정화하고 사찰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포교시스템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찰 법회의 형태와 일정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통적으로 사찰 법회는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초하루, 정초 등 음력 날짜에 맞춰 봉행해 왔지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바쁜 현대인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도록 일요일 정기법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도교육 및 신도조직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이끄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보시금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방송 등을 이용해 비대면 동참하고 기도비 등을 간편하게 보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사찰 재정난으로 인한 여파는 종단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종단 운영예산의 90% 가량을 사찰분담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일선사찰의 재정난이 분담금 급감으로 이어진 것. 중앙분담금 뿐 아니라 직할 · 법인 · 특별 · 문화재관람료 · 직영분담금 등 모든 분담금이 급감했거나, 이후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문화재관람료 분담금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계종 총 무원에 문화재관람료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모두 70개소, 이들 사찰의 올 상반기 분담금 납부액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관람료 12% 분담금 납부사찰의 경우 올 3월 납부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지난해 3월 납부액인 2억9766여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올해 1~2월 납부액과 비교해도 감소추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1월 납부액은 2억7706여만원, 2월 납부액이 3억22만원으로, 한달새 50% 이상 감소한 셈이다. 5%분담금 사찰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 1억2402여만원이었던 납부액은 올 3월 6282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담금 감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성보문화재 관리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화재관람료 사찰 70곳 가운데 올 상반기 문화재관람료가 아예 징수되지 않은 사찰이 9곳, 총 감소율이 50.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화재관람료사찰인 불국사는 예년에 비해 90%, 석굴암은 87.9% 감소했으며 분황사가 81.5%, 해인사가 79.1%, 봉정사가 75.8%의 감소율을 보였다. 4월 납부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종단 운영을 위한 세입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분담금도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선사찰인 말사에서 교구본사에 보낸 분담금을 취합, 일정 요율을 적용해 종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각 사찰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계종은 올해 분담금을 10%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분담금 10% 삭감시 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종단의 취약한 재정구조가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시각이 많다. 종단 운영 예산의 약 90%를 사찰분담금에 의존하는 만큼, 전국 사찰들이 어려워지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조계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8%가 분담금 수입이었다. 이 중 직영분담금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분담금 19.6%, 문화재관람료분담금 17.5%, 특별분담금 11.2% 순이다.

사실 조계종의 취약한 재정구조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종단 운영예산 중 분담금 의존도가 압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대체로 사찰 재정 투명화와 수익구조 다변화, 효율적인 조직 정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도교무금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총지종의 경우 교무금의 다른 형태로 교리에 근거한 '희사'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승직자는 수입의 10분의 2, 교도들은 10의 1을 재적교당에 희사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액수를 강제하진 않는다. 다만 상당수 교도들은 불공의 일환으로 대사회활동을 위한 희사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총지종 총무부장 원당 정사는 "희사금은 전체 종단 예산의 상당부분을 자치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교도분들이 교당에 나오지 못하면서 일정부분 재정이 감소된 측면은 있지만 자택에서 기도하며 희사하는 분들도 계셔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경우 신도 교무금을 강제하지 않으며, 사찰 보시를 감안해 연간 1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조계종 등록신도 30여만명 가운데 교무금을 납부하는 수는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신도들이 재적사찰에 내는 교무금의 50%는 교구본사를 거쳐 종단 재정에 포함되며, 전체 예산의 2% 수준이다.

신도교무금은 신도들이 사찰과 종단에 대해 갖는 주인의식과도 직결된다. 때문에 신도들이 사찰 공동체의 한 일원이자 종도로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보다 적극적인 신행 · 포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종무행정 전문가인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찰과 종단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스님과 신도 모두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찰 신도로서, 또 종도로서 소속감을 심어주고 사찰 운영 및 종단 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선 사찰은 정기적이면서 비대면으로 대체 가능한 기도 · 교육기회의 확대, 비정기적 보시금의 정기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종단의 경우 분담금 의존도를 낮추고 신도교무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 (02)3411-8103~4 www.kbiguni.org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 압 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 (02)803-4779 Fax (02)891-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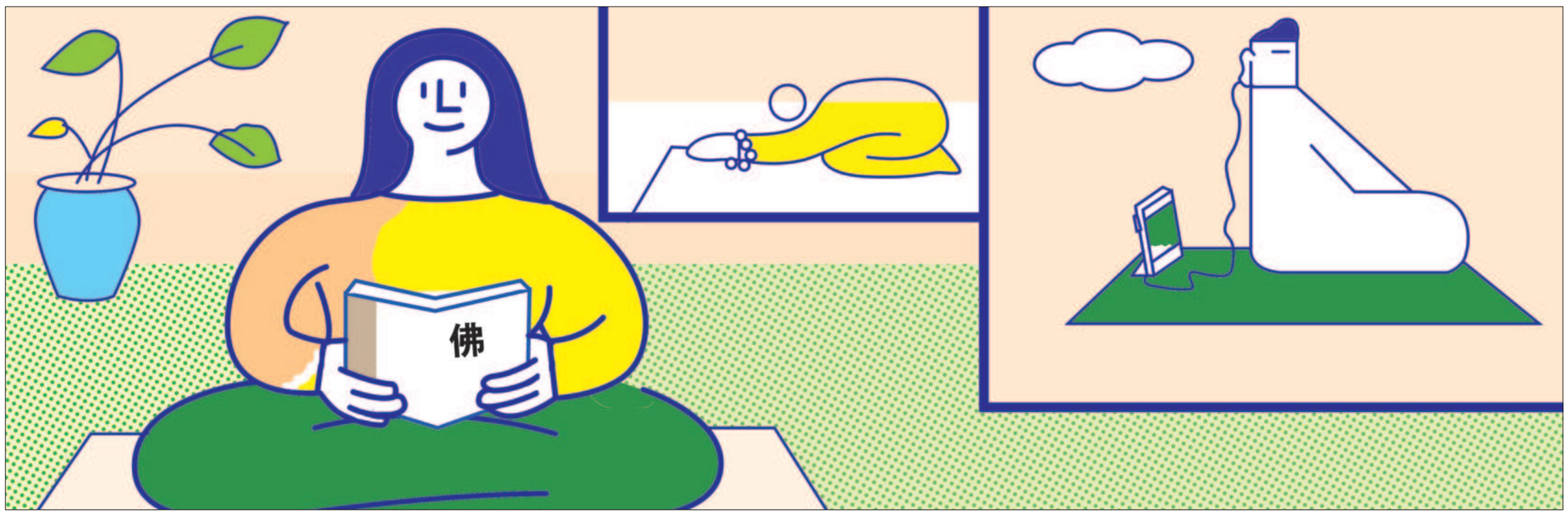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 사찰, 신행 네트워크 허브로 개발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아가라." 오탁악세의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오롯이 정진하라는 의미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사회에 '언택트'(Untact)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불교계에까지 언택트 신행이 거론 되는 시대 이 수타니파타의 구절만큼 맞는 말이 있을까.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신행의 모습이 다가올지 살펴보자.

**편집자 주**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교 수행 & 콘텐츠

**수행·전법**

코로나 이후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르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불교에 한정되어 살펴보자면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서의 높아진 수행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블랙키위 연중 검색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1월부터 '불교' 관련 유튜브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7월 14100건에서 올해 1월 14900건 등 연중 17500건을 넘지 않던 '불교' 유튜브 키워드 검색량은 2월 20600건, 3월 24000건 등으로 70%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수행' 키워드 검색량도 1월 6400건에서 2월 6510건, 3월 7510건, 4월 7440건으로 17% 증가했다.

불교수행 뿐만 아니라 '명상' 키워드 검색량도 2월 14900건부터 3월 16900건, 4월 17900건 등으로 덩달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를 검색하는 목적도 정보 취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 키워드 검색 후 결과 취득의 내용 중 85.4%가 정보성, 14.6%가 상업성으로 나타나 수행, 명상프로그램의 상품 구입보다는 직접적인 수행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인 GS네오텍이 5월 3일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과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2월 이후 트래픽이 평소보다 월 40%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웹 에이전시 고성호 루트비쥬얼스튜디오 팀장은 "코로나 확산기간 '홈트'(홈트레이닝)로 대변되는 트렌트처럼 집안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며 집 안에서의 수행과 명상 등의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교로 보면 사찰에 가지 못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불교 신행정보를 검색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보통 선방과 같은 수행처에서 지도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각 가정에서의 개별 수행, 신행활동이 있지만 아무래도 스승인 스님들이 있는 사찰에서의 활동이 중심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사찰로의 접근이 쉽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행, 신행문화가 떠오른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봉은사와 홍법사를 비롯한 사찰들은 유튜브 스트리밍 법회와 신행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언택트 콘텐츠를 봇물 터지듯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법회 중계에만도 그치지 않는다.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불교교리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중앙

**코로나로 '집콕' 기간동안**
**'수행' 정보 검색 17% 증가**
**코로나, 언택트 당겼을 뿐**
**언택트 수행은 시대의 흐름**
**콘텐츠 개발 과제 떠올라**
**소통 네트워크 구축해가야**

신도회(회장 이기흥)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대 수행법 정진인 수행바라미의 온라인 연수를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수행바라미 안내자료를 받아 개별수행하고 SNS에 인증하고 서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귓전명상을 운영하는 유튜버 채환 씨는 아예 본인의 수행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잔잔한 명상음악과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사회에서는 KT와 같은 일반 사업자들도 종교계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했다. KT가 3월 8일부터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올레tv CUG(Community User Group)'에는 '우리교회tv'가 운영 중이다. 약 190여개 교회에서 우리교회tv를 운영해 2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다.

사회에서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계속 남아있고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단주의 문화의 쇠퇴와 개인주의로의 전환, 삶에 대한 기준이 바뀌며 기성 사회관계망이 크게 변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쿠팡과 아마존을 비롯한 이커머스, 온라인 소매유통의 발달, 모바일AI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언택트 문화가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은 이를 가속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에 대비해 수행과 신행활동 외에 전법과 포교영역에서 언택트 활용이 필요하단 말까지 나온다.

봉은사 기획국장 제환 스님은 "신행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현재는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도입 초기의 목적에 더해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법회의 유입자 분석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다. 향후에도 기존의 신심 깊은 고령의 불자들과 함께 새로운 불자 양성에 보조수단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언택트로 위시되는 개별 수행과 신행활동이 이뤄지면 반대로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화엄사 부설 화엄선재불교연구소는 '2020 종책연구 보고서-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한국 종교의 현실과 방향'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신도와의 원활한 소통, 법문 자료 등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사찰에 오고 싶어하는 신도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스님과의 인연을 쌓고, 신도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며 "코로나로 인해 개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신행 공동체로 이어져 온 분들이 수개월 만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소통창구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조계사의 경우 올해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찰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진행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일종의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창구의 필요성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더욱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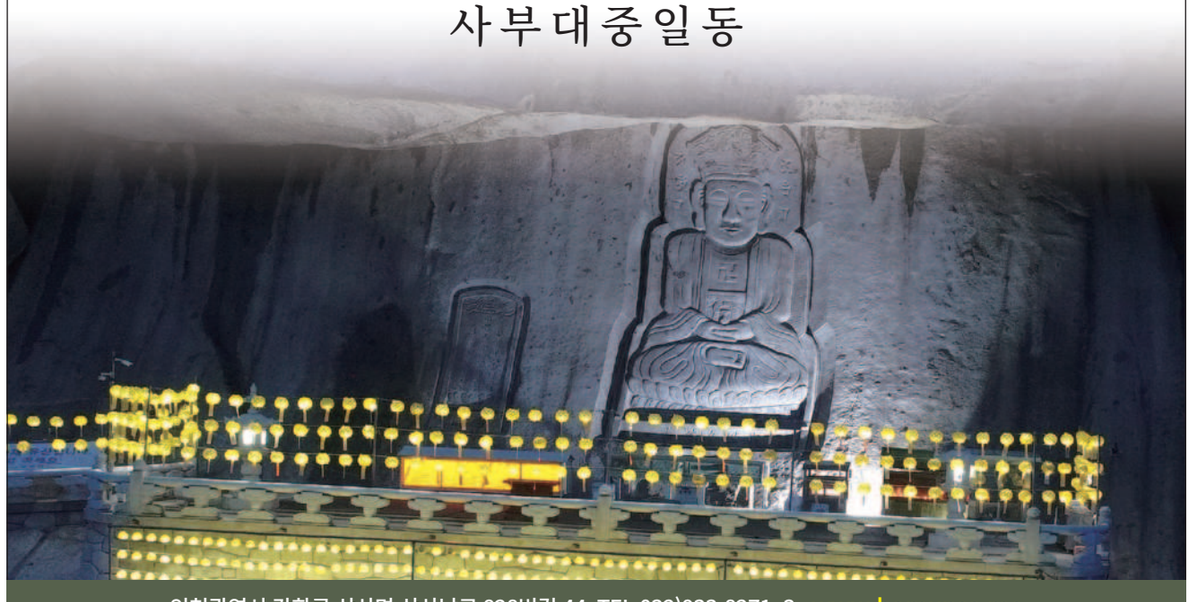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사찰 신도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접하는게 꺼려지면 아무래도 기존 도반들끼리의 유대감은 강해지지만 반대로 그룹 간의 간격은 멀어지기 마련"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찰과 스님들이 개인, 소그룹 간의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야한다. 일종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포브스지는 5월 18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웃 종교계의 신행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슬람 이맘이 페이스북을 활용해 금요일기도를 개최했으며, 유대인 공동체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인 Zoom을 통해 회당에 참석하고 있음을 전하고 일부 교회의 경우 페이스북 라이브 등에서 신도 유치의 경쟁이 붙어 다채로운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와 설법의 현대화와 용어의 재정비 등 전반적인 불교 수행 · 신행 콘텐츠의 정비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일반 상점 등에 직원이 없는 키오스크 도입 등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회변화로 있어왔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자체가 디지털화, 모바일화로 귀결된다. 코로나는 단지 그 흐름을 급격히 당겨왔을 뿐"이라며 "불교는 그렇다면 이제 언택트 사회에 대비해 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TEL.032)933-8271~3 www.bomunsa.me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TEL. 02)356-2001 / FAX. 02)359-629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회의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더 세심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급변하는 사회 속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불안감과 우울감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마음방역' 도 절실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 속 그늘을 밝히는 행보가 필요한 때다. **편집자 주**




그림 · 박구원

# '코로나블루' 치유 중생과 함께해야

**복지·마음케어**

**사회 양극화 현상 가속화**
**소외이웃, 더 사각지대로**
**전염병 현장 찾은 부처님**
**피해자들 고통 치유부터**
**진정한 종교 역할 실천해**

"세계화의 풍요를 맛보지 못했던 이들이 정작 코로나19 사태에선 두 배로 가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이번 사태가 인본주의적이고 생태학적인 전환을 통해 돈에 대한 숭배를 끝내고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유하고 보호하고 나눠야 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세계 각국 사회운동단체 대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외된 이들을 위해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문이다. '가정주부, 병자, 노인, 소작농, 노점상, 재활용업자, 이벤트 종사자, 건설노동자, 의류업 종사자, 돌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 삶을 지탱하기 위해 불안한 줄타기를 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된 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사회 힘 없는 자들은 더욱 힘을 잃고 아픈 사람들은 더 약해졌으며, 소외된 이들은 더욱 소외된 곳으로 밀려났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도 지난 4월22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을 주제토론회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그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의 고민도 깊다. 전세계적으로 중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교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강조하는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모든 만물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에(자타불이 自他不二)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 했다. 불교의 중생구제 원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로 구현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불교계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봉축법요식을 한달 뒤로 연기한 대신, 한달간 '코로나19 치유와 극복 기도' 를 봉행 중이며 제등행렬 등 연등회까지 취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코로나19 치유와 극복 기도' 는 질병과 관련한 대표적인 경전으로 꼽히는 〈보배경〉 낭독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이 경전을 통해 이시대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지 알 수 있다. 〈보배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전염병이 창궐한 베살리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듬고 치유한 일화가 담긴 게송으로 구성됐다.

경전에 따르면 당시 죽림정사에 머물던 부처님은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의 요청으로 일주일을 걸어 베살리에 당도했다. 이때 부처님이 설한 게송이 바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발원하는 내용이 담긴 〈보배경〉이다. 부처님은 시민들에게 〈보배경〉 암송을 권한데 이어, 발우에 담은 물을 환자들에게 뿌리고 제자들과 함께 도시를 돌며 시신을 치우며 거리 곳곳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7일 후 전염병은 사라졌다고 전한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위험지대에 스스로 들어가 고통받은 중생들을 위로하고 치유한 부처님 일화는 마음방역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되짚게 한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사회학 교수는 "당시 부처님의 행위는 물리적 · 사회적 면역체계와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전염병으로 고통 받은 이들에게 〈보배경〉을 설하고 그 게송을 암송토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심리적 면역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부설 화엄선재불교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2020 종책연구 보고서-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한국 종교의 현실과 방향' 에서 "부처님은 재난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재난 현장의 고통받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며 봉사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성찰과 위로 메시지 전파,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사찰 차원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신도와의 원활한 소통 △국민을 향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 전파 △생활 방역 후 실천 가능한 봉사활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단 차원에서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법문 자료와 동영상 제공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구국 기도법회 △취약계층 대상 봉사와 방역 지원 △재난 대비 메뉴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불교계가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종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마음케어, 직접적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 즉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등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선봉에서 자신을 희생한 의료진 등의 심신안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교심리상담과 명상 등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온 사회에 뿌리 깊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고, 성소수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속에서 문자서비스와 SNS 등을 토대로 법문이나 명상을 소개하거나 심리상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속 사회복지계도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복지관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소외이웃들은 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렸고,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정서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 SNS 활용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대폭 증가한 것도 그 일환이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영상으로 찍어 배포하고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도 비대면으로 전송하는 등 바야흐로 비대면 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계에 4차 산업혁명이 불쑥 다가왔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비대면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또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반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기계 조작에 미숙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교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생계 뿐 아니라 심리적 소외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올해 봉축법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임을 지적한데 이어 "모든 불자들은 인류의 화합과 공생(共生)의 연등을 켜고,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대광명의 연등을 켜자"며 종교 본연의 역할로서 사회적 아픔을 치유할 것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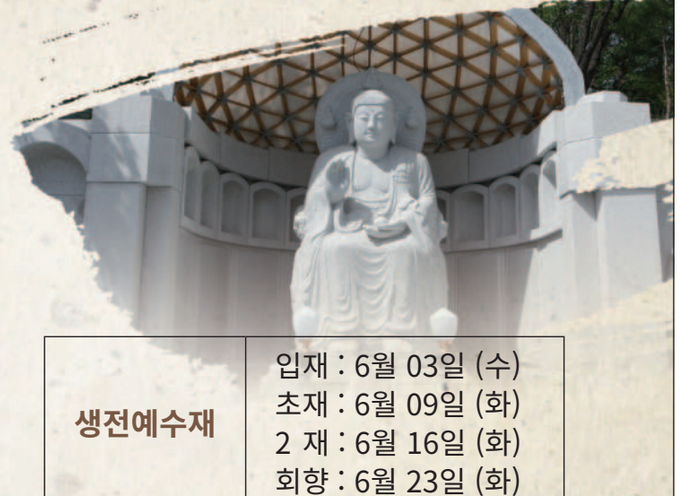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화계사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 | |
|---|---|
| 생전예수재 | 입재 : 6월 03일 (수)<br>초재 : 6월 09일 (화)<br>2 재 : 6월 16일 (화)<br>회향 : 6월 23일 (화) |
| 백 중 | 입재 : 7월 16일 (목)<br>회향 : 9월 02일 (수) |
| 불교대학 | 화요일 ~ 일요일<br>문의 : 02-997-646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Tel (02)902-2663 Fax (02)990-1885 | www.hwagyesa.org




그림 · 박구원

# ‘그린뉴딜’, 불교 생명 · 환경관 자체

기후변화·환경

코로나19 사태는 지구가 인간에게 주는 경고로 평가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공장식 축산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세계 산업이 강제로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급감하면서, 모순적이게도 지구 환경이 개선되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고 가시거리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의 지붕’으로 일컬어지는 만년설의 산맥 히말라야는 스모그가 사라지면서, 160km 떨어진 펀자부주에서도 육안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각국에서 기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최근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진행한 웹세미나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을 위한 큰 우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저탄소와 탈탄소’”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그린뉴딜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과거로 회기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혁명의 기회로 삼아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월20일 “우리가 가야할 길이 그린뉴딜에 있음은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린뉴딜’에 발맞춰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거니즘이다. 개개인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삶을 실천할 때 의외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는 “의외로 채식 위주의 식단 변화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메탄과 블랙카본 등 단기성 온실가스를 현저하게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블랙카본의 40~50%는 축산업 확대를 위해 숲과 대초원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는 시작일 뿐**
**21C 인간 질병 75% 이상이**
**동물서 유래한 병원체 원인**
**저탄소 · 식문화변화 없다면**
**감염병 · 이상기후 등 악순환**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담긴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전인류가 채식이나 비건(완전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꿀 경우 최대 연간 8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고 대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가 축산업과 이로 인한 부산물에 기인하고 있으며, 13%가 자동차와 비행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지구 총 토지 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반 가까운 토지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전세계 축산 농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도시인 41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과 맞먹으며, 미국 축산업에서만 매초 700만 파운드의 배설물이 나와 토지를 오염시킨다. 식습관의 변화가 실제로 지구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 대표는 “식습관 변화, 그리고 생산에서 폐기까지 먹을거리와 관련한 시스템만 개선해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50%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며 “인류는 식습관 변화를 통해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지구, 밥상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지구와 인류 미래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재창궐 가능성을 낮추고 병든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그린뉴딜’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공감대, 그리고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이에 기반한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

근본생태 철학자 아느 네스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학적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관리해 왔다는 인식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고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는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환경의 종교’인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무엇보다 그린뉴딜은 불교의 생명관 · 환경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음을 알고 온 우주가 거대한 인드라망으로서 서로 관계하고 변화한다는 것이 불교의 생명 · 환경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과 환경간의 관계성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로써 불교적 이상세계 정토(淨土)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불교계의 역할이자 불자들이 실천에 나서야 할 이유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불교교리의 재해석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구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가치들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속에 무궁무진하다. 연기법, 자비와 불살생의 생명윤리, 불교의 자연관을 드러내는 의정불이(依正不二,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 사상, 소욕지족(少欲知足)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변화시켜 대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실천을 이끌 수 있는 지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보신주의를 경계하고 육류 중심의 식단에서 채식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날 동물을 사육하고 상품화하는 공장형 축산업은 수요가 줄어들수록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공장형 축산업은 살모렐라균, 조류독감, 신종플루와 광우병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듯 세균과 바이러스의 배양소와 같다.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빼곡하게 채워 사육하는 방식은 반생명적일 뿐 아니라, 병원균의 변이와 감염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지속해 온 녹색사찰 캠페인도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녹색사찰은 사찰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실천약속이다. 녹색사찰은 떡과 공양물을 담는 비닐을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바꾸고 종이컵과 일회용 접시 대신 개인컵과 뻥튀기 등을 사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일회용 쓰레기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사찰이 먼저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채식 위주의 식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일상 속 실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선도하는 건 어떨까. 동시에 불교계 차원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사회 환경의식 개선을 주도, 공감대를 모으는 교육의 장이 된다면 말 그대로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회향 그 자체일 것이다. 송지희 기자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초반 새롭게 나타나거나 재발한 인간 질병 중 75% 이상이 동물이나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한 병원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역시 박쥐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전염병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위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창궐해 인간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또 그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삼 막 사
주지 성 무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 Tel 031)471-5978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서주 태원
감 사 월암 덕상
감 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태 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 Fax. (02) 741-1385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용담 효재
사부대중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2리 328
TEL 054)975-9045, 010-9045-904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금용 복지회관)
혜 선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3(성당동)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TEL 054)873-2908 FAX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 달
주지 철 산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 련 사**
종무원장 법 웅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TEL 053)781-3784, 053)781-3111

# 불교 '잊혀진 사람 · 환경'에 주목하라

〈The Forgotten〉

## 불교 지성에게 듣다

### 조 성 택 고려대 교수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은 인류 사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불교도 마찬가지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법회와 교육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사찰 및 종단의 재정 구조의 취약성 등이 확인됐다. 코로나19는 지금 불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5월 20일 만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시사하고 있는 지점도 '변화' 임을 분명히 했다.

"먼저 '코로나의 역설' 이라는 현상들을 봅시다. 인류의 이동수단과 물류의 이동이 멈추면서 지구가 살아났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대기가 청정해졌습니다. 소음을 제거하고 미세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 변화의 지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이제 인간의 삶은 변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미세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월 19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감염 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곳은 종교였다. 특히 일부 개신교단과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반면 불교계는 법회와 강연을 취소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전환했고, 연등회는 취소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계의 대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함께 전했다.

"개신교회의 특성상 예배는 교회의 예산에 직접 연관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모범적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등회 취소에 있어서 신도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보입니다. 행사 취소 대신 신도들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택 교수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새로운 신행문화인 온라인 법회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새로운 설법방법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제가 대학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중 무엇이 좋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를 좋아하더군요. 한 학생의 이유가 재미있었어요. 대면 강의할 때는 교수가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비대면 강의를 하니 교수가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라인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적응이 되면 스님과 신도간 친밀도는 높아질 겁니다. 또한 바로 바로 실시간 피드백과 쌍방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설법 방법론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설법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의 종교 위치를 묻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히 '종교 없음' 이 우세해지는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 지형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보여지는 '탈종교화' 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막스 베버는 근대를 '탈주술의 시대' 라고 봤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접어들며 탈종교화는 시작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탈종교화가 가속화됐다' 는 지적이 있는데 이미 탈종교화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종교가 없는 사회'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도권 기성 종교에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통계청 인구센서스조사에서 무종교인들이 종교 인구를 추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종교 없는 사회' 로 나아가는 이유로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목사와 사모가 치료사역을 한다며 분무기로 입안에 소금물을 뿌려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와 같이 종교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성종교에 사람들이 진입하지 않는 것은 부모 세대가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입니다. 종교를 믿던 믿지 않던 똑같은 행실을 한다면 자녀 세대에게는 종교를 믿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의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의 경우 자유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입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종교가 없는 자리를 돈과 지위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채워넣고 이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세의 세속적 가치에만 매몰된 사회는 삭막하거니와 발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코로나 사태, 삶의 변화 요구하는 미세신호**
**한국 종교지형 '종교 없는 사회'로 진행 중**
**종교 떠난 자리 돈 · 지위 세속 가치만 남아**
**'종교 불신' 주요 원인… 부모세대 반성해야**
**'자리이타' 한국 종교계가 되새겨야 할 본령**

앞으로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와 종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조성택 교수는 '자리이타(自利利他)' 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키워드로 내놨다.

"현 시대의 사람들에 종교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실천적 문제와 행동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승불교의 정신이자 종교의 본령인 '자리이타' 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교와 종교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본정신입니다."

불교계가 집중해야 하는 코로나19 아젠다에 대해서는 조성택 교수는 '잊혀진 사람들' 과 '환경' 문제를 꼽았다.

'잊혀진 사람들' 은 로버트 라이시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 있는 개념이다. 라이시 교수는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확산 후 새롭게 4가지 계급이 출현했고, 이에 대한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시 교수가 말한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들이다.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문 · 관리 ·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임금도 이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요원(The Essentials)' 들이다. 전체 노동자의 약 30%로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염려는 없지만 대면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 로 소매점 · 식당 종업원과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다. 네 번째 '잊혀진 사람들(The Forgotten)' 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잊혀진 죄수, 노숙인, 이주민 등이다.

환경문제 역시 현재는 주목받지 못한 사회 문제이다.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해 대도시 밀집화와 집단 사육이 꼽히지만 정작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난 일회용기와 포장재 등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중에게서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것이 현 상황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대중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실천 아젠다는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만큼 종단적으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종책과 실천 지침을 대중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성택 교수는 불교와 종교는 위로와 경청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기 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잊혀진 자들이 그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 10%정도고 80% 이상은 '미병' 상태입니다. '미병' 상태는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의견을 낼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종교는 위로와 경청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성택 교수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주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을 수상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인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조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지 초암 덕문
사부대중일동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화엄법회
법문 : 법륜스님 6월10일 오후 3시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 복장불사
입재 : 3월 24일, 회향 : 2021년 5월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 061-783-7600
기도접수처 | 061-782-0011
www.hwaeomsa.com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 석 가 사

주지 **경 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 053)791-8137 F.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 송 림 사

주지 **도 휘**

사부대중 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 월 인 사

회주 **포전 혜관**

주지 **보해 성종**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천년을 이어온 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 지 보 사

주지 **혜 안**

신도일동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 233
TEL 054)383-2898

대한불교조계종

##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무해 법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 죽 림 사

주지 **선 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죽방길 279-57
TEL 054)334-126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 은 해 사
## 불교대학동문회

회 장 **김창열**

수석부회장 **유시헌 박미영**
사무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정명화**
봉사국장 **박영숙**
홍보국장 **이 정**

동문회 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연락처 : 010-3824-945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 대구지역단

단 장 혜 림 장건환
수석부단장 진공심 이현숙
부 단 장 덕 원 김동훈
부 단 장 대각성 김선옥
부 단 장 법 경 권오경
감 사 진 공 배성원 자심월 변예영
본부총괄팀장 지 운 양영휘
동부총괄팀장 자연성 노미현
서부총괄팀장 안도성 서광희
남부총괄팀장 청 인 김병태
북부총괄팀장 안덕문 오경희
중부총괄팀장 범 공 임동명
수성총괄팀장 안 덕 황종수
사무국장 송 덕 구본주
사무대리 반야신 홍정임

대구지역단 포교사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51길 11(대명동)대구불교회관 2층
전화 : 053)623-0108 팩스 : 053)745-4109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 은해사 부설 학교법인 동곡학원
##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운곡 돈관**
교 장 **윤이용**
교 감 **김수상**
행정실장 **은종도**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 FAX 054)333-3432

약사관음기도도량
천도재 퇴마 전문도량

합천 미타산

## 일 월 암

암주 **일 월**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적중면 두방길 75 일월암(두방리)
010-5858-8969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5월 16일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삼보일배 기도법회를 진행했다. 삼보일배를 마친 불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트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발원했다.

# 생명위한 3보1배…"코로나 소멸 발원"

## [현장] 창원 성주사 코로나 종식기도

### 불모학당 초심 불자들 동참
### 청정한 마음으로 극복 기원
### 동참자 환희심에 눈물 바다
### 생명존중 불제자 양성 서원

창원 성주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세 걸음 옮긴 후 불자들은 허리를 숙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다시 일어나 세 걸음을 걷고 반복해서 절을 했다. 간절한 기도와 참회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삼보일배'가 펼쳐졌다.

창원 성주사 불자들은 5월 16일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에 발생한 아픔이 곧 자신들의 고통이라 말했다. 건강과 행복이 다시 생명에 깃들길 기도하며 불자들은 묵묵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마지막 순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들이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감염병을 이겨내고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삼보일배를 마친 불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트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발원하고 기도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5월 16일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삼보일배 기도법회를 진행했다.

삼보일배 기도법회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과 불모학당 학생들이 참석했다. 불모학당은 성주사 불교대학 기초 과정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성주사 포교사단과 불모회도 함께 했다. 삼보일배 기도 정진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기도법회 시작 전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가 스스로 청정해지는 기도 수행임을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주변 인연들도 마음이 맑고 가벼워진다. 이 시간이 과거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도록 마음내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주사 앞마당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진흙탕이었다. 공기가 습해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온몸이 끈적거렸다. 무릎과 팔꿈치에 보호 장구를 덧댔지만 절을 할 때 마다 비틀거릴 수 밖에 없었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석가모니불 정근소리와 목탁소리에 의지해 머리를 조아렸다.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지장전을 거쳐 대웅전에 도착하기 까지 궂은 환경에서 2시간 가량 이어진 삼보일배에도 단 한명의 낙오자는 없었다.

대웅전에 도착한 불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했다.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불자들은 "삼보일배에 동참한 저희들은 어리석었던 지난 삶을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 태어나 중생을 위해 살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오체투지는 뭇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경, 감사이자 그들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말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중간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대웅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보였다.

불자들은 삼보일배 법회 회향식에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했지만 삼보일배를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주 포교사는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아 '여법하게 진행 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많았다. 전날 비가 쏟아져 날씨부터 걱정을 했는데 무엇보다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환희심으로 눈물이 나왔다. 우리들의 기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호 불모학당 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참해 무엇보다 기쁘다"며 "코로나는 전 세계의 재앙이다. 기도 내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했다"고 말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모두를 위해 박수를 쳐달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불제자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을 이어 가길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보일배 기도법회는 '덕분에 챌린지'로 막을 내렸다. 발원문 낭독 후 불자들은 대웅전 앞 계단을 둘러서서 손을 모으고 왼손 바닥에 오른손을 놓았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들은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

### Interview



입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지 법안 스님.

## "청정한 희망의 등불을"

###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삼보일배 수행을 가장 앞에서 주도하며 불자들을 이끌고 묵묵하게 기도하던 주지 법안 스님은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과 오랜 과거 쌓인 업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맑히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참회이며 업장을 녹이는 것이 주변을 위한 치유이자 선물이라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시날을 맞아 온 세계에 희망의 등불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희망을 담는 기도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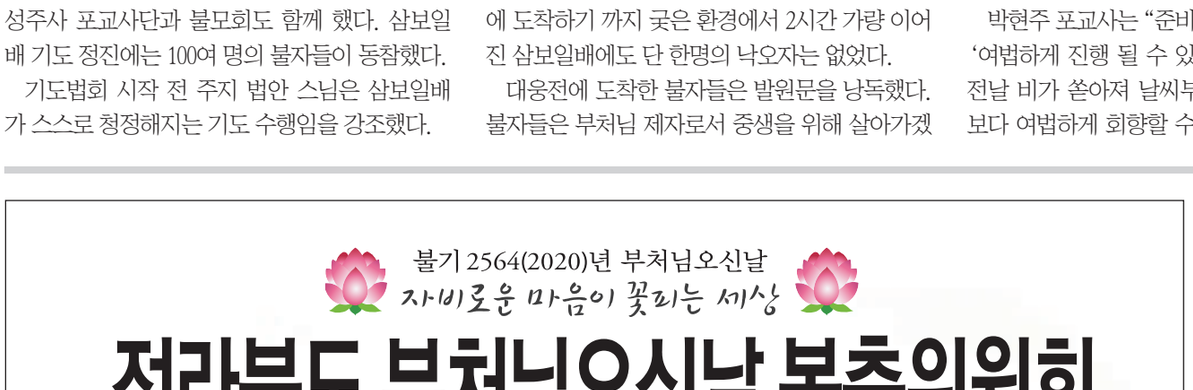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의 정성으로 켜 올린 연등은 어느 때보다 크고 밝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등불이 자비의 불빛이 되어 멀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증명 태공 월주 대종사

| | | |
|---|---|---|
| 전북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 성 우 | 조계종 교구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
| | 진 성 |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
| 수석부위원장 | 일 원 |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부주지 |
| 부위원장 | 원 혜 | 조계종 남고사 주지 |
| | 도 홍 |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
| | 지 용 | 보문종 정혜사 주지 |
| | 용 성 | 용화종 원각사 주지 |
| | 지 정 | 총지종 흥국사 주지 |
| 집행위원장 | 회 일 | 조계종 참좋은 우리절 주지 |
| | 이근재 | 전북불교신도회장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5 TEL 063)224-4441 FAX 063)224-4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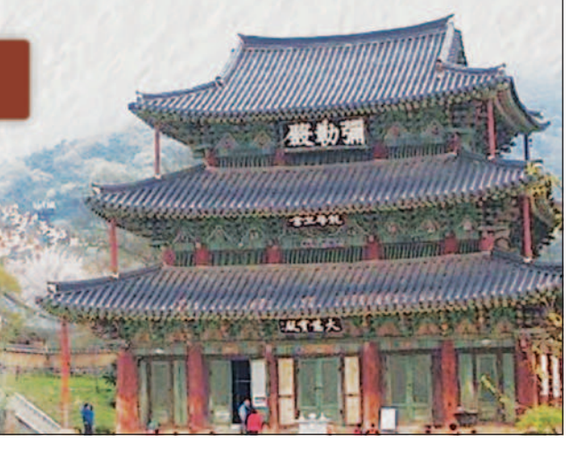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 | | | | | |
|---|---|---|---|---|---|
| 조실 | 태공월주 | 총무 | 원혜 | 사회 | 무여 |
| 회주 | 금산도영 | 기획 | 화평 | 호법 | 덕림 |
| 주지 | 자산성우 | 교무 | 응묵 | 포교 | 석초 |
| 부주지 | 월강일원 | 재무 | 여찬 | | |
| | | 신도회장 | 이근재 | 외 사부대중일동 | |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혜 천**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남지장사길 95
TEL 053)768-9920 FAX 053)966-9920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주 **정 관**
사부대중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저자 정관스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 1번지
T. 053)767-7504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1리 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 원 사**

주지 **응 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65-1
종무소 : 054)931-6886
팩 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정 **보원 현 진**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 053)802-4043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신행 기도 도량
**대 원 사**

주지 **현 정**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09길 41(학정동)
TEL 053)327-0408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0~5/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 2 | 요가 디피카 | 현천스님 | 선요가 |
| 3 |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 서정형 | 공감과소통 |
| 4 |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 김원수 | 청우당 |
| 5 | 지금 이대로 좋다 | 법륜스님 | 정토출판 |
| 6 | 숫타니파타 (빠알리대장경 / 쿳다까니까야) | 전재성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7 |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정토법문) | 혜정 / 정전, 원왕생 | 운주사 |
| 8 |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 원빈스님 | 이층버스 |
| 9 | 한글 법보 염불집 : 삶속에서 독송해야 할 보배로운 가르침 | 원순스님 | 법공양 |
| 10 | 허공에 핀 꽃 | 원산스님 | 효림 |

책세상

# “부처님 깨달음은 ‘중도’ … 화두선으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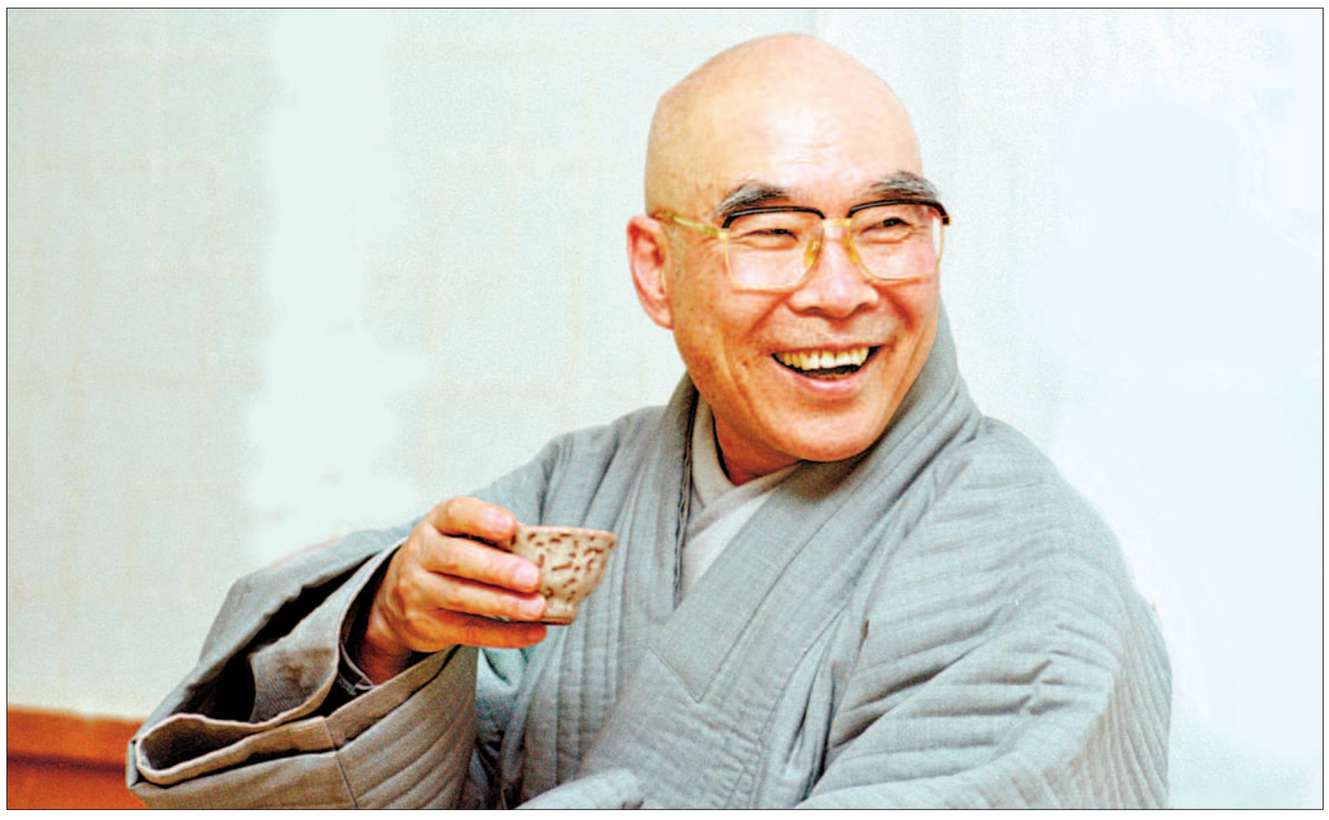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박희승 정리/ 어의운하 펴냄/ 1만 4천원

**중도 · 화두선 알기 쉽게 설명**
**無자 · 이뭐꼬 등 참구법 소개**
**“우주 만물은 모두 중도로 존재**
**화두선 생활화하면 삶의 변화**
**간화선 세계서 주목 받을 것”**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 간화선을 지키고 넓혀온 이 시대의 선지식 고우 스님은 “중도를 화두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는 이해로는 안 됩니다. 중도(中道)를 화두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해요”

한국 간화선을 지키고 넓혀온 시대의 선지식 고우 스님의 일상법문집이 출간됐다.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다. 책은 중도를 이해하고, 화두선을 통해 중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큰 주제들로 책을 읽어본다.

첫 번째는 ‘중도연기’다. 고우 스님은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의 삶을 살핀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중도라는 것이다. 싯다르타는 무엇을 고민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왜 출가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싯다르타 왕자가 출가하여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해복의 길을 열어 보인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내 밖의 절대자에게 구원을 의지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스스로 중도를 깨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우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중도이며, 중도의 내용이 연기이며, 이 중도와 연기를 깨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이른다. 그래서 스님은 책 곳곳에서 반복하여 중도가 무엇이며 연기가 왜 불교의 세계관이며 존재 원리인지 설명한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와 우주 만물은 모두 중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독립된 실체가 있다고 보면 착각입니다. 독립된 실체로서 ‘나’는 단 한 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 없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란 존재할 수 없기에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가 있다는 잘못된 습관이 개인의 삶에 투영될 때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등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다’는 착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도의 체득과 화두참선이다. 화두참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화두참선, 즉 간화선은 바로 중도를 화두로 체득하고 깨치는 것입니다. 간화선도 중도를 깨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잘하려면 바로 불교의 근본인 중도에 대하여 바른 안목을 갖추는 정견(正見)을 세워야 합니다. 〈중략〉 중도정견이 서게 되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되어 자기와 세상 만물을 보는 지혜가 나옵니다.”

고우 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의 깨달음의 체험을 낱낱이 검토하며, 그들의 깨달음이 결국 중도연기임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매일 5분이라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네 번째는 일상에서 화두참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두를 참구할 것인가. ‘조주무(無)자’ 화두 참구하는 법, ‘이 뭐꼬?’ 화두 드는 법 등 다양한 사례와 스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초심자들이 참선할 때 익숙한 것은 분별망상이죠. 우리는 늘 망상, 잡념 속에 살아갑니다. 분별망상은 익숙하나 화두는 설지요. 그래서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익숙한 망상은 설게 하고 화두는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공부 방향은 알겠는데 실제 실천이 쉽지 않지요. 〈중략〉 그래서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고 우리가 본래부처라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며 지혜와 자비가 항시 빛나고 있을 뿐 분별망상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두참선의 효능이다.

“실제 조사들처럼 확철대오하지 못하더라도 화두 참선을 생활화하면 일상에서 지혜와 자비심이 나와 그만큼 행복합니다. 즉, 중도정견을 세우고 밖으로 부지런히 남을 도우며 안으로 부단히 화두를 챙겨나가는 화두참선이 생활화되면 그만큼 일상이 지혜로워지고 밝아져서 참선하는 만큼 자기와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참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우 스님은 화두참선을 생활화하면 지혜와 자비심이 나와서 하는 일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차이점이다.

“(간화선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것이니 단박에 깨치는 돈오이고 단박에 닦는 돈수이니 빠른 것입니다. 〈중략〉 단지, 중생의 입장에서 점차로 닦아 가느냐, 본래부처 입장에서 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고우 스님은 위빠사나가 다 같은 부처님의 중도연기법에 근거한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대상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중도삼매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수행법으로 시비를 논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인류문명의 대안으로서의 중도와 선을 이야기한다. 중도연기가 우주의 존재원리이니, 당연히 우리 사회와 문명의 문제가 나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심지어 살상이 만연하는 이 지구촌에 우주 만물이 하나이고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으니 절대 평등하며 고유의 가치를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가르침과 그것을 단박에 체험하고 실천하는 선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자 무한한 지혜를 줍니다. 저는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간화선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간화선 수행자들이 중도정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행일치하는 수행자의 모델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수좌회 스님들과 봉암사가 문경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을 세우고 간화선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도자도 양성하여 간화선을 대중화, 세계화하겠다고 나섰으니 아주 좋은 일이고 기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고우 스님은 김천 청암사 수도암으로 출가했다. 고봉, 관응, 혼해 대강백으로부터 경전을 배우고, 당대 선지식인 향곡 선사가 주석한 묘관음사에서 첫 안거 수행을 한 이래 평생 참선의 길을 걷고 있다. 1968년 도반들과 구산선문의 하나이자 결사 도량인 문경 봉암사에서 선원을 재건하여 조계종 종립선원의 기틀을 다졌다. 이미 입적하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함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근대 선지식인 향곡, 성철, 서옹, 서암 선사에게 두루 참문하였다. 지금은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하고 있다.

고우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박희승은 조계종단에서 20년 봉직했다. 고우 스님, 적명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을 공부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았다. 지금은 불교인재원에서 기업과 공무원 등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참선 입문-심화-전문-지도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좌스님들과 함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진력하고 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진 안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 경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432-0880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진 성
원로의장 수 종
자문위원장 도 광
교육원장 혜 정
사정원장 혜 안
감사원장 혜 경
포교원장 대 주

종회의장 법 전
수석부의장 청 명
부 의 장 혜 일
종회의원 법륜 / 정 수
송 월 / 혜 담
법 윤 / 혜 신
혜 경 / 원 만
정 수 / 보 경
법 화 심

부 원 장 도 홍 담
총무국장 행 연 수
교무국장 연 대 공
규정국장 대 명 각
포교국장 명 현 진
재무국장 현 법 진
문화국장 법 지 오
사회국장 지 명 현
교임국장 명 보 현
사 무 장 보 현 심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혜 정
부 회 장 혜 안
교육원장 지 산
총 무 정 수
교 무 법 전
재 무 지 오
사무국장 법 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Tel 063)285-9700 /Fax 063)282-1536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문과 : 4부대중 모집
유튜브 : 우학스님 강의 중

무일선원 : 054)753-8228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 보광명문화 장학재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T.053)710-3700, 053)523-2886
F. 053)252-2886

대한불교선각종

##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 정 암
주 지 석 혜 명

신 도 일 동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 포항 자명선원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1길 46-2
TEL 054)281-7712, 7719

우리불교 우리절

##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 청 송

T. 053)981-1199 F. 053)982-0683

팔공산 갓바위 앞산

## 용 주 암

주지 韓 成 鶴
사 부 대 중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高靈瓦 Goryeong Roofing Tile Collec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054)954-8008(代) FAX.054)954-5335

##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 ~ 1
FAX 054)955-8202

한국불교태고종

## 능 하 사

주 지 성 련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길 6 (4층)
02)701-7488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스님(범어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스님(원효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개문스님(광명사)
홍일스님(법전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암)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사업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원로의원 월봉스님(효자암) 월광스님(금어암)
혜성스님(금강사)
자문위원 도문스님(전등사) 대원스님(금불사)
회 장 효문(효심사)
직전회장 자관(자비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법관(몽불사)
사무총장 용하(용문사)
재무국장 휴담(심불사)
감 사 법천(무량사) 법광(무량정사)
회 원 혜민(천불암) 안국(부전선원)
각진(법륜사) 무상(미타사)
유심(반야선원) 지훈(영주암)
성화(용와사) 정훈(해동암)
취산(무량선원) 혜인(참회지장사)
해륜(해륜정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효심사 內 | Tel 051)558-2108

---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세운,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Tel 051)243-3531 http://www.bswia.org

---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정분남
감 사 김영신 김병관
부단장 송재린 박종안
이양희 주태돈
사무국장 손삼호
총괄팀장 홍순창 이수임 김옥희
최우성 서영우 황기훈
심태섭 진상근

외 포교사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 051) 633-3011 팩스 : 051) 633-3012

---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포교원
파불부처님 가피도량

## 효 심 사

어르신 무료급식 · 봉사 · 후원
'효심공동체 효심밥상 무료급식소'

주 지 효 문

봉사자/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6층,7층
(동래시장 입구)
Tel 051)558-2108

---

지장기도도량

## 천불정사

주 지 선 묵 고 담
법 사 범 성
원 주 조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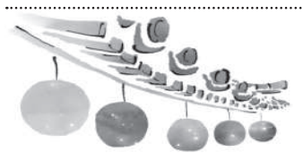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Tel 051)583-9233 Fax 051)583-6362

---

## 락서암



주 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TEL 051)254-0820

---

## 남운정사

주지 민 지 효 합장

남운정사 홍익범패단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83번길 65
TEL 010-4466-3575

---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종 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이 길에 초대합니다!
**행복명상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051)253-8687~8
www.mitazen.net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산광역시
##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현여
사무총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10-78
발원사內 Tel 051)405-232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원허스님(혜원정사)
지현스님
무관스님(장안사)
자문위원 보운스님(금용암)
회 장 보당스님(보국사)
수석부회장 법승스님(화엄사)
상임부회장 월광스님(보은사)
사 무 장 동선스님(내원암)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재 무 눌은스님(해련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31-3 보국사 內
Tel 051)861-6961

## 불교TV 염불공양회

| | |
|---|---|
| 고 문 | 김유리자 강명자 |
| | 김정순 |
| 회 장 | 하정선 |
| 수석부회장 | 김순이 |
| 부 회 장 | 정승자 김복선 |
| 운영위원장 | 윤정희 |
| 재무이사 | 강지원 |
| 총무이사 | 강행순 |
| 감 사 | 윤미자 안상희 |
| 팀 장 | 송순애 신미자 |
| | 장순희 |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051)633-4020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 (社)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 총 무 양동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 Tel 070-8133-9917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 부설 자선단체 ]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 | |
|---|---|
| 영도대흥사 | 주지 정여 |
| 대연동 붓다선원 | 주지 도경 |
| 서울진여선원 | 주지 도일 |
| 삼랑진 여여정사 | 주지 도명 |
| 김해 여여정사 | 주지 도명 |
| 해운대 여여선원 | 주지 도우 |
| 거제 여래선원 | 주지 효산 |
| 사량도관음낙가사 | 주지 효원 |
| 울산 여여선원 | 주지 효암 |
| 동래 효심사 | 주지 효문 |
| 금정보현선원 | 주지 효범 |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대한불교조계종
## 발 원 사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권인락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학생회회장 류홍수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 청 량 사

재단법인 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Tel 051)271-2774 Fax 051)271-0936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 마안산 자비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암 자관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Tel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 황령산 홍제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주 금아 혜국
주지 성 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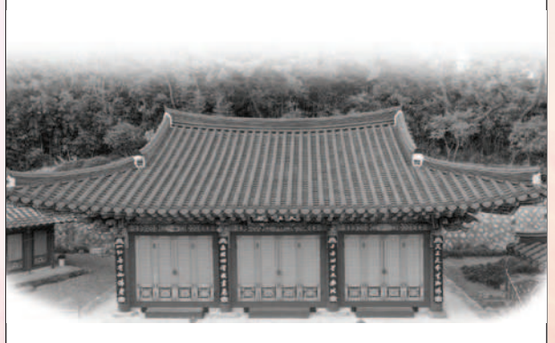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
www.hjsa.or.kr

대한불교조계종
##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Tel 051)646-0843

# 달라이라마 첫 온라인 법문 생중계

**5월16 · 17일 실시간 송출**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도**
**세계불자들 반응 뜨거워**
**홈페이지 서버 멈추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으로 법문을 진행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불교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처음으로 온라인 법문을 진행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지난 5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달라이라마의 첫 온라인 법문을 전했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 성하께선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개인과 단체의 요청에 응해, 온라인 법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전했다. 지금껏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온라인으로 중계되거나, 녹화후 업로드 된 적은 많았지만,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계획해 전세계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문의 주제는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의 1품과 4품이다. 용수보살이 남인도의 왕에게 대승불자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된 논서로 1품에선 어떻게 선업을 쌓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4장에선 불교를 믿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하는지를 가르친다.

16일과 17일 양일간, 달라이라마의 관저에서 진행된 법회는 인도 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법문은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스트림 등의 라이브 채널과 달라이라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됐다. 달라이라마의 첫 온라인 법회에 전세계의 불교도들이 집중하면서 한때 공식 홈페이지의 서버가 멈추기도 했다. 법문은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국어로 동시통역돼 송출됐다. 또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라이브 채널의 특성상, 법문을 듣는 불자 간에 법문내용에 관한 토론이나 자료공유 등의 모습도 보였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저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종교인으로서는 '종교적 화합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싶다. 모든 종교는 다양한 사상과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 용서와 관용과 자제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문을 시작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이타심에 기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먼저 나의 허물을 보고 다른 이를 생각하여 자타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일상에서 연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근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은 심오하고 광대하므로, 논리적인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한 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야 소화가 되는 것과 같다"며, "논리적인 사고가 갖춰진다면, 보다 넓게 총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단지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문의 마지막에 달라이라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온라인 법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또 질의응답도 가능할 수 있게 시도해 보겠다"며 이어질 법문계획을 시사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란다며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따라보살등의 진언을 염송할 것을 권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이어지는 온라인 법문에 관해 "오는 29, 30 양일에 걸쳐 관세음보살 관정을 온라인으로 수여할 예정이며, 중계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태국사찰, 무료급식소 운영 개시

**76개 지역서 1000여 곳**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의 사찰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5월 14일 불교전문 해외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방콕의 불교 사찰들과 태국 내 76개의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찰 무료급식소 1000여개가 운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국가답게 불교계가 나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태국 전역의 불교 사원들이 각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쇄령으로 식품과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태국전국의 76개 지방에 있는 사찰과 그 인근을 포함해 약 1,000개의 무료 급식소가 지어져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사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태국국립불교청 나롱 송가롬 청장은 "5월 13일 기준으로 27만 명이 도움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1,090만 바트(한화 4억 2천만 원)가 식사 준비에 소비되고 있다. 1인당 40바트(한화 1500원) 정도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스님들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조리된 일부 음식들은 탁발이 중지된 소규모 사찰들로도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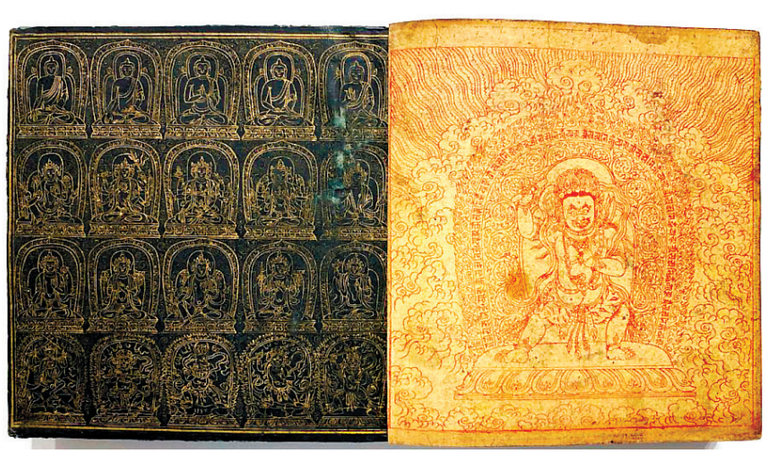
송가롬 청장은 "사찰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때문에 코로나 19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간의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불교계의 무료급식소 운영에 감사를 표하며 "방콕왕궁 근처 강가에 있는 왓 라캉 코씨타람(Rakhang Khositaram) 사원의 경우 매일 1,000여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받아간다. 이 곳은 취약계층을 돕는 곳이만,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서양 성서보다 40년 앞선 목판경 발견

**티벳어 · 한문 동시 수록**
**중세의 네팔어도 포함돼**
**절첩식 인쇄 · 변상도 눈길**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목활자판 불경. 사진출처=오픈컬쳐

활판 인쇄술의 대표로 꼽히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여년 앞선 목활자판 경전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5월 15일 문화예술전문 매체인 '오픈컬쳐' 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불교 경전을 보도했다. 특히 이 경전은 한문 뿐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등 고전언어가 동시에 수록돼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인쇄된 이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다라니와 진언, 불보살들의 삽화를 담고 있으며 두꺼운 백지에 붉은 먹을 사용한 목판 인쇄본이다. 병풍처럼 앞뒤를 모두 볼 수 있는 절첩식(折帖式)으로 인쇄 됐으며 20여존의 불보살이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 쓰여진 간행기록에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고대필사본에 대한 전문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한 연구자는 "사실 이 책보다 앞선 목판, 혹은 금속 활판으로 된 불교문헌이 다수 존재하기에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이 불경은 한 권의 책 안에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의 세 고전언어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 또 목판화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변상도라는 점과 보기 드문 진언집(眞言集)이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부 경문에서는 중세 네팔어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문서 전문가들은 해당 서적의 발견에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출판된 불교 서적들은 불교문화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자는 "19세기 중반에 태국에서 필사된 한 문헌은 어느 스님이 극락과 지옥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태국에서 멀리 떨어진 몽골 불교의 문헌이 태국어로 번역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구텐베르크 성서와 비교하여,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불교문헌을 대량 유포하기 인쇄술이 발전했다. 몇 세기 이전부터 목활자와 금속활자 등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 日고야산 불교문화, 집에서 즐긴다

**불교체험 축제로 유명**
**올해는 온라인서 개최**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 · 콘고부지(高野山 · 金剛峯寺)가 매년 개최해왔던 불교 체험축제 '롯파라미츠(六波羅蜜)' 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5월 15일 일본의 '시사통신사' 는 콘고부지 측의 발표를 인용해 개최계획을 보도했다.

롯파라미츠 축제는 2015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고야산에서 개최되는 불교체험 축제다. 불교의 6바라밀에 맞춰 크게 6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의 테마는 '아름답게 살기 위한 6가지 힌트' 로, 고야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주로 수행하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야산이 소재한 와카야마현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고야산 산내사찰 대부분이 산문을 폐쇄하거나 개방에 제한을 두면서 축제의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고야산 측은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산내 시설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콘고부지 측은 "긴급사태가 해제됐으나, 일본 전국에서 참배객이 몰리는 고야산의 특성상, 올해의 롯파라미츠 행사의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롯파라미츠에서 실시됐던 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4인 사경, 명상, 불교음악, 주인(朱印)의 네 가지 체험지도와 강의로, 모두 고야산의 스님들이 생중계한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미리 온라인을 통해 예약과 동참비를 내고 해당하는 일시에 고야산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강사 스님과 쌍방향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택에서 체험 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원로원장 성인 (대덕사)
종회의장 혜승 (선운사)
규정원장 혜윤 (금강사)
교육원장 보현 (보광사)
포교원장 혜선 (효암사)

선 원 장 진보 (법등사)
문화원장 일락 (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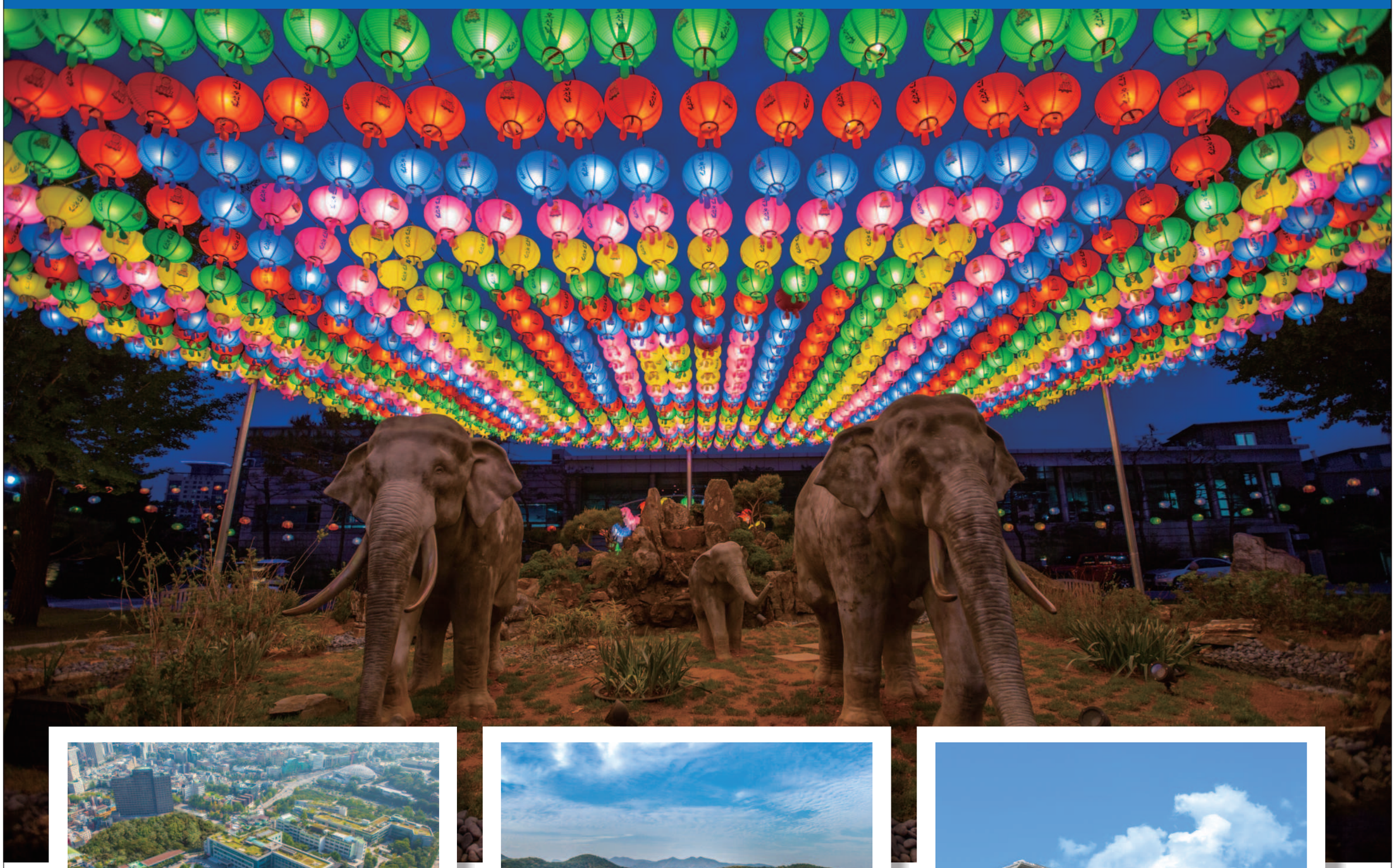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세상의 큰 빛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우주를 비추는 큰 등불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성민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혁신과 도약을 통한 강소 대학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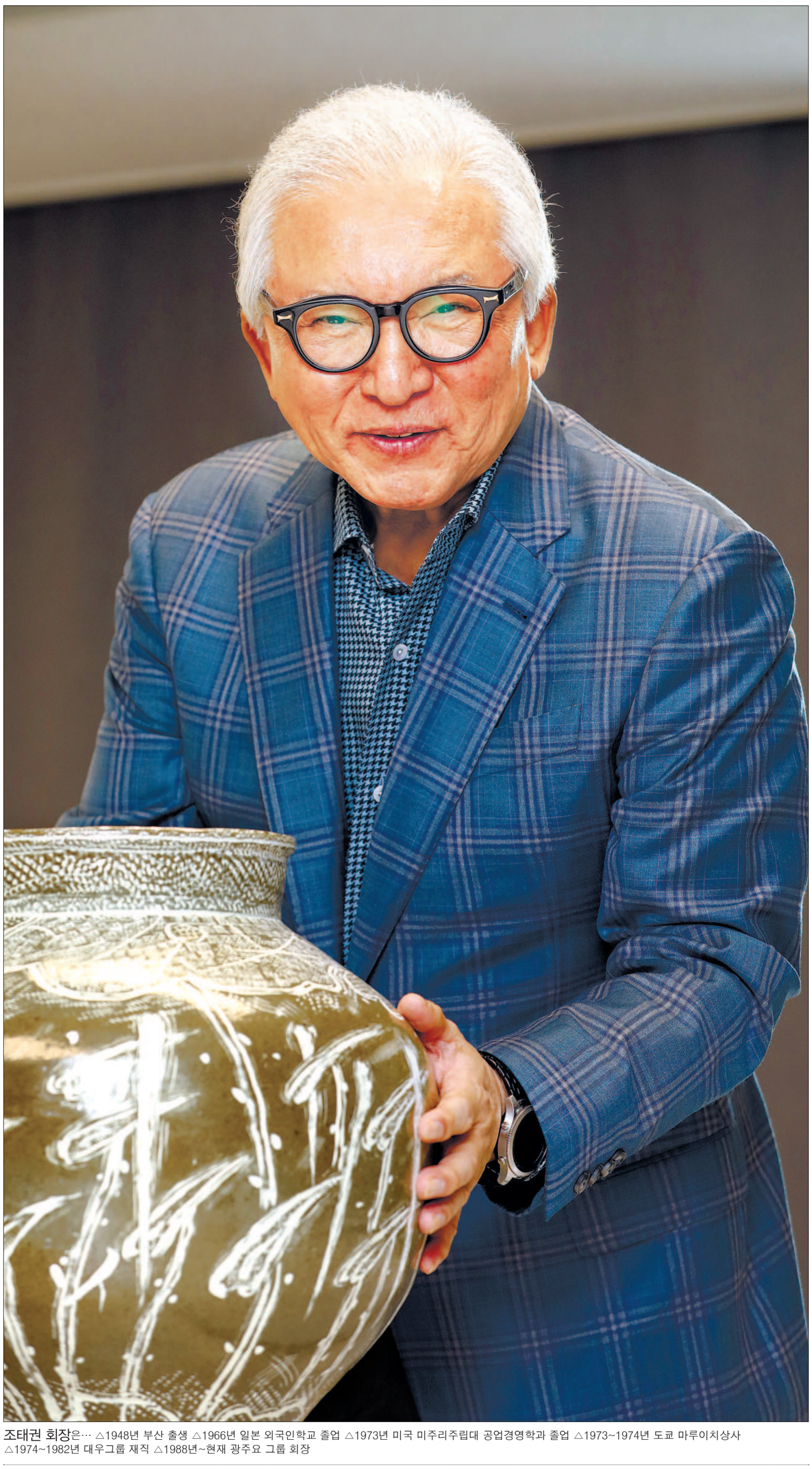


의료원 :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홍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

# “문화보국은 평생 숙명이자 과업”



조태권 회장은… △1948년 부산 출생 △1966년 일본 외국인학교 졸업 △1973년 미국 미주리주립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1973~1974년 도쿄 마루이치상사 △1974~1982년 대우그룹 재직 △1988년~현재 광주요 그룹 회장

전통도자기의 현대화를 이끈 ‘광주요 그룹’은 1963년 광호 조소수 선생이 조선왕실 진상 도자기를 굽던 관요의 전통을 잇고자 설립했다. 1988년 광호 조소수 선생 타계 이후 아들인 조태권 대표가 승계했으며 1990년 분청 목부용문 제품을 출시하고 1991년 국내 도자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도자기, 음식, 술, 공간소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화시켜 한식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써 발전시켜왔다. 2000년 전통주 ‘화요’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화요를 설립했고, 우리나라 최초 미쉐린 3스타 한식레스토랑인 가온을 2003년 설립했다.
세계 외식산업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 조태권 광주요 그룹 대표는 2007년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인메이커 및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우리 도자기에 담긴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식만찬을 열고 한식문화를 전파했다. 현재 광주요 그룹은 2012년 한식레스토랑인 〈비채나〉의 문을 열고 외국인도 쉽게 한식을 즐기도록 노력하고 있다.

리더에게 聽 하다

##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72)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2016년 11월 7일, 광주요그룹의 외식사업부 가온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최고급 한식당 ‘가온’과 모던 한식 ‘비채나’가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72)의 한식 세계화를 향한 28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큰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특히 ‘가온’은 전세계서 28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서울서 발간되는 레드가이드 2017년 서울편’에서 최고 등급인 별 세개(3stars)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국음식은 한국 도자기에 담아야 빛을 발하고 술도 음식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삼위일체적 발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다. 여기에 그릇과 음식, 술의 조화를 제대로 보여줄 최고의 식당을 선보이겠다는 신념 아래 고급 한식당도 열었다.

불자기업인인 조 회장은 아무도 한식 세계화에 관심 없던 30여년 전부터 세계로 수출할 고급 한식 문화를 고민해 왔다. 특히 2007년에는 미국 나파 밸리서 국내외 미식가들을 초청해 광주요 도자기와 가온의 요리, 화요의 전통주를 결합한 고급 한식을 선보였다. 이 만찬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식 세계화라는 화두에 불씨를 댕겼다.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문화보국’의 강한 신념으로 반평생을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태권 회장. 봉축을 맞아 서울 송파구 광주요 그룹 본사 사무실서 5월 18일 만나 한식문화 세계화와 경영 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식의주’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 들었는데 특별히 식을 먼저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고급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 전통의 정신 문화를 표현하고자 강한 의지를 내보였는데, 그동안 걸어온 것들이 저의 신념들을 증명해 줬다고 자부합니다.

음식에도 철학이 있죠. 먹는 것 자체는 물론 생존 본능입니다. 태초부터의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옮겨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전쟁도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죠. 인류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음식은 하나 하나가 모두 예술 작품입니다. 음식이란 자연 및 문화, 인간의 몸과 연관된 정신적 개념의 결합물로서 인간 정신에 영향을 주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나의 문화이며, 이 문화를 남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되죠. 식문화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9살에 당시 잘나가던 〈대우〉의 초대 그리스 지사장을 맡는 등 직장인으로서 승승장구하시다가 돌연 한국으로 돌아와 부친의 가업인 도자기 사업을 물려 받으신 큰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려주시지요.**

저는 사실 문화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강했죠. 대우서 근무하던 1975년 겨울, 해외서 바이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른바 짝퉁 제작을 단순화한 개량품을 만들어 큰 돈을 번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남아공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종과 문화적 차별을 처음 경험했죠. 그 곳에서 저는 문화 강국이 무엇인지, 문명국으로 대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 일을 계기로 문화강국, 문명국으로 우리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서 공부하고, 기업가로서 세계를 다니며 활동했어도 한국 밖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안의 가업인 도자 사업을 발판으로 한국을 알리자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삶의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셨는데요, 광주요 대표를 맡고 사업 확장을 위해 하신 과정과 노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광주요를 창업하신 아버님은 일본서 대접받는 도자기 문화를 한국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셨죠.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기 보다는 광주요라는 이름 하에 전통 계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버님 밑에서 배운 분들이 지금도 도자기 명장으로 남아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광주요는 수익면에서 항상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가업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지만 우리 집안 가업인 광주요를 맡을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은 저 밖에 없다고 끈질기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언젠

**1988년 선친에게 광주요 물려받아**
**음식 · 그릇 · 술 등 삼위일체 히트**
**한식세계화 수많은 미래 가치 창출**
**10월경 〈문화보국〉 책 후속편 출간**

가 우리나라 도자기가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 세계서 각광받을 것이니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명백만 이어달라고 당부 하셨죠.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광주요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공장도 새로 짓고, 현대화 공정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도자기 만드는 이들이 반발했죠. 자본으로 도자기 만드는 명예를 산다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개의치 않고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어요. 현재 광주요의 현대화된 생산 기반 시설 대부분이 그때 완성된 것입니다.

**▲얼핏보면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전통음식, 그리고 전통주 각자 별개의 사업일 것 같은데, 합쳐놓고 보니까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 세 분야를 조화롭게 사업에 런칭시킬 생각을 하셨는지요?**

세계 무대서 사업하면서 문화란 어떤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지 직접 체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은 대개 선진국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얼까 고민해보니, 식문화가 발달하면 그것을 담는 도자기가 발달해야 되고, 또 그 문화를 즐기는 식당 문화도 함께 확장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은 하나의 문화 확산 매개체가 되며, 각종 소비, 즉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심이 됩니다. 저는 한 나라 내수 경제의 성장 과정을 보면 식당서 먹는 문화가 커지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C2면에 계속

# 미쉐린 별 세 개 획득… 한식 세계화 28년 결실

## '조태권 회장'

C1면에서 계속

예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 부유층들이 오는 식당에는 그나라 전통의 고급 가구 및 귀한 물건 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일종의 문화 스타일이 전시돼 있죠. 식당서 식사하며 이러한 문화를 즐기고, 자기 나라로 갖고 가게 되면 문화의 전파가 자연스레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자체도 옮겨가기도 하고, 식당을 짓는 건축 기술까지 수출 됩니다. 그래서 식당 문화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계층을 뛰어 넘고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것 중 음식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식 문화가 세계에 진출한다면 수많은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쉐린 식당 두 곳인 '가온'과 '비채나'의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가격이 고가여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는 평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온을 처음 만들 때는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최고급 한식당의 탄생에 모두가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발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라고들 했죠. 한식을 고가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값비싼 음식을 누가 먹을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이길은 누군가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한국 최초로 2016년에 미쉐린 3스타를 따게 되면서 부터이죠.

세계가 알아주다보니 그제서야 와서 많은 분들이 먹기 시작합디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중에서 '가온에서 먹었어' 라는 말들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식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가온에서도 이 기회에 우리 한식이 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지를 느껴보라는 호소문을 국민들에게 보냈고, 가격도 8월까지 30% 정도 낮췄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식의 가치를 알려보자는 취지죠. 예약이 폭증하고 거의 매일 만석일 정도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죠. 그만큼 사람들이 한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입니다. 투자액만 보자면 가온에 200억원, 광주요에 3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죠. 지금 내가 돈을 버느냐, 우리 후손들이 버느냐를 본다면 일종의 투자라고 봅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우리 후손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온'은 회장님이 생각한 문화보국의 결정판인 셈이네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문화의 집결체로 보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가온에서 홍계탕을 출시했어요. 홍삼을 넣어서 삼계탕을 만든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싸다고 아무도 안 먹는데,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특히 닭고기를 주로 먹는 아랍사람들이 좋아합디다. 어느 아랍 부호는 공항에서 전화해 13그릇을 주문해서 갖고 갈 정도로 히트를 쳤죠. 우리는 주변서 흔하다는 이유로 가치를 절하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흡수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문화보국의 힘이죠.

**▲한민족의 전통과 수준이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2012년 펴낸 저서 〈문화보국〉에서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보국〉에 이어 후속편을 지금 집필중인 걸로 아는데요, 언제쯤 출간 예정이며, 이번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히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예전 〈문화보국〉에는 많은 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출간되는 후속편에서는 사람들에게 문화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풀어 보고자 했어요. 책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편인 〈문화보국〉은 세계의 모든 이들이 부국강병을 외치는데 우리 한민족, 5천만 명이 하나로 뭉친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 집필했어요. 우리 모두가 문화로 하나의 힘을 모으면 세계서 우뚝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함께 배려해 가자는 취지죠.

**▲우리 전통술인 〈화요〉가 시장에 처음 선보였을 때 신선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요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유일한 우리 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요 XP와 같은 블랜딩 제품은 현재 없어서 못팔 정도죠. 왜 경쟁력이 있냐하면, 전통의 현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화요는 해외에서 보면 일종의 위스키에요. 그런데 쌀로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세계인들이 놀란 겁니다. 해외서 반응이 뜨겁죠. 어떤 것이든지 세계와 경쟁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230억원 가량 나왔는데, 올해는 2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매출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5월 30일이 이번에 옮겨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불교와의 인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어머님 어깨 너머로 불교를 접했죠. 불교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꾸준히 수행하는 종교이죠. 그 과정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일체유심조' 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시간 날때면 스님들도 자주 뵙고, 은평구 진관사도 자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앞으로 인생과 사업 계획을 각각 듣고 싶습니다.**

계획은 따로 없고 내가 겪으며 느낀 것, 터득한 모든 것을 틈틈이 책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후손들에게 알리고 갈 것인가를 고민중이죠. 사업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근본만 튼튼하게 해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문화보국이란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고, 한국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것이 좋으면 우리 것을 만들고 알려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서 최고면 자연스럽게 세계로 수출이 되므로 우리가 만든 가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기2564(2020)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왕사
조실 월서
주지 지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
Tel 064)748-8811, 8822

대한불교조계종
왕산사
주지 왕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Tel 031)533-3245 / FAX 031)553-3246
www.wangsansa.org

힐링 행복도량 다문화 사찰
대전 광수사
주지 김무원 합장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대중 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Tel 042)823-0332~4
FAX 042)823-677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산광역시
##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승 찬** 동명불원
부 회 장 **의성정사** 남도심인당
**법 천** 소원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능 후** 대연정사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신선덕행
부 회 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Tel 051)623-9253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 부산 여성 불자회

자문위원 **백명숙 김순례**
명예회장 **왕선자**
회 장 **류영남**
후원회장 **정관희**
부 회 장 **정정자 김정화 서정례**
총 무 **김선미**
재 무 **서정례**
감 사 **이은선 이명희**
봉 사 1 **박화자 김명숙**
봉 사 2 **조현숙 김말향**
홍 보 **권정미 김정애**
운영위원 **전위미 한순점 최연화 김명숙**

이사·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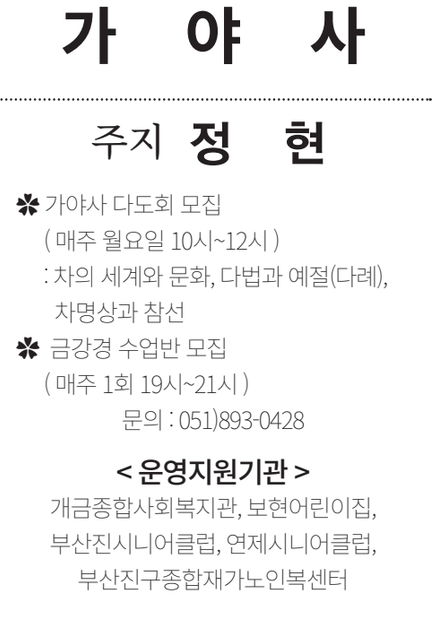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민식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김종백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허성하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사·회원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대한불교조계종
## 대광명사

차 한잔하듯 나누는 스님과의 고민 문답
36개의 일상적 고민, 36개의 부처님 해답




목종스님 지음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TEL 051) 742-7610

대한불교조계종
## 대연정사

주지 **능 후**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초하루법회 - 음력 1일 오전 10:30
지장재일법회 - 음력 18일 오전 10:30
신도회 법회 - 음력 6일 오후 2:00
어린이 법회 - 2,4주 일요일 오전 10:00

부산시 남구 진남로 69번길 8 (대연동)
Tel 051)625-3886
www.dytemple.net

사회봉사단체
## 부산불교 보현회
##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 정 암 사

주지 **법 상**



신 도 일 동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270
TEL (055) 342-6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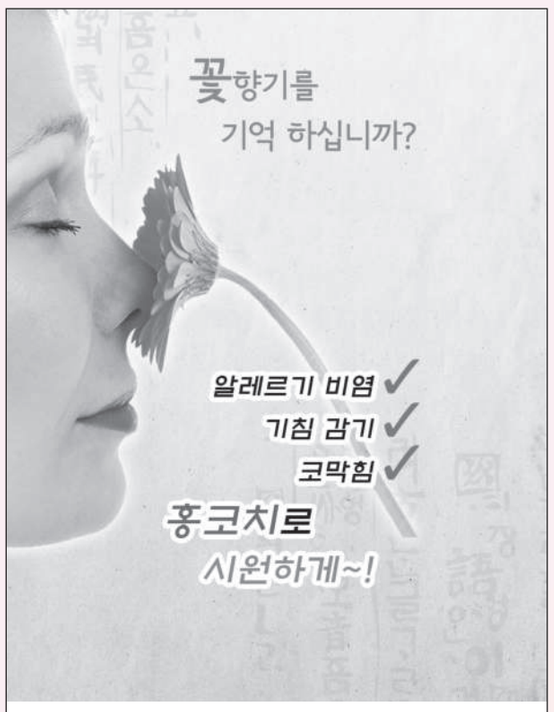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센터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851-2190**




## 동국 한의원
구, 홍코치한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동삼동)
한나타워 209호 Tel 051) 413-1155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 담앤북스

출판문화그룹 D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02)765-1250
damnbooks@hanmail.net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원범
부 본 부 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성림, 신성애
기 획 이 사 마나
재 무 이 사 성관, 김법영
홍 보 이 사 혜산

이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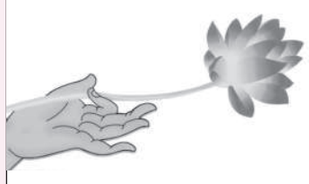
<주요사업>
장기기증, 환자 치료비 지원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부산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수정동, 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29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원 경**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 법륜 불자 교수회

회 장 김성규 (영남대학교)
명 예 회 장 조현춘 (전 경북대학교)
부 회 장 김남경 (경북대학교) 서상곤 (영남대학교)
김경회 (대구대학교) 장호경 (대구한의대학교)
이준일 (대구보건대)
감 사 김철진 (경북전문대학) 이정희 (대구한의대학교)
총 무 이 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 무 이 사 김보영 (전 대구예술대학교)
재 무 이 사 이영애 (전 대구보건대학교)
편 집 이 사 이동석 (동국대학교, 경주)
정 보 이 사 김성삼 (대구한의대학교)
사 업 이 사 김한철 (영남대학교)
제도복지이사 성희자 (경북대학교)
불교문제위원회 강수균 (전 대구대학교)
불교문화재위원회 최영식 (전 영남이공대학교)
불교사회위원회 신준식 (전 대구대학교)

법륜 불자 교수회 일동

**동국대학교 건학 114주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2주년**
**졸업동문 35만명**

동국대학교 발전이
한국 불교 발전입니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 대 신** 外 35만 동문 일동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302호
TEL 02)733-0303

불교교육 전법도량

##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이종현**
봉축위원장 **안동일**

동 산 가 족 일 동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 부 대 중 일 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주 지 **지 용**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TEL 051)338-1008. 337-1080

## 한마음 건축

건축 인테리어
설비·배관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25(염포동)
TEL 052)289-1276
이메일 sxo1213@naver.com

**원프라스틱(주)** WONPLASTIC Co.,Ltd.

노인 복지용구 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개발 전문

50848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24
Tel. 055-345-9290 / Fax. 055-345-9293

"부처님 어서 오세요~"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 무 량 사

주 지 **법 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TEL 010-2426-1766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 수행 · 후원

이사장 **장 유 정**

[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 (주)엘티유이엘씨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TEL 051-728-5562 FAX 051-557-5587

## (주)한마음 윈스피아

영림 PVC창호, 도어,
돌벽지 제작 및
통합인테리어 시공서비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19 (청학동)
TEL 051)412-4287 FAX 051)412-4286

# 승려 음다 흔적 고려 차문화 원천 자료



박동춘의
##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 ⑪ 고려시대 차 문화

고려시대 사찰은 차 문화를 주도했던 문화 현장이었다. 수행승들은 차에 알맞은 물을 선택하는 안목뿐 아니라 차 이론에도 밝은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승원(僧院)은 문화의 공간으로써, 수행승과 가깝게 교유했던 문인들이 모여든 문화 공간이며 명전(茗戰)이 자주 펼쳐진 차 문화의 현장이었다. 따라서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주도했던 승려들의 음다의 흔적은 이 시대의 차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원천 자료인 것이다. 더구나 고려 시대에는 불교계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미쳤으니 가히 왕실의 권위에 짝할 만하였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차 문화사는 수행승들이 차를 즐긴 흔적이나 영향력을 주도했다기에  그들이 남긴 시문은 차의 가치, 응용 등, 전반적인 고려 시대 차 문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왕족인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차뿐 아니라 화엄종의 종주로, 불교계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했으며, 불경 간경에도 많은 공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동시에 차를 즐긴 수행승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가 〈대각국사문집〉에 남긴 다시(茶詩) 3수와 1편의 표(表)를 통해 11세기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가 남긴 1편의 표(表)는 11세기 송 황제 철종(哲宗, 재위1085~1099)과의 후한 환대 속에 나눈 교유는 물론 황제가 그에 보인 호의와 그가 차를 즐겼던 정황을 살필 수 있고, 아울러 차가 수행승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품이었던 지를 가늠할 사료이다. 따라서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를 대략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가 영통사 경덕국사 난원(爛圓, 999~1066)에 출가한 것은 11세 때의 일이다. 학계에서는 교학 연구에 치중했던 학승 의천에 대해 불교 전반에 높은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특히 노장(老莊)이나 유가에도 깊이 참학(參學)했고, 교학의 중심을 화엄에 두었으며, 신라 화엄종의 전통을 재인식했던 것도 그였다. 〈고려사〉에서는 그가 송으로 구법을 떠난 사연을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부왕은 송으로 구법을 떠나고자 했던 그의 뜻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형제인 선종(宣宗, 재위 1083~1094)이 왕에 오른 후에도 도당 구법에 뜻을 재차 천명했지만 자기 뜻이 이뤄지지 않자 문도 두 명과 함께 몰래 송(宋) 상인 임녕(林寧)의 배를 타고 송에 입성하는 결기를 보인다.

당시 송 황제 철종은 입송(入宋)한 그를 극진하게 환대했고, 고려 왕 또한 환국하는 그를 극진한 의례로 모셨다. 1086년에 귀국하는 그를 맞았던 고려 왕의 정성은 〈고려사〉에 자세히 서술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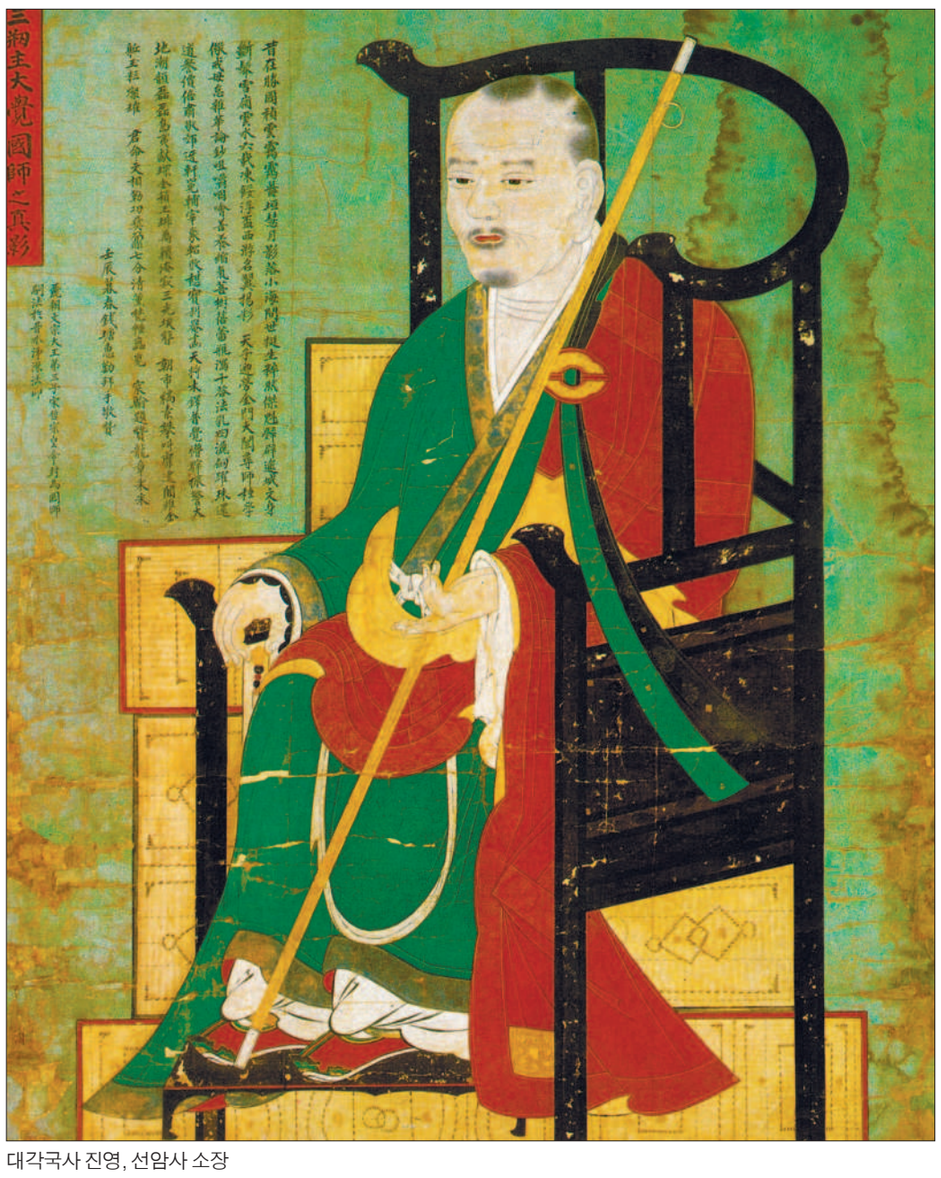
금강경장지12폭중(1)12-65

**사찰, 차문화 주도한 현장**
**수행승들, 차 문화는 물론**
**이론에도 밝은 전문가집단**
**당시 승려들이 남긴 詩文서**
**전반적인 고려 차문화 확인**

는데, 바로 "왕이 태후를 모시고 봉은사(奉恩寺)로 나아가 기다렸다. (그를)맞이하여 인도하는 의례의 성대함은 이전과 비교할만한 것이 없었다.(王奉太后 出奉恩寺以待 其迎迓導儀之盛 前古無比)"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대각국사 의천의 정치, 종교적 위상과 권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른 일면도 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으로, 송 황제가 수행하는 관리까지 동행시켜 구법 여정에 불편함을 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오(吳) 지방의 여러 절을 순방할 때, 가는 곳마다 극진한 예를 표한 것은 황제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후에도 송 황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 특별히 의천을 위해 차와 약을 보냈는데, 이런 사실은 의천이 답례로 쓴 〈사사다약표(謝賜茶藥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월 13일 중국 사신이 와서 칙지를 전달할 때, 삼가 자상하신 성은을 입어 특별히 어차 12각과 약 1 은합을 하사받았습니다. 황송하게도 몸소 특별히 보살핌을 내리시어 고급 차와 약으로 총애를 보이셨습니다.(臣僧某言 今月 13日 中使至奉傳勅旨 伏蒙聖慈 特賜御茶二十角 藥一銀合者 無晃凝旒 特紆於睿眷 嫩芽靈藥 優示於寵賜)'

윗글에서 짐작하듯이 송 황제가 보낸 차는 용봉단차(團茶)라 생각한다. 11세기 무렵 송나라에서는 정위(丁謂966~1037)에 의해 대용봉단이 생산되어 황제에게 상공(上貢)되었으며, 이어 채양(蔡襄1012~1067)이 소용봉단을 만들어 어공(御供)했다. 그러므로 송 황제는 의천을 위해 극품의 차를 하사했던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그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대각국사 진영, 선암사 소장

그의 〈농서학사이억임천사시견증 인차운화수(隴西學士以憶臨川寺詩見贈 因次韻和酬)〉는 송나라에 갔을 때 임천사를 찾았고, 그때 만난 농서학사에게 화답하여 창수(唱酬)한 시이다. 그가 임천사에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기에 골몰했던 정황은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였다.

**'향사 한 구역을 원람이라 부르니(一區香社號鶯藍)**
**맑고 고요한 산문으로 가는 길, 푸른 산과 마주했네(門徑淸虛對碧岡)**
**구름서린 울창한 숲 전각을 둘러싸고(密樹貯雲籠象殿)**
**달빛 어린 얇은 장막, 불좌를 호위하네(薄帷和月護猊床)**
**소나무 난간에서 강경 마친 뒤 시 읊느라 고심하고(講廻松檻吟魂苦)**
**다원에서 차 덖기 마치자 타던 속이 시원해지네(焙了茶園渴肺凉)**

**불법 배우려던 소원 이뤄 산승이 되었지만(掛錫已酬爲學志)**
**꿈속에선 고향으로 돌아가 옛집을 서성이네(故山還夢舊棲堂)'**

원래 향사(香社)란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향산의 승려 여만(如滿)과 함께 결성한 시회(詩會)인 향화사(香火社)를 부른 것인데, 약칭하여 향사라고도 한다. 그런데 의천이 말한 향사는 "향사 한 구역을 원람이라 부르니"라고 하였으니 승원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승원의 배치나 가람의 명칭을 드러낸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향사는 향을 올리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니 사찰을 향사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천사는 산간에 위치한 절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의천은 "맑고 고요한 산문으로 가는 길, 푸른 산과 마주했네"라고 했으리라. 더구나 임천사는 다원이 있어 차를 만들던 절이었다. 여기에서 만든 차를 마시자 "타던 속이 시원해진다"고 했다. 그가 속을 태웠던 연유는 바로 시를 짓는 것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구법을 떠난 수행승, 의천은 그의 소원대로 불법을 배우는 산승이 되어 법을 구하기 위해 송나라의 산하를 떠돌지만 꿈속에도 그린 건 바로 고려의 옛집이었다.

윗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그가 차를 덖는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송나라 승방의 새로운 제다 기술과 정보는 이렇게 고려에 흘러들어 고려와 송은 통시적인 차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화인이차증승(和人以茶贈僧)〉에는 북원에서 보낸 차를 다리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북원에서 새로 덖은 차를(北苑移新焙)**
**동림의 스님께서 보내왔네(東林贈送僧)**
**차 달일 날, 미리 알았기에(預知閑煮日)**
**맑은 물줄기를 따라 얼음을 깨노라.(泉脈冷敲氷)'**

북원은 어원(御苑)으로, 황제에 공납하는 제다소이다. 차나무와 찻잎의 관리도 관원이 파견되어 관리했다. 그런데 동림사 스님이 이런 귀한 차를 의천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니 동림의 스님은 의천과 뜻이 통하는 수행자였던가 보다. 더구나 햇차를 보냈다니 그 감동은 말로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차를 마시는 날은 한가하여 일이 없는 날이 제격이다. 그래야 차를 다리는데 집중하여 차의 건령을 짐작할 수 있을 터다. 물론 물을 끓이는 일은 차를 다리는데 우선해야할 일이다. 물이 차를 드러내는 근본이란 말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초의선사가 〈동다송(東茶頌)〉에서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체라. 좋은 물이 아니면 차의 신묘함이 드러나지 않고 좋은 차가 아니면 차의 근본을 엿볼 수 없다(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 莫顯其神 非眞茶 莫窺其體)"라고 한 것 역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의천 또한 물과 차의 원리를 환하게 알았던 수행자이다. 그러므로 "알맞은 물줄기를 따라 어름을 깬"다 하였다. 또 다른 그의 다시(茶詩) 〈화인사차(和人謝茶)〉에서 "이슬 내린 봄 동산에 무얼 할까나(露苑春峰底事求)/ 차 다려 세상 시름 씻어 낸다(煮花烹月洗塵愁)"라고 했다. 팽화(烹花)는 차를 다린다는 말로, 화(花)는 곧 차 거품을 말한다. 그리고 팽월(烹月)도 둥근 단차를 끓인다는 것이니 이런 차를 마신 의천의 몸은 "몸이 가뿐해 삼통(三洞)에 노니는 것보다 낫다(身輕不後遊三洞)"고 했던 것이다. 삼통(三洞)은 신선세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차와 관련해 "신선의 다품이라 산사에 더욱 잘 어울린다(仙品更宜鐘梵上)"는 표현이야말로 의천의 차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그는 차의 맑은 향기는 술이나 시를 짓는 풍류만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수행자는 성불(成佛)이 목표이기에 단약(丹藥)을 먹고 장생(長生)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천이 수행자로서 차를 즐긴 입장이며, 차를 즐기는 이유였음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 금음산 불 인 사

주 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Tel 055)343-1638 Fax 055)343-1637

대한불교조계종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불교대학
성현덕회, 단월회, 지장회, 참선반

주 지 **만제 혜수**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333-8203

##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기**(표충사)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감 사 자명(무봉사)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성정(수덕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사무국장 박영도

회 원 사 찰 일 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Tel 055) 355-4518 Fax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 연화산 옥 천 사

주 지 **원 각**

사 부 대 중 일 동

**옥천사템플스테이**
**체험형『졸졸졸 탁탁탁』**
**휴식형『물소리바람소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 통영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 순 례 단
가릉빈가합창단
통영해병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Tel 055)648-1477, 648-1366

대중불교 전법도량

## 봉화산 정 토 원

원 장 **선진규**
신도회장 **이장명**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한국불교태고종**

##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 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1-7731

## 박해일 내과의원

**“**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 용 화 사

주 지 **현 덕**

신 도 회 일 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052)262-0518

대한불교대광종

## 서 산 사

종 정 **무등 근원**

대 자 유 인 으 로 살 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산길 260
010-5027-8894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 관 음 사

주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 법 림 사

주지 **무 진**

대해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062)234-2207

대한불교조계종

##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 광 덕 사

주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한국불교태고종

## 법 륜 사

주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한국불교태고종

## 운 천 사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주 지 **각 인법 진**
신도회장 **옥 담 김병남**
관음회장 **감로화 길미선**
총 무 **월광화 정미화**

운천사 관음회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한국불교태고종

## 세 심 정 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지장도량

## 미 륵 사

주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062)222-1145




## 봉축 연등 PHOTO

### 다시 부처님오신날 기리며…

2564년 전 4월 초파일, 궁전을 떠나 친정으로 가던 마야부인은 백화가 만발한 룸비니동산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았다. 태자는 일곱 걸음을 걷고 난 후 손을 들며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태자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 제천은 기뻐하며 갖가지 보물을 공양했다. 싯다르타는 이 세상에 오기까지 여러 생을 거치며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 공덕을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부모로 하여 이 땅에 왔다. 인류의 삶에 커다란 일이었다. 태자는 이전에 없었던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을 겪고 태자는 마침내 부처가 되니 사바의 무명이 걷히고 중생은 눈을 떴다. 45년 동안 사바의 거친 길 위에 법을 놓고 마침내 80세에 쿠시나가라 숲에서 열반에 드니 역시 인류의 삶에 커다란 일이었다. 숱한 세월이 흐른 오늘에 다시 그날을 기린다. 밤하늘 연등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 〈서울 조계사〉

# 봉축 연등 PHOTO




## 윤 4월 초파일의 아기부처님

불기 2564년 4월 초파일, 윤달 4월 초파일. 초유의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연등행렬 없는 부처님오신날이다. 마지 한 그릇, 꽃 한 다발 여법하게 올릴 수 없는 오늘, 다시 아기부처님을 뵌다. 무어라 고할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절을. 法으로 충만했던 부처님시절에서 모두가 아픈 시절로 와있는 오늘을. 이 설명불가능의 시절인연을 무어라 고할까. 그 많은 가르침의 무색함을 어떻게 고할까. 일곱 걸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무엇으로 장엄할 수 있을까. 민망하고 송구스런 오늘. 별이 어둠속에서 빛나듯 다시 어두워진 사바에서 佛法은 다시 빛난다. 다시 불법이다. 공업(共業)의 오늘을 부처님께 고하며 다시 불법에 다가갈 뿐이다. 오직 그 뿐이다. 다시 별들의 시간이 오고 거리엔 연등이 환하게 돋아난다. 비록 윤 4월의 초파일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탄생계가 선명해지는 오늘이다. 제석천과 사천왕이 아기부처님을 외호하며 오늘의 어둠을 밝힌다. 〈서울 청계천 장엄등〉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한불교조계종

##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 용구산 용 흥 사

주지 **덕 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 원 효 사

주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무등로 1514-35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 Muni 비로공덕회 청 빈 암



**힘내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02-12
062)267-0108
네이버 밴드모임 청빈암 피어라

대한불교조계종

##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 정 안 사

주지 **동 초**

신도회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 호 국 사

주지 **동 천**

**담양 죽녹원 방생사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5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선 원

주지 **진 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062)653-8108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 봉 덕 사

주지 **대천 현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062)674-2888

대한불교조계종

## 천 룡 사

주지 **무 등**

❁ **신 행 기 도 회** - 매월 둘째 일요일 (명산명찰 순례)
❁ **법화경 읽기 모임** - 매월 음력 1일 ~ 7일
❁ **다라니 독송회**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회)
❁ **성 덕 회** - 포살 법회 및 용맹정진 기도 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TEL 062)234-1338 FAX 06)234-0108

무등산 소원성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도 무**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 자 운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8-8
062)222-8296

한국불교태고종

## 정 인 암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43-1
062)523-0035

오백나한 도량

## 도 선 사

주지 **도 원**

총무 윤경화 신환의 합장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61-6
062)234-7633

한국불교태고종

## 군 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Tel 063)453-0050

##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중앙감사 **이정상**
단 장 **김용수**
수석부단장 **구강식**
부 단 장 **윤태근**
사무국장 **강대후**

포교사 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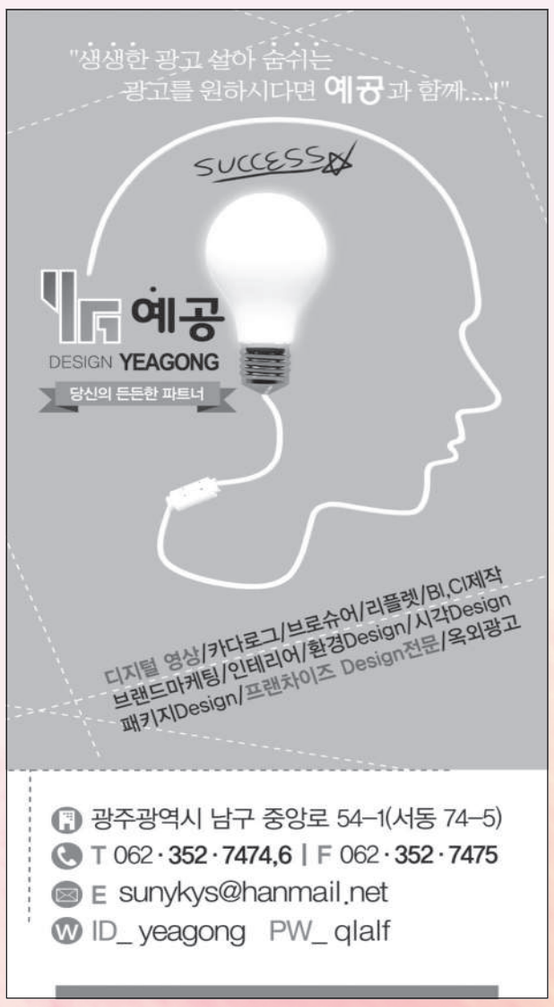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Fax 522-5666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063)841-1355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 지 **월은 종명**
신도회장 **월광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063)445-3266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 금 선 암

주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 걸**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
063)462-5366
www.do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 익산 관음사

주지 **덕 림**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062)854-1578

한국불교태고종

## 구미산 일광사

주지 **승천**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성황산길 50
063-535-3380

대한불교원효종

## 성황산 미타사

주 지 **경 오**
신도회장 **김종현**
총 무 **이윤영**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수성동)
063)533-1373

##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행**

사부대중 일동

## 남원시 봉축위원회

봉축위원장 **도법스님**
사암연합회장 **승묵스님**
신도연합회장 **윤평호**

사부대중 일동

## 전북불교회관 108산사순례단

단장 **하유호**
총무 **고귀월**
재무 **정금옥**
**고경란**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 행복 위한 붓다 가르침 '감사'



최훈동의
## 마음 사용 설명서

⑪ 사실과 거짓

**11-1**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는 속담은 심리학적으로 진리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신념의 굴레는 성향으로 굳어져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맨 처음 반응은 느낌입니다. 느낌과 감정에 뒤이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후속합니다. 자동적 생각들을 찬찬히 보면 어떤 일정한 틀(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 감정도 좌우하고 행동도 지배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경험하여 생긴 신념들은 무의식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평생을 호령하지요.

눈을 감고 조용히 삶을 돌아보세요.(호흡과 함께 1-2분 숙고해봅니다)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과 에고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바라보세요.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주목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겨나 배경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배경과 조건을 통찰하기 전에는 세살 버릇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지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랑 대신 야단 맞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거짓을 지어내기 시작하였지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듭니다.

**11-2** 판단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나의 주관적 판단일까요? 판단 또한 과거경험과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 가운데 과거경험은 기억에 보존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창고(무의식)에 수록되고 저장된 내용이 회상을 통해 기억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무의식적 조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조현증의 경우 망상적 변형이 환상적 기대와 함께 비빔밥처럼 버물려지거나 기억 샐러드를 만들어냄을 봅니다. 잠자는 동안 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기억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은 상징화, 합리화를 통해 은폐하고 싶은 것들이 의식에 드러나도 괜찮을 정도로 변형되지요. 기억의 편집도 일어납니다. 두 사건의 일부가 서로 혼합되어 기억 회상을 통해 새롭게 기억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무의식적이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태연합니다.

**11-3** 코로나 사태가 일깨워준 사실은 거짓은 크나큰 재앙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중세의 페스트 때도 그렇고 현대의 코로나 때도 집단감염으로 국가와 세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맹목적 신앙으로는 보호도 구원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견해에 입각한 신앙입니다. 바른 견해는 과학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상상과 기대가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에 일부 기초하지만 사실을 부풀리거나 덧칠하여 나타납니다. 마치 조그만 눈 주먹이 굴리고 굴리다 보면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묘한 위장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가짜뉴스는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리를 빙자하여 권위적 태도를 취하며 하느님을 팔고 부처님을 파는 행위들이 그것입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 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11-4** 코로나는 인간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깨우침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안전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지구촌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공간적 격리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경제적 봉쇄까지 일어나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대신 사람들 활동이 줄고 소비가 주니까 경제는 침체되었지만 대기질이 좋아지고 환경은 정화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연기법)이 피부에 와닿는 시점입니다.

**판단은 과거경험에 근거**
**과시욕구가 선입견 잉태**
**내면의 선한 마음 살려야**
**감사 통해서 행복 얻는다**

**11-5**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의존을 거부하면 오만해지고 혼자 잘남에 빠지기 쉽지요. 의존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것, 곧 평등한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가 원활한 경우를 보면 상호 존중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지만, 관계가 단절되면 고립이고 대화 단절이고 감정 차단이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만을 내세우고 종교를 방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종교로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을 가두어 관계 회복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손 안 씻어도 되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괜찮아. 안전거리 지키지 않아도 감염 안 되고 밀집 예배도 괜찮아. 모두 신앙이 없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우리는 괜찮을거야. 우리가 믿는 신은 전능하거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주위에 전파합니다. 진실인가요? 오만임이 밝혀졌습니다. 신앙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모습은 불교에도 팽배합니다. 깨달으면 환골탈태하고 전지전능하여 하늘을 날고



모르는 게 없는 도인이 된다는 환상을 갖습니다. 이 환상의 그늘에서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이 신격화되어 활개 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양인을 보면 '코로나 아시아' 라고 손가락질하며 혐오하였지요. 사실인가요? 참된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입니다. 한 번의 거짓된 마음은 자신의 결함이나 치부를 숨기는 방어에서 나왔지만 그 폐해는 일파만파임을 코로나는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감염 상황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보도한 결과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국격을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합니다.

**11-6** 이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선입견이나 여러 신념들로 채색 가공하여 그럴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잘 보여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하여 오만과 편견을 만들고 있군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는 가르쳐줍니다. 바이러스도 의식이 있어서 생존을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그들에겐 남녀노소 그리고 종교나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뽐냄이나 만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차별 공격자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겸허히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은 미생물일지라도 행복하기를 빌라는 부처님의 자비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중국 무협을 보면 의발전인들이 있습니다. 붓다는 의발을 전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단 승계를 요구한 데바닷따에게도, 상수제자인 사리불이나 목건련 존자에게도, 임종 후 뒤늦게 온 가섭 존자에게도, 부처님은 금란가사를 두르고 주장자로 설법하시지 않으셨을뿐 아니라 당신을 신격화하여 믿지 말라 하셨으니 모두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부처님은 의발전인 한사람이 아닌 인류 모두에게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 인 가르침을 전하셨지요. 전염병이 돌자 청소와 위생을 강조하셨고 전생과 내생을 훤히 보는 신통력을 경계하셨습니다. 여섯 신통(육신통) 가운데 고통을 일으키는 탐진치(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세 가지 독한 마음, 삼독심)를 소멸시키는 신통 외에 다른 신통들은 환상에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가운데 합리적인 깨우침을 강조하시지요.

**11-7** 로힛사라는 선인은 빠르게 걷기 신통(신족통) 제일이었습니다. 하루 천리씩 달려 세계의 끝을 보리라 결심하고 죽을 때까지 힘껏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잠깐 먹고 마시는 것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열심히 달렸지요. 세계의 끝에 도달했을까요? 부처님은 아무리 빠른 수단을 이용해도 세계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세계를 통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눈과 귀, 코와 혀, 몸을 통하여 인식되는 세계와 마음으로 짓는 세계는 투철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지자(인식된 세계를 모두 아는 자)'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서 일으킨 번뇌의 구름들을 잘 보고 제거하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신통력이라는 것이지요.

괴로움에 신음할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대신, 내면으로 눈을 돌려 어떻게 이 괴로움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가를 명료하게 알면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으면 몸의 고통마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환상은 붓다를 신격화하는 잘못입니다. 타종교와 달리 붓다는 불치의 병을 낫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가슴을 치면서까지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그런 때에 오직 한 가지 느낌만 일으키나니 몸의 느낌만 있고 마음의 느낌은 없다. 비유하면 하나의 독화살만 맞고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않는 것처럼, 몸의 느낌으로는 괴로울지언정 마음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역경과 재난을 만났을 때 2차적으로 자신이 만든 불안과 절망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행복은 초월적 권능자가(신불)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다는 게 붓다의 성찰입니다.

**11-8**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들 마음의 바탕에 선한 마음과 타인을 위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이 본래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고 노력하여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맹자는 이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양지:良知) 습득하지 않고도 행동하는 능력(양능:良能)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양심:良心) 참된 마음이라는 거지요. 신성이나 불성도 같은 맥락의 표현들입니다.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발현시키고 깨워내 쓰는 게 중요하군요. 허공처럼 쓰면 허공같은 마음이 되고 좁게 쓰면 편협한 마음이 되지요. 마음은 무한 가변성이 있어서 그 사용은 전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메시아나 미륵을 기대하는 것 또한 욕심임을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자각하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복하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소중합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기관으로, 장기 · 인체조직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사업, 국내외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등을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환자돕기 후원문의: 02-734-8050 온라인후원: 농협/ 053-17-001346 ARS: 060-703-1133(한 통화 5천 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신지 2564년.
온 마음을 다하여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불자

1295호 | C14 | 전면광고

너희 비구는 모든 음식을 받았을 때에 마땅히 약을 먹는 듯 하고,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더하고 덜하지 말며, 몸을 유지하고 주림과 목마름을 없애는 데에 맞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희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 | |
|---|---|
| 대웅전 | 한옥별장 |
| 요사채 | 재실 |
| 누각 | 산신각 |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 • •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도심사찰)

• • •

010-5736-1835

• • •

도심속 아름다운 절
운영할 비구니 주지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 • •

010-6892-3999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내토굴
◎ 대지 : 19평
◎ 지상 3층건물
◎ 각층 : 19평
◎ 매가 : 1억7천5백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대응사(종교부지 1700평) : 백병길 171 •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임대에서 매수전환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조건 및 금액절충)

010-4225-0012

##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유명한산 칠부능선, 365일 1급수물 사시사철 흐르고 옹달샘 있음, 가옥 40평, 25평 2채
• 대지 : 8,500평
• 가액 : 8억 5천만원
• 터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 경기,충남지역 상가와 물물교환 가능

010-4130-0606

## 동 진 불 사

◎ 위치 : 경주시 안간읍 소재
◎ 부지 : 8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단청,청기와)
◎ 요사채 : 35평(1층 : 방4개)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5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치 : 경북(갓바이 인근)소재
◎ 부지 : 600평(종교부지)
◎ 법당 : 40평(단청)
◎ 요사채 : 2동 7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4억 2천만원
◎ 특징 : 산사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 제주,부산지역 급매물 찾습니다 ****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요사,접견실,나한전,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3층 약50평
• 지하철 도보3분, 대전역 3정거장 도보20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7725-3196

## 좋은사찰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중심지 큰도로변
• 대지: 약60평
• 건평: 1층법당21평,공양간, 방 약10평,2층요사채15평, 건물앞주차5대,도량에3층 석탑,석등
• 가액: 3억2천

010-8669-5665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 산신각, 종무소외
• 넓은마당, 사찰 외 넉넉한 주차장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대출 : 2.5억~3억 가능

010-2669-776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대지 : 114평
• 건물 : 법당, 요사채(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가액 : 1억 1천만원 (대출 2천5백 포함)
• 장호원 차로 5분거리, 공사중인 경전철 차로 8분거리

010-3326-7858

## 사찰명당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 4필지, 총778평
• 전원주택 3채 건축가능
• 산세수려, 맑은 개울물
• 차진입가능
• 절터명당
• 가액 : 1억(절충 가)

010-3540-019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 시설금 3천만원

010-9036-213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칠성시장 부근 2층 70평, 삼존불, 신중, 산신, 소불200불, 신도다수, 불사관계로 양도,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5십만원
• 시설비 전부 2천만원

010-3381-080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동대(병원)10분
• 대지250평, 하천부지400평
• 8각법당30평, 요사채2동, 종무소1동, 버스20분격, 2차선에서 절까지200m, 산끝, 계곡1급수도 있고 면사무소, 우체국, 목욕탕 모두10분내, 슈퍼마켓 1분
• 2억9천(부동산 업체 사절)

010-9388-0215

##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이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감 스님의
## 암각화 기행



### 우리 집 설계도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의 할아버지

큰 할머니 유훈(遺訓) 따라
대대로 살아 온 집

출입구는 남쪽으로
안쪽에는 방 2칸
중앙에는 비워둬서 하늘빛을 들이고
성스럽게 기도하며 따뜻하게 난로 피고

하늘 기운 가득하고 자비가 넘치는 집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우리 집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집의 설계도를 그린 것 같다. 구조는 간단하다. 출입구가 표시되어 있고, 집의 중앙, 그리고 뒤쪽에 안방이 2개 그려져 있다. 집과 함께 그 옆에 산양과 큰 고리 지팡이를 2개씩 그렸다. 숫자로는 두 개씩이지만, 숫자를 넘어서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집의 내부를 그려놓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데, 왜? 그렸을까? 바위에 새겨 놓을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여름이나 겨울에 출입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 난로를 놓는 위치, 어른과 아랫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 각각의 움직이는 동선(動線)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을 하찮게 여겨 지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보면, 자칫 집이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른 삶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 작은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도를 바위에 새겨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의 원칙도 단순하게 해야 지키기도 쉽고, 오래 지켜진다. 그래야 삶이 단순해지고 번뇌도 적다.



대원성보살의
## 선지식 '산중서신'
⑪ 보성 스님

# 유묵으로 주신 '초심'의 가르침
〈初心〉




"초심 가야산인 보성(初心 伽倻山人 菩成)"
1967. 11. 18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은 없다. 어느 날 스님께서 유묵 한 점을 주셨는데 늘 가르침으로 품고 산다.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바쁘고 부산한 일상을 정리해 줄 때가 많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삶에 이끌려 살다보면 경전에서 배우고 법당에서 들었던 법문들이 무색하게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절에 가는 일도 그저 가야 하니까 가고, 법회 갔으니 법문 들어야지 하면서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으니 마음에 쌓인 것은 하나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스님의 유묵 '초심'이 떠오른다. 스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글 중에서 '초심'이라는 두 글자를 주셨을까. 두 글자가 본래 품고 있는 뜻도 귀한 것이지만 스님의 의중도 또한 귀한 것이라 생각된다. 무언가 하나를 주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그런 걸 주시고 싶었던 것 같다. '초심'이라고 읽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그 뜻을 떠올리면 복잡하고 산란했던 마음이 '리셋'되는 느낌이다. 그럴 때면 '초심'이라는 두 글자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1987. 여름에 보성 스님(왼쪽)과 함께 찍은 사진.

"무릇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처음으로 마음먹은 이(초발심자)는 모름지기 나쁜 벗(계율을 지키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이)을 멀리하여야 한다. 반면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가 밝은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출가자가 출가하여 처음으로 보는 〈초발심자경문〉이다. 스님들을 위한 경문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 문장들이 많다.

"병든 이가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보아 주고,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웃어른을 만나거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켜서야 한다.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뚱이 말라 시드는 것을 다스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 줄 잘 알아야 하며,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호념하되 무주상 보시의 청정함을 생각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산문에서 지녀야 할 문장들이지만 산문 밖에 사는 나와 같은 불자들에게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있어 읽을 때마다 삶의 좌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다.

절에 가고, 스님들 뵙고, 경전 보고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공부 아닌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게 없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 내 마음의 절 정각사
# 맑은 법당, 아름다운 절







정목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매월 둘째주 일요 법회

오전 10시 30분
성북구 삼선동
010-5917-7421



# 삶은 苦가 아니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향해 스승은 '삶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전염병이 돌아 하루하루 비틀거리는 중생의 삶을 향해 스승은 '밖으로 찾아 헤매면 끝이 안 보인다'고 일갈하십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길, 불안하고 불투명한 생의 행로에 스승의 가르침은 밝혀 놓은 연등처럼 우리를 환하게 비춥니다.
현대불교신문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연등공양 올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을 후원해주신 분들

강갑순 권형상 김병훈 김영식 김종선 김희섭 문순옥 박순혜 박효미 서정자 신영찬 양우창 윤나영 이명순 이영재 이해천 전선예 정일극 종무소 최철균 허의숙 혜춘스님
강금분 권효심 김보련 김영애(2) 김종숙 김희숙 문영희 박양순 박 훈 서주희 신영희 양행선 윤동환 이명옥 이영하 이향림 전성진 정재인 주대옥 최춘길 허인성 혜타스님
강길전 김경국 김보현 김영예 김종순 김희자 문임숙 박연신 박흥국 서춘건 신인임 양현임 윤병덕(2) 이명자 이영회 이향숙 전순재(2) 정점숙 주미숙 최춘웅 허재균 혜한스님
강도분 김경숙(5) 김부원 김영옥 김종영 김희준 문재근 박연희 박희복 선덕스님 신인홍 양현주 윤상기 이명희 이영희 이향순 전순조 정정숙 주미정 최학우 허재승 혜해스님
강명옥 김경순(2) 김상덕(2) 김영웅 김종학 김희진 문점숙 박영숙 박희순 선송훈 신재근(2) 양호성 윤상민 이미라(2) 이옥수 이현미 전영경 정정애 주정숙 최행자 허점둘 혜화스님
강문자 김경영 김상원 김영자(2) 김종현 나광희 문정희 박영순 방명극 설송스님 신재민 양희성(2) 윤석범 이미숙 이옥희 이현주 전영옥 정정자 주춘례 최현창 허추자 혜환스님
강민수 김경자 김상재 김영주 김종훈 나귀례 문지현(2) 박영식 방명섭 설영수 신정우 양희원 윤선애 이미애 이왕구 이형신 전은범 정정희 지호스님 최현희 허태환 혜후스님
강민정 김경태 김서분 김영팔 김종희 나근수 문형자 박영애(2) 방문화 설정수 신정희 엄미경 윤수연 이미옥 이용로 이혜권 전일소행 정종노 진동석 최혜숙 허필창 호정은
강민주 김경화 김서현 김영해 김주일 나미숙 문희자 박영우 방성자 설해인 신조현 엄상호 윤수영 이미자(2) 이용법 이혜산 전정순 정지경 진말련 최화자 현남심 홍길용
강복자 김경훈 김선식 김영희 김주한 나정수 민상홍 박옥경 방순자 성거사 신진환 엄태영 윤숙경 이미화 이용자 이혜숙 전정애 정진권 진일스님 최희숙 현복자 홍미화
강봉석 김계봉 김선엽(2) 김예지 김 준 나준식 민숙자 박옥남 방장수 성기은 신진희 연영자 윤순이 이민서 이원상 이혜영 전조계 정창남 차순자 추영희 혜가스님 홍민자
강봉스님 김광현 김선옥 김예희 김준혜 나홍열 박강숙 박옥순 방태균 성낙두 신현준 염종희 윤연수 이병제 이원식 이호진 전종학 정춘복 천명순 표경희 혜공스님 홍선사
강선효 김군자 김선자 김옥선(2) 김지예 나홍용 박경숙 박옥정 배경자 성말순 신희순 예태순 윤연주 이병현 이원칠 이화자 전진수 정태순 천명혁 표선옥 혜관스님 홍 순
강성우 김귀순 김성기 김옥수 김지원 남금자 박경순 박용숙 배명옥 성민기 신희정 오경환 윤영상 이복동 이원희 이화행 전창식 정필윤 천병길 하강수 혜권스님 홍순미
강성호 김귀임 김성미 김옥자 김지함 남은영 박경애 박유철 배복순 성민서 심경우 오공표 윤영선 이복성 이유순 이훈노 전행자 정하석 천상봉 하동규 혜눌스님 홍순아
강순복 김규도 김성용 김용동 김지현 남정현 박경희 박은우 배삼순 성민자 심경희 오막순 윤영숙 이복희 이윤희 이흥숙 전현주 정학진 천수만 하성권 혜도스님 홍순혁
강순희 김규석 김성자 김용락 김지혜 노덕현 박계수행 박은주 배수은 성병준 심성학 오명환 윤영옥 이봉희 이은정 이희숙 정갑임 정해림 천영기 하성미 혜라스님 홍순형
강영내 김근영 김성준 김용만 김진금 노만수 박공임 박응순 배숙자 성불사 심숙자 오미경 윤옥현 이상국 이은희 이희정 정경옥(2) 정현욱 천우사 하여안 혜란스님 홍윤자
강윤창 김금란 김성지 김용석 김진남 노미자 박광순 박임선 배영숙 성태용 심숙희 오복순 윤용석 이상규 이익수 일 인 정고비 정현정 천윤덕 하을희 혜려스님 홍춘자
강은채 김금옥 김성태 김용섭 김진영 노병철 박기섭 박장미 배윤자 소명남 심여진 오신재 윤원자 이상락 이인상 임경옥 정군자 정혜숙 청무스님 하재한 혜룡스님 황경숙
강일순 김금자 김세영 김용숙 김찬수 노성희(2) 박기준 박재명 배은호 소충호 심영내 오영숙 윤정숙 이상민 이재봉 임문숙 정금란 정혜스님 총무국 학림사 혜모스님 황광접
강임순 김기석 김소정 김용순 김찬영 노실호 박나리 박재석(2) 백광수 손광자 심영애 오영희 윤정일 이상숙 이재숙 임보라 정금희 정흥교 최갑식 한강복 혜목스님 황논철
강정숙(2) 김기준 김손희 김용호 김찬율 노영애 박남순 박재완 백근혁 손동하 심영자 오용근 윤향숙 이상심 이점선 임선희 정길동 정희경 최경수 한경호 혜무스님 황선자
강춘계 김기홍(2) 김수경부회장 김용환 김철수 노우현 박도룡 박재훈 백길수 손문철 심운미 오인숙(3) 윤희원 이상태 이정남 임실결 정덕남 조경순 최경자 한계연 혜문스님 황성원
강호순 김길봉 김수민 김운아 김철종 노재일 박말이야 박정남 백미현 손영하 심원식 오재영 이강만 이상필 이정민 임양희 정덕수 조경화 최계숙 한국본 혜민스님 황수경
강화자 김나은 김수옥 김원순 김추자 노현주 박명남 박정노 백삼의 손윤기 심유진 오정애 이경례 이상호 이정옥 임옥빈 정동하 조동래 최기남 한기운 혜범스님 황수영
고경민 김남규 김수진 김원익 김춘규 노호현 박명순 박정민 백수정 손정순 심재만 오정희 이경숙 이서하 이정자(2) 임인자 정말생 조동제 최낙식 한기준 혜벽스님 황순희
고미숙 김남희 김수현 김유미 김춘녀 노효정 박명옥 박정부 백순향 손정애 심재화 오준탁 이경아 이석택 이정재(2) 임종구 정명스님 조동조 최난진 한명선 혜서스님 황용숙
고삼주 김대근 김숙이 김유민 김춘희 논술문화 박명희 박정상 백승숙 송금희 심춘자 오지영(2) 이경애 이선안 이정조 임춘희 정뭉화 조미영 최남홍 한명수 혜소스님 황인실
고은영 김대석 김숙자 김윤관 김태균 대각사 박무곤 박정선 백준혁 송동호 심현보 오지훈 이계동 이선영(2) 이정형 자료수집과 정미영 조민규 최동욱 한복희 혜솔스님 황인욱
고은주 김대진 김숙희(3) 김윤순 김태수 대광사 박무주행 박정숙(3) 백진구 송병권 안경호 오필선 이계숙 이선자 이종섭 자인스님 정미화 조봉순 최미선 한본국 혜수스님 황인희
고한순 김덕임 김순남 김윤자 김태숙 대산스님 박미경 박정자(2) 법보시 송복순 안무희 오희숙 이곡점 이선희 이종애 장규숙 정복순 조봉천 최미숙(2) 한선가 혜엄스님 황정연
공주학림사 김도형 김순득 김윤중 김태오 덕암스님 박미선(2) 박정희(3) 법성사 송상용 안석순 옥선영 이광석 이성경 이종옥 장금실 정분선 조비송 최 백 한성욱 혜연스님 황태숙
공평근 김동영 김순복 김은숙(2) 김태윤 도공주지스님 박미자 박종림 법안스님 송상욱 안선환 옥영식 이광수 이성우 이종의 장동희 정상윤 조상원 최병락 한영애 혜용스님
곽민정 김동우 김순봉 김은재 김택곤 도양순 박미현 박종수 법연스님 송선순 안수홍 왕상헌 이광숙 이성임 이종협 장명숙 정서영 조성국 최복섬 한영찬
곽민준 김동혁 김순자 김은주(2) 김판례 도예린 박미희 박종숙 변상옥 송선화 안순환 우상인 이광훈 이세달 이주원 장명순 정서은 조성일 최복순(2) 한윤심 (사)나누며 하나되기
곽순정 김만순 김순희 김은지(2) 김학수 도우스님 박병혁 박종임 변영자 송솔이 안승원 우지예 이군자 이수영 이주환 장미숙 정선옥 조신제 최봉희 한윤진 (주)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곽춘자 김명란 김승재 김은하 김한솔 도원스님 박봉영 박종화 변영희 송숙자 안연홍 원법스님 이귀연 이수예 이중기 장미순 정선자 조애순 최성호 한은섭 한마음선원강릉지원
곽한영 김명선 김시경 김응태 김해숙 도이환 박부억 박주호 변융태 송순희 안영옥 유강수 이근기 이수자 이지성 장미자 정설매 조약식 최성희 한정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구본곤 김명순(3) 김시라 김의순 김향숙 도주양 박분름 박지연 보광석재 송용관 안은덕 유경자 이금숙 이숙경 이지숙 장성윤 정성남 조영남 최순섬 한정숙(2) 한마음선원광명선원
구본국 김명아 김시자 김의식 김현국 동담스님 박상섭(2) 박진우 불각행보살 송은경 안의자 유경하 이금옥 이숙희 이지은 장수연 정성택 조영숙 최순이 한제진 한마음선원광주지원
구자삼 김명옥(2) 김신득 김인옥 김현신 동명한의원 박선미 박진형 상현스님 송인서 안재필 유규상 이금재 이순자(4) 이지현(3) 장양경 정순남 조욱형 최영숙 한지연 한마음선원대구지원
구제근 김명희 김신숙 김인태 김현아 동주주지스님 박선엽 박차선 서경미 송정연 안정은 유매리 이기순 이순희(3) 이진선 장양순 정순자 조은규 최영희 한지이 한마음선원목포지원
구하나 김무연 김안옥 김장원 김현주 라귀례 박성가 박 찬 서귀옥 송정자 안중희 유매옥 이기영 이승룡 이진성 장영민(2) 정안스님 조의연 최용자 한진송 한마음선원문경지원
구함자 김무재 김애리 김재방 김현화 류계옥 박성례 박창규 서미옥 송지희 안지순 유 미 이기정 이승애 이진숙 장윤영 정연주 조장현 최우성 한혜경 한마음선원부산지원
권갑남 김문희 김애자 김재진 김현희 류매리 박성수 박창심 서민자 송춘자 안창효 유순자 이나금 이승화 이진욱 장인권 정연희 조재규 최유숙 함미옥 한마음선원안양본원
권귀숙 김미강 김양민 김재훈 김형곤 류석권 박성열 박채옥 서상덕 송현헌 안충헌 유영복 이낙영 이시용 이진주 장지형 정영기 조재윤 최유정 함영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권규열 김미경 김양순 김재희 김형두 류성열 박성용 박철홍 서상옥 송호진 안혜자 유윤정 이남심 이양우 이진후 장진성 정영숙 조정남 최은희 행허스님 한마음선원제주지원
권도현 김미란 김양희 김정단 김형준 류현실 박소진 박추자 서상옥 신경자(2) 양도근 유은정 이남희 이어영 이창수 장해기 정영신 조정자 최자현 향부향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권명희 김미래 김언희 김정렬 김혜경 명을식 박수영 박춘자 서석순 신경희 양미옥 유을순 이달근 이여주 이창훈 장현만 정영천 조정해 최잠숙 허경순 한마음선원진주지원
권민진 김미숙(2) 김연득 김정례 김혜원(2) 무원주지스님 박수정 박태은 서송자 신길주 양세욱 유재기 이대섭(3) 이연보 이채옥 장혜경 정옥선 조정희 최재순 허경식 한마음선원청주지원
권순진 김미원 김연수 김정숙(6) 김홍록 문경숙(2) 박숙자(2) 박해소 서영숙 신남선 양소영 유정숙 이대희 이연애 이철규 장혜선 정옥화 조준석 최점순 허경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권영숙 김미지원장 김연옥(4) 김정아 김화남 문명숙 박숙희 박해일 서영호 신덕근 양승철 유지호 이도경 이연옥 이춘근 장희숙 정용래 조철환 최정기(2) 허 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권영자 김민규 김염순 김정애(6) 김화일 문미경 박순기 박향적 서은애 신미향 양애순(2) 유찬형 이동건 이연재 이춘형 전명국 정우스님 조필순 최정애 허두련
권익중 김민근 김영규 김정옥 김효상 문미숙(2) 박순연 박현숙 서인숙 신선희 양연희 유창연 이동진(2) 이영득 이춘희 전명아 정욱진 조필현 최종대 허명숙
권정숙 김민선 김영봉(2) 김정희(2) 김효성 문병현 박순옥(2) 박혜경(2) 서점옥 신성민 양영모 윤경호 이랑애 이영리 이탄주 전미자 정은영 조한주 최종열 허복영
권정애 김민자 김영석 김제성(2) 김후곤 문선희 박순이 박혜선(2) 서정복 신성완 양영수 윤경희 이말순 이영숙(2) 이태권 전병수 정의진 조항석 최주선 허수자
권정화 김민주 김영선 김종구 김희경 문성현 박순임 박혜성 서정선 신수영 양영순(2) 윤구영 이명락 이영순(4) 이태연 전복순 정인숙(3) 조혜경 최준영 허애순
권혁명 김병호 김영숙(2) 김종금 김희봉 문수홍 박순정 박혜진 서정우 신양자 양영철 윤기홍 이명숙 이영자 이해선 전상은 정인자 조혜정 최진붕 허연자

※이름은 가나다순

후원동참문의 02-2004-8200, 02-2004-8212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Tel 055)231-0994, 221-1072 FAX 055)242-107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 정법사

주지 **도 문**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Tel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대한불교천태종

## 울산 정광사

주지 **김유정**

신도회장 **이동철**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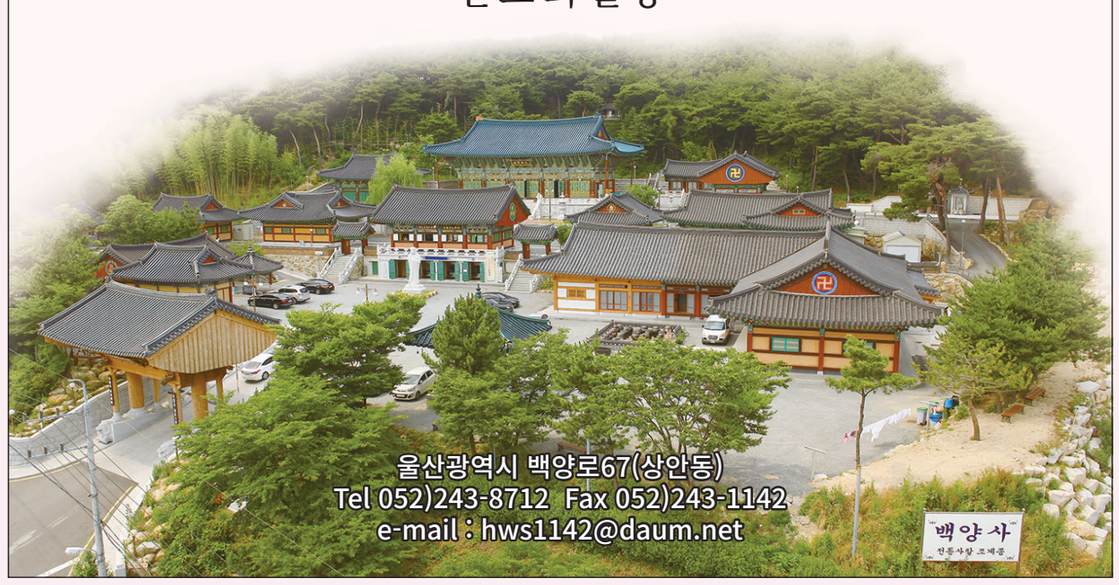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 4번길 14
Tel 052)277-7100 Fax 052)277-7102

대한불교조계종

##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Tel 055)241-5333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Tel 055)383-1256, 1292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제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 재 생 신도회장
이 영 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 행복드림센터

재 단 법 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주 지 대옥 승찬

신도회장 성재곤 외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Tel (051)626-4337, 624-7667 Fax (051)626-433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무 관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전화:051)727-2393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일동

마음으로는 부지런히 진실하게 믿되
몸도같이 부지런히 뛰어라.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벌레의 생명도 내 생명 같이 아낄수 있다면
불국토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 해 남 사

사부대중일동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21일간 금강경기도 안내

입재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회향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기도시간
매일 오전9시~12시
오후2시~ 4시
저녁7시~ 9시

기도동참금
5만원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길 13
Tel (052)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좋은 인연 지혜로운 삶**

✷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Tel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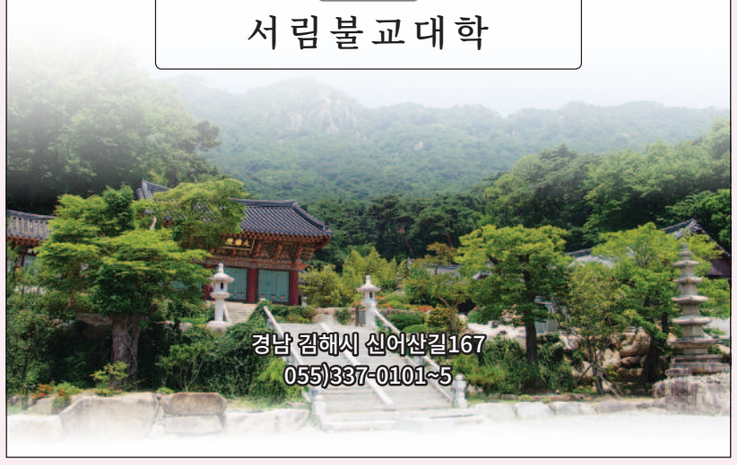
##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055)3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 진불선원

**진불선불교대학**

선원장 **설 우** 주지 **무 아**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112(용호동)
Tel 055)275-3222 Fax 055)275-1222
http://cafe.daum.net/jinbulcenter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대한불교법화종

##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Tel 055)282-7402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일동




대한불교조계종

## 극락도량 약 천 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 오 어 사

주지 **종천**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 해 운 정 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 지
센터장 **청 명**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송현동 1928-13)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 안 흥 사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86(상방동)
TEL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 제비원 연 미 사

주지 **등 운**

신도회장 천성용(법안)

매월법회: 초하루기도 (음력 1일), 미륵재일 (음력1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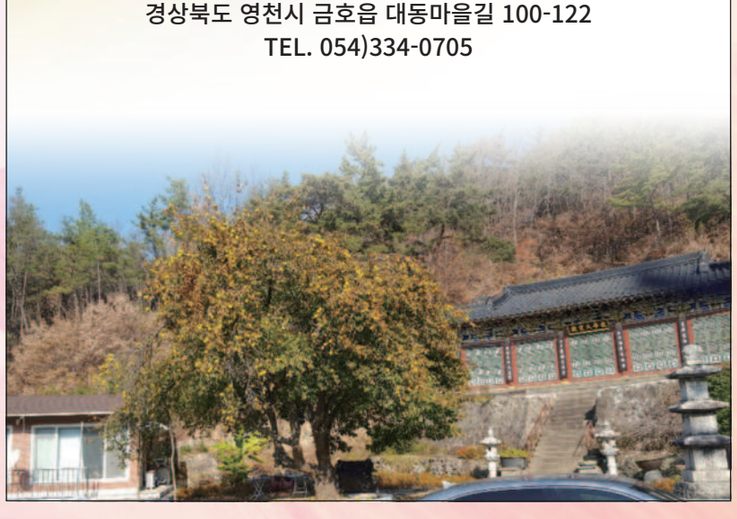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 봉화산 대 명 사

회주 **석 해**
주지 **석 불**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동마을길 100-122
TEL. 054)334-0705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사와 나눔은 우리동네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 마이산 탑사

회 주 원암 혜명 스님
주 지 청파 진성 스님
총 무 정해 스님
신도회장 윤복길

**봉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전화 062)433-0012



대한불교조계종

##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062)279-3332

대한불교조계종

## 보 은 사

주지 도 제

**보은사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어린이법회 : 토요일 오후 2시
- 경전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목련합창단 : 매주 수요일 1시
- 아함경강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7월 개강 예정)
- 불교입문(기본교리) 모집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7월 개강 예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www.jeungsimsa.org

## 전북불교신도회

회장 이근재

부회장
홍수자 김영섭 최병헌
나유인 이정희 한덕남
정순례 홍영옥 박두섭
조영석 강석춘 김동현
김용수 박춘열



대한불교조계종

## 기 쁨 정 사

주지 지 인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TEL 031)974-8550



대한불교조계종

##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061)352-8097

## 성각사(聖覺寺)

주지 정 신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2-3
TEL 062)574-4348 / FAX 062)573-4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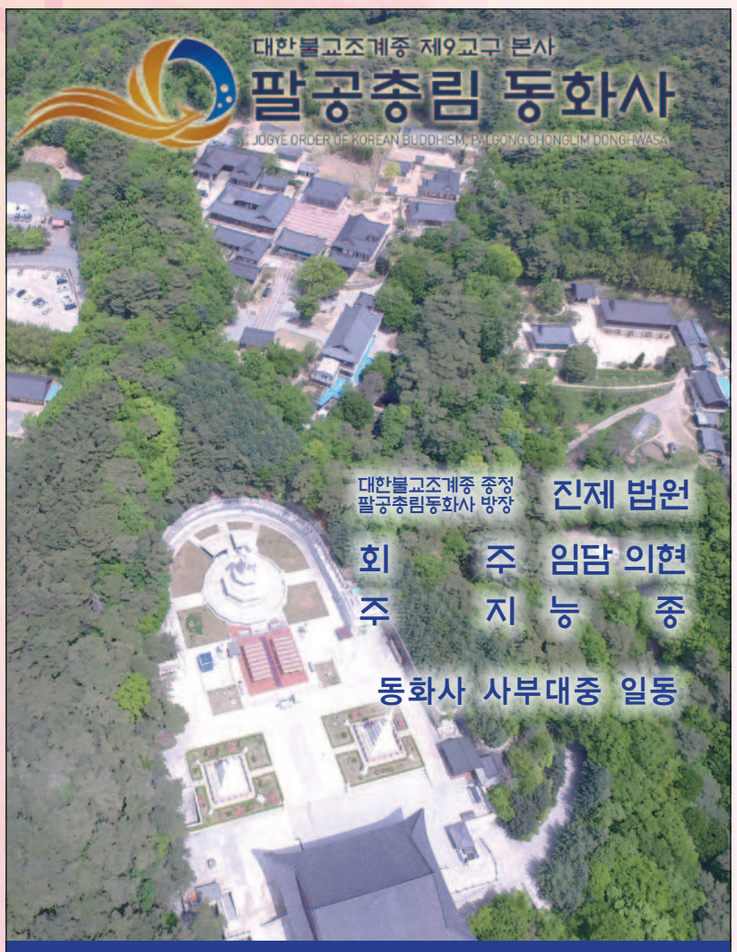


불기2564(2020)년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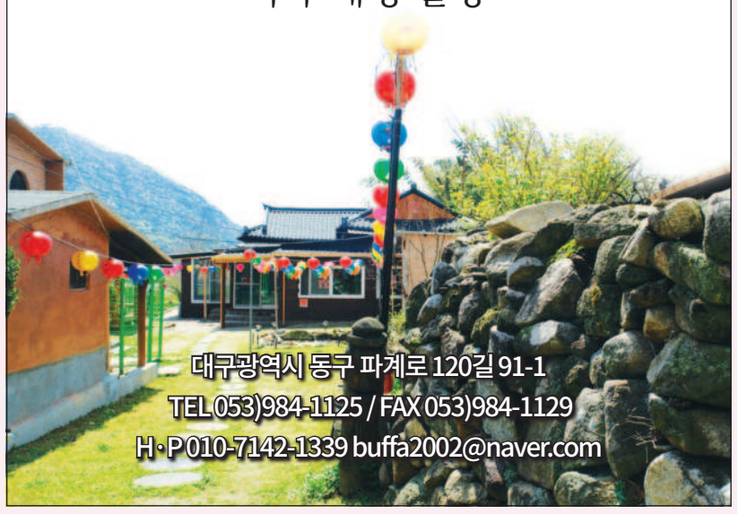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회주 임담 의현
주지 능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조계종 총본산
자 인 사
총무원장 구룡
주 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120길 91-1
TEL 053)984-1125 / FAX 053)984-1129
H·P 010-7142-1339 buffa2002@naver.com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주 지 지덕

- 국내 최대 탄생불 봉안
- 국내 최대 반려동물을 위한 축생법당(畜生法堂)개원
- 지장 천도기도도량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원길95
TEL 054)336-0052 FAX 054)336-0053
H·P 010-5153-0052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화 도진
교 법 사 문 수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김 원 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중학교 053-232-9104 / 고등학교 053-235-4414 / 법인 053-232-9175



대한불교조계종
남 장 사
주지 성 웅
사부대중일동

- 영산회괘불도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 범패 최초 전래지
-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054534-6331



대한불교조계종
봉 정 사
회주 호 성 천등선원
주지 도 륜 사부대중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ryundan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bongjeongsa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Tel (054)853-4181 / Fax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054)672-7579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 삼 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 휴대폰 010-2815-217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지원장 청 보
총 무 청 훈
사부대중일동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황토방 템플스테이 운영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054)555-8871

##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불기 2564년

# 부처님 오신날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대행선사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